금주의 법구-〈법구경〉
남을 원망하는 마음으로는
누구에게도 원망을 풀지 못한다.
원망을 떠나야 원망을 풀 수 있다.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186호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불기 2562년 · 단기 4351년 음력 1월 13일) 2018년 2월 28일 수요일

웹툰 · 문예 · 법회 등 선양사업도 진화한다

불교계 99주년 3.1절 선양활동 '다채'

노덕현 · 윤호섭 · 하성미 기자

3.1운동 99주년을 맞아 불교계가 3.1운동 정신 선양에 앞장선다.

먼저 불교계는 3.1절을 맞아 불교계 독립운동가를 기리는 다양한 법회와 행사를 연다.

장수 죽림정사(주지 법륜)는 3월 1일 죽림정사 내 용성교육관에서 제99회 3.1절 기념법회를 갖고 민족대표 33인 중 한 명이었던 백용성 조사의 독립정신을 되새긴다. 이날 법회에는 조계종 원로의원 도문 스님을 비롯해 법륜 스님 등 200여 대중이 참석한다.

합천 해인사(주지 향적)도 99주년 삼일절 기념식과 함께 민족대표 33인으로 참여한 용성 · 만해 스님을 기리기 위한 합동다례재를 봉행한다.

부산불교연합신도회(회장 박대성)도 3월 1일 부산 3.1운동 유공비 앞에서 기념식을 봉행한다. 부산불교연합신도회는 매년 부산불교계의 호국정신과 범어사 내 명정학교 학생들의 호국정신을 재조명하기 위해 기념식을 열고 있다.

박대성 회장은 "3.1운동은 부산불교계가 앞장섰던 호국불교역사"라며 "부산불교연합신도회는 2019년 3 · 1절 100주년을 기념해 〈부산불교 100년사〉 발간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독립운동의 산실인 종립 부산 **금정중학교**(교장 정진완)도 3월 1일 금정중 유공비 앞에서 추모 헌다례를 봉행한다. 추모 헌다례에 이어 동래 독립만세 운동의 소개와 만세 삼창 행사가 이어진다. **만해사상실천연합**(회장 선진규) 등 불교계 단체 인사 20여 명도 2월 28일 서울 성북동 심우장에서 3.1운동 100주년 불교도 평화통일행사 준비위원회를 결성하고 '3.1운동과 卍해'를 주제로 강연회를 열었다.

3.1운동 정신을 선양하는 행사도 99주년을 맞아 역대 최대규모로 열린다. **대한불교청년회**(회장 김성권)는 3월 1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동국대 중강당과 일대에서 제39회 전국 만해백일장을 개최한다. 1979년 3월 1일 첫 대회를 시작으로 매년 진행되는 만해백일장에는 올해 특히 최대인원인 2000여 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만해백일장에는 대통령상, 국회의장상, 서울시장상 등이 수여되며 총 600여 만원의 상금이 지급된다.

광주 나눔의집(소장 안신권)도 나눔의집 광장에서 추모제를 열고 세상을 떠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추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3월 1일 지자체의 불교계 독립운동을 조명하는 움직임도 활발하게 전개된다.

서울 은평구청(청장 김우영)은 3.1절을 맞아 1980년대 '공포의 외인구단'으로 국내 만화계를 대표한 이현세 만화가와 콜라보 웹툰을 선보여 눈길을 끈다.

진관사의 독립운동 영웅인 백초월 스님 일대기를 다룬 이 웹툰은 대형포털 사이트인 다음웹툰컴퍼니에서 3.1 특집 웹툰 '거장과의 만남'이라는 타이틀로 5회에 걸쳐 연재될 예정이다.

판타지 요소가 가미된 백초월 스님 웹툰은 단순히 역사적 사실을 되짚는 것을 넘어 한국불교 전통문화인 수륙재와 다양한 혼령들이 등장해 주인공 꿈에서 이야기를 전개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특히 백초월 스님뿐만 아니라 일본군 성노예 피해 할머니들이 겪은 고초, 어린 나이에 학업을 중단하고 조국을 위해 몸 바친 학도병들의 활약까지 담겨 일제강점기 독립운동 과정 속 역사적 사실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은평구는 이에 앞서 지난해 12월부터 〈오마이뉴스〉를 통해 ㈜붕붕아트가 제작한 또 다른 백초월 스님 웹툰 '독립운동가 백초월 스님의 삶'을 연재하고 있다. 또한 BBS불교방송은 3월 1일 밤 10시 40분 백초월 스님 다큐멘터리 '백년의 기다림'을 특별 편성했다

만해 한용운 선양사업 지방정부행정협의회는 2월 25일부터 28일까지 3박 4일간 만해로드 대장정 답사도 진행했다.

고재석 만해연구소 소장은 "3.1운동을 비롯해 독립운동 전반에 불교계의 역할이 컸다"며 "3.1운동 100주년을 앞두고 99주년을 맞아 불교계 독립운동에 대한 재조명도 함께 이뤄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해인사 · 죽림정사 등 법회
부산불교 만세 운동 재현
역대 최다인원 만해백일장
은평구 백초월 웹툰 선보여



"졸업은 새로운 시작" 동국대(총장 보광)는 2월 20일 서울캠퍼스 본관 중강당서 '2018년도 봄 학위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날 졸업식을 통해서 박사 98명, 석사 437명, 학사 1966명 등 총 2501명이 학위를 받았다. 졸업식 본식에 앞서 단과대학별 학위 수여식도 진행됐다. 동국대 불교대학은 법학관 163호 강의실에서 학사 학위자 47명에 대한 학위를 수여했다. 사진은 동국대 불교학부 졸업생들이 교내법당인 정각원 앞에서 학사모를 던지며 졸업을 자축하는 모습. 글=신성민 기자 · 사진= 박재완 기자

불자 선수 선전에 국민들 '감동'

평창 동계올림픽, 심석희 등 쇼트트랙 계주 金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불자선수들의 맹활약이 이어지고 있다. 쇼트트랙 여자대표팀 주장 심석희 선수는 주종목인 1500m에서 예산 탈락의 아픔을 겪었지만 20일 여자 계주에서 금메달을 획득했다.

조계종 중앙신도회 행복바라미 홍보대사이기도 한 심석희 선수는 명상을 통해 마음을 가다듬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정토심'이란 법명을 가진 빙속여제 이상화 선수는 2월 18일 스피드스케이팅 500m에서 은메달을 획득했다.

잦은 부상으로 올림픽을 앞두고 부상 회복에 치중했던 이상화 선수는 뼈를 깎는 노력으로 메달 획득에 성공했으며, 일본의 고다이라 나오 선수와의 뜨거운 포옹으로 전세계에 화합의 메시지를 전했다.

진천선수촌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설정 스님으로부터 격려를 받은 불자 황대헌 선수도 2월 22일 쇼트트랙 500m에서 주종목 예선 탈락의 아픔을 극복하고 값진 은메달을 획득했다.

이밖에 스피드스케이팅의 모태범 선수, 평행대회전의 최보군 선수, 바이애슬론의 김용규 선수 등도 최선을 다해 역량을 발휘했다.

또 선수들을 위해 불자인 선수 부모의 기도도 화제에 오르고 있다. 쇼트트랙 2관왕 최민정 선수의 어머니를 비롯해, 아시아 최초 1500m 동메달과 팀추월 은메달 리스트인 김민석 선수의 아버지 등이 경기 전 사찰을 찾아 기도를 올렸다.

이상화 스피드스케이팅 銀
황대헌 쇼트트랙 개인 銀
불교신도단체 응원단 파견

박종길 체육인불자연합회 회장은 "체력뿐 아니라 정신력 강화도 중요하기에 불교 신행이 도움이 될 것"이라며 "메달 획득 뿐만 아니라 화합과 열정이란 올림픽 정신에 맞게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장하다"고 전했다.


심석희 선수


이상화 선수


황대헌 선수

한편, 이 같은 불자선수들의 선전에 재가불자들도 뜨거운 응원전을 펼쳤다. 조계종 중앙신도회 임원 및 신도단체, 포교단체 대표자들로 구성된 재가불자 응원단은 2월 14일 올림픽 현장을 찾아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하고 컬링 경기를 관람했다.

이번 응원단에는 조계종 중앙신도회(회장 이기흥)를 포함한 △전국교사불자연합회 △한국세무사불자연합회 △체육인불자연합회 △경제인불자연합회 △조계종산악회 △서울교통공사법우회 △언론사불자연합회 △한의사불자연합회 △대한불교청년회 등 13개 신도단체와 △포교사단 △국제포교사회 등 포교단체의 대표자 약 50명이 참여했다.

이와 함께 조계종 직할교구신도회(회장 이금석)와 한국대학생불자연합회(회장 양희동) 등 불교 각 단체 대표자 50여 명도 2월 17일 강릉 아이스하키장에서 열린 한국 아이스하키팀을 응원했다.

양희동 대불련 회장은 "응원을 계기로 불자선수들의 선전이 이어졌으면 한다. 또 한국을 찾는 많은 외국인들이 사찰에서 한국불교문화를 접했으면 한다"고 바람을 밝혔다.

〈평창 봉사 참가기 A3〉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장엄불사 전문기업 장엄불사 보련기획이 하면 가치가 다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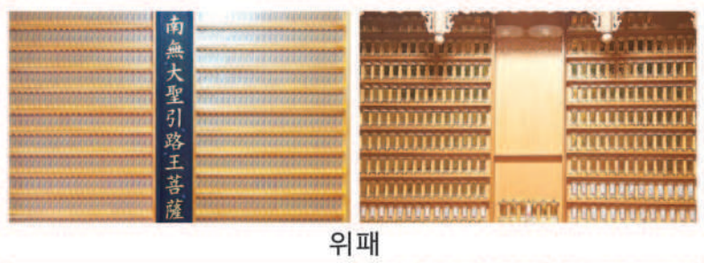
보련기획은 연등 자동승강장치, 장엄등설치, 인등, 위패, 원불전등 사찰장엄불사 전문기업입니다. 전문인력에 의한 책임시공, 철저한 품질관리와 사후관리로 신뢰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사찰특성에 맞는 맞춤형 시공으로 장엄효과를 극대화하는 최상의 서비스와 양질의 제품을 제공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기술력 향상과 신제품개발을 통한 품질향상으로 성원에 보답하겠습니다.


연등 자동승강장치


천불전


연등설치공사(고정식)


인등


위패


성취등 / 불사용품

www.boryeon.com
보련기획 BORYEON | 010-5381-9355 / 031)526-2201~2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일산리 549-1

〈Flipped Learning〉

“학생중심 ‘플립트 러닝’ 강화… 지역사회 기여도”

단독 인터뷰 **송희연 금강대 제7대 총장**

교수 · 직원 · 학생 등 직접 소통
구성원 함께하는 리더십 강조
“종단 지원금 의지 줄여나가야”

논산=윤호섭 기자

천태종립 금강대 신임총장에 송희연(79 · 사진) 前KDI 원장이 2월 9일 선임됐다. 송 총장의 선임은 전임총장의 ‘막말 파문’과 급작스런 사임 등 오랜 기간 리더의 부재 이후 이뤄진 것이어서 위기 돌파를 위한 자구책으로 해석된다.

특히 천태종은 한국개발연구원(KDI) · 산업연구원(KIET) · 해운산업연구원(KMI) 원장 등을 역임하고, 인천대 동북아국제통상학부를 세운 경제학 · 교육 전문가인 송 총장에게 거는 기대가 높다.

이에 본지는 14일 금강대서 송 총장을 만나 그가 진단한 문제점과 학교 발전을 위한 복안을 들어봤다.

Q 금강대는 최근 리더 부재와 내홍 등을 겪었습니다. 신임총장으로서 어깨가 무거울 것 같은데요.

A 금강대는 많은 불자님들께서 내주신 귀한 보시로 운영되는 대학입니다. 그렇기에 더 특별하고 소중하죠. 이런 대학 총장을 맡게 된 것은 대단한 영광이지만 현재 대학이 처한 위기를 어떻게 타개해나갈까 마음이 무겁기도 합니다. 하지만 위기에서 구성원들의 결속력은 강해질 수 있고, 이는 곧 기회로 이어진다고 생각합니다.

Q 종립대학 총장이신 만큼 불교와의 인연이 궁금합니다.

A 어렸을 때는 기독교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에서 갖던 의문들이 불교를 접하고 해소되면서 부처님께 귀의했죠. 처가가 경주여서 절과 가까워졌고, 어른 스님들을 자주 만나 불교를 공부했습니다. 개인적으로 관세음보살 보문품을 가장 인상 깊게 읽었습니다.

Q 금강대 안정화와 개혁을 위한 복안은 무엇인지요?

A 대학의 기본 역할은 교육과 연구, 지역사회 기여라고 봅니다. 그래서 금강대 6대 과제를 △세계수준의 교수진 확보 △산 · 관 · 학 연계 응용연구역량 강화 및 학생창업활동 활성화 △지방특성화사업 역량강화 △글로벌 역량강화 △구성원 간 소통 및 공감대형성 △학교재정 확대로 선정했습니다.

특히 금강대는 그동안 지역사회 기여가 미진했습니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논산시의 시정 기조와 지역기업들의 동향 등을 파악해 금강대와 연계할 수 있는 연결고리를 찾아 학교 위상을 높이는 데 힘쓸 계획입니다.

Q 자율전공제 시행 후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A 현행 학제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다만 앞서 몇 년간 학제 개편이 빈번하게 이뤄져 학생들이 혼란을 겪은 것으로 알고 있기에 개편보다는 개선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장점은 남겨두고 현실에 맞게 고쳐나갈 부분을 먼저 돌아보려 합니다.

송 총장의 금강대 실천과제

- 세계수준의 교수진 확보
- 산 · 관 · 학 응용연구 역량강화
- 학생창업활동 활성화
- 지방특성화사업 역량강화
- 글로벌 역량강화
- 구성원 소통 및 공감대 형성
- 학교재정 확대



Q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폐지했지만 여전히 신입생 모집은 쉽지 않은데요.

A 학령인구가 40만 명 수준까지 떨어졌지만 전국 대학 수는 큰 변동이 없습니다. 신입생 모집에 난항을 겪는 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죠. 하지만 그렇다고 포기해선 안 될 일입니다. 15년 전 금강대가 내세운 전액 장학금과 해외 유학은 대단한 메리트였지만 최근엔 많은 대학들이 비슷한 지원을 하면서 약해진 부분이 있습니다. 결국 이제는 또 다른 메리트를 연구해 다른 대학들과 차별화를 시도할 때입니다.

Q 금강대는 2016년 전국 대학 학부 교육 실태조사에서 교수활동이 전국 평균을 밑도는 점수를 받기도 했습니다.

A 전임교원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불가피한 결과였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개선하기 위해선 교육방식의 변화가 필요한데 개인적으로 플립트 러닝(Flipped Learning, 역순 학습)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수가 아닌 학생 중심 교육이죠. 또 외부에서 활동하는 저명인사들을 전문강사로 초빙해 교육의 질도 높여야 합니다.

Q 학생들이 강의평가결과 공개를 꾸준히 요구하고 있는데요.

A 많은 대학들이 강의평가결과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해당 대학의 현황과 특성을 제대로 고려한 뒤에 이뤄져야 하겠죠. 공개와 비공개 어느 한쪽에 무게를 싣기보다는 내부협의를 통해 방향을 결정하겠습니다.

Q 학교 구성원들에게 당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병은 숨기기보다 알려야 빨리 낫는 법입니다. 그리고 금강대는 최근 몇 년간 분명 위기였습니다. 총장으로 교수와 교직원, 학생들의 서로 다른 목소리를 경청하고, 소통창구를 마련해 공감대가 형성되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원 개개인이 기관장이라는 마음가짐으로 학교 발전을 위해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이타(利他)정신을 중심으로, 위기를 기회로 지방 강소대학 금강대를 만드는 데 함께합시다.

일연 스님 저서 삼국유사 국보 승격

관촉사 은진미륵은 국보 승격 지정예고

고려 고승 일연 스님이 저서인 〈삼국유사〉가 국보로 승격됐다. 또한 고려 시대 최대불상인 논산 관촉사 석조미륵보살입상은 국보 승격이 예고됐다.

문화재청(청장 김종진)은 “〈삼국유사〉, 〈삼국사기〉 등 3건을 국보로 승격하고 〈금강반야바라밀경 및 제경〉 등 8건을 보물로 지정했다”고 2월 21일 밝혔다.

국보 제306-3호로 지정된 〈삼국유사 1~2〉는 조선 초기 … 총 5권 중 권1~2만 … 으나 결장이 없는 … 인출본이다. 〈삼국 … 는 고려 고승 일연 … 이 1281년(충렬왕 … 고조선부터 후삼국의 … 사 · 문화에 관한 설… 을 종합한 역사서로 … 고대사 연구의 보고 … 려져 있다. 지금까지 …



관촉사 석조미륵보살입상(사진 왼쪽)과 〈삼국유사〉.

이에 앞서 ‘은진미륵’으로 잘 알려진 보물 제218호 논산 관촉사 석조미륵보살입상은 2월 13일 국보로 승격이 예고됐다. 관촉사 석조미륵입상은 1963년 보물로 지정됐으며, 55년만에 국보로 승격되는 것이다.

관촉사 석조미륵입상은 높이만 … 12m에 달해, 고려시대를 대표하는 … 불상으로 평가돼 왔다. 석불입상은 … 우로 빗은 머릿결 위로 높은 원통형 … 관(寶冠, 불상의 머리에 얹는 관)을 … 고 두 손으로 청동제 꽃을 들고 있다. … 쬐하고 명료한 이목구비는 멀리서도 … 수 있을 정도로 인상적이다. 또한 불 … 의 재료인 압도적인 크기의 화강암에 … 서 느껴지는 … 숙중함은 고려 … 왕실의 권위 … 와 상징을 보 … 여준다.

신성민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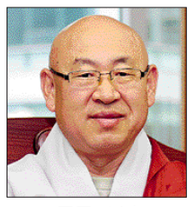
조계종, 부실장 · 특보 인사 대폭 단행

2월 21일, 기획실장 승원 문화부장 종민 스님 등

조계종 제35대 집행부를 이끌어갈 부실장과 특별보좌관 등이 대폭 임명됐다.

조계종 총무원장 설정 스님은 2월 2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서 신임 기획실장에 승원 스님(가평 백련사), 문화부장에 종민 스님(서울 옥천암), 사업부장에 승원 스님(강릉 보현사)을 임명했다. 사회부장 진각 스님과 재무부장 유승 스님은 유임됐다. 이와 함께 특보단도 새롭게 꾸렸다. 특보단장은 정만 스님(前총무부장), 정무특보 금곡 스님(양양 낙산사), 문화특보 혜일 스님(前기획실장), 법무특보 만당 스님(중앙종회의원), 불교사회연구소장 주경 스님(동국대 감사)이 맡았다.

이 자리서 설정 스님은 “세상이 급격히 변하는데 종단이 변하지 않으면 중생 구제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 서로 부족한 점이 많더라도 함께 도와 종단과 한국불교 발전을 위해 노력하자”면서 “항상 정진하는 마음으로 소임을 맡아주길 바란다. 공심이라는 소중한 가치를 잊지 말고, 사리사욕 없이 중생을 위해 회향하는 자세로 수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승원 스님(기획실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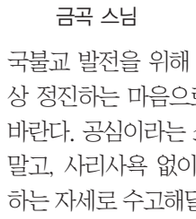
종민 스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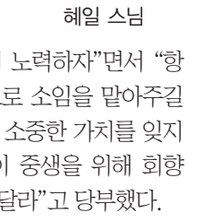
승원 스님(사업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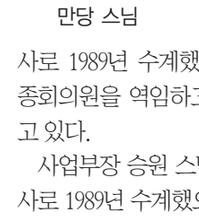
정만 스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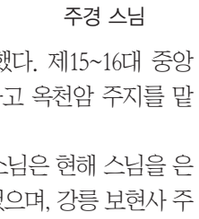
금곡 스님



혜일 스님



만당 스님



주경 스님

기획실장 승원 스님은 관조 스님을 은사로 1975년 수계했으며, 가평 백련사 주지를 맡고 있다.

문화부장 종민 스님은 월산 스님을 은사로 1989년 수계했다. 제15~16대 중앙종회의원을 역임하고 옥천암 주지를 맡고 있다.

사업부장 승원 스님은 현해 스님을 은사로 1989년 수계했으며, 강릉 보현사 주지를 맡고 있다.

총무원장 종책특별보좌단장 정만 스님은 벽파 스님을 은사로 1977년 수계했다. 총무원 총무부장, 기획실장, 재무부장, 호법부장, 한국불교문화사업단장, 제12대 중앙종회의원을 역임했다.

정무특별보좌관 금곡 스님은 성욱 스님을 은사로 1982년 수계했다. 총무원 사회부장, 재무부장, 호법부장 및 보광사 · 흥천사 주지, 제15~16대 중앙종회의원을 역임하고, 조계종 선암사 · 양양 낙산사 주지를 맡고 있다.

문화특별보좌관 혜일 스님은 도견 스님을 은사로 1986년 수계했다. 백련사 · 연화사 · 흥천사 주지 및 총무원 문화부장, 기획실장 및 제14~15대 중앙종회의원을 역임하고, 성남 봉국사 주지를 맡고 있다.

법무특별보좌관 만당 스님은 지종 스님을 은사로 1992년 수계했다. 제15대 중앙종회의원을 역임하고, 제16대 중앙종회의원 및 영광 불갑사 주지를 맡고 있다.

불교사회연구소장 주경 스님은 설정 스님을 은사로 1986년 수계했다. 부석사 주지 및 총무원 기획실장, 제14~16대 중앙종회의원을 역임했다.

윤호섭 기자

각 분야를 책임 있는 교수진과 열정적인 강의
www.dongsanbud.net
2018년 불교학과 52기 신입생모집 (2년과정)
불교학과 3월 8일(목) 오후 1시 개강
• 주간반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 저녁반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 통신반 CD 배송, 사이버 강좌

■ 월호스님 초청법회 3월 8일 (목) 오후 7시 ‘대면관찰 – 해탈의 기쁨’
1년차 과목 ①불교의 체계적 이해 (아함경 1) ②불교문화와 포교 ③선불교 ④근본불교(아함경 2) ⑤인도사상 ⑥유식불교
1년차 교수진 범산 경일스님(학장) 이미령교수 윤영수교수 법인스님 김호귀교수 홍인스님 최봉수교수 김형준교수 묘주스님 최종남교수
2년차 과목 ⑦인도불교 ⑧중국 · 한국불교 ⑨법화경 ⑩화엄경 ⑪정토불교 ⑫대승불교와 밀교
2년차 교수진 정병조교수 황순일교수 김경집교수 차차석교수 박 종교수 주명철교수 정성준교수 정엄스님
■ 모집인원 (불교학과) : 100명 (주간반, 저녁반, 통신반)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반명함판 사진 2매, 입학금 20만원
■ 원서교부 및 접수 : 2018년 1월 15일 부터
■ 문 의 : 사무처 02)732-1206 ~ 8 FAX 02)732-1207
* 상기 과정을 졸업한 후 한국불교교육단체(한불련) 연합회포교사 고시를 거쳐 포교사 자격을 획득함
과정 개강일
• 불교다도학과 (2년과정) 3월 6일(화) 오전 11시 • 불교미술학과 (2년과정) 3월 8일(목) 오전 10시 30분
• 전통범패의식반 (2년과정) 3월 7일(수) 오후 2시 • 한글불교의식반 (2년과정) 3월 10일(토) 오후 2시
불교교육 전법도량 동산불교대학 · 대학원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45-11(수송동 46-20, 동산불교회관) T. 02)732-1206~8 F. 02)732-1207 http://www.dongsanbud.net

제4기 보경사 염불대학원
불교의식 · 범음범패 수강생 모집
– 교육과정 –
각단 불교의식 및 범음범패 1년 과정
• 도량석, 종송, 향수혜례, 삼보통청, 중단퇴공 각단불교의식, 관음청, 지장청, 중청, 시달림, 방생의식, 상용영반, 구병의식, 신중39위작법, 관음시식, 바라, 화청
• 사물 : 북, 태징, 목탁, 요령
※ 1년과정 이수 후 품수증, 법사증 수여 (숙식제공가능)
보경사 염불대학원에서는 각단 불교의식 및 범음범패를 봉양할 수 있도록 지도해 드립니다
⇨ 모집대상 : 스님, 출가예정자, 재가자
⇨ 제출서류 : 수강신청서 (본 교육원에서 교부) ····· 1부
반명함판 사진 ····· 1매
⇨ 예비소집 : 2018년 2월 27일 (화요일, 오후 2시)
⇨ 입 교 식 : 2018년 3월 6일 (화요일, 오후 2시)
⇨ 수 업 :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 5시 (설법전)
⇨ 준 비 물 : 목탁, 요령 (교재 – 입교식시 배부)
⇨ 문 의 : 교육원 강주(일관스님) 010-9361-5566
보경사 염불대학원 학생처장 010-4530-7444
• 주소 : 경북 포항시 북구 송라면 보경로 523
대한불교조계종 11교구 보경사 선원장 철산 합장

'國統' 주인공, 신라 진골 '고승'

최연식 교수, 흥전리사지 출토 비편 명문 분석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23일 불교문화재硏 학술대회서
10세에 출가… 수행 · 지계 철저
국왕에 唐서 경전 구할 것 건의
"사지, 강원 유력 선종산문" 추정

강원 삼척 흥전리사지에서 출토된 비편 명문을 분석한 결과 비편의 주인공이 신라 진골 출신 고승이며, 사지는 강원 유력 선종산문이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연식 동국대 사학과 교수는 2월 23일 조계종 불교문화재연구소(소장 제정)와 삼척시(시장 김양호)가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한 '흥전리사지 조사 성과와 의의' 학술대회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최 교수는 '흥전리사지 수습 고승비편의 내용과 성격'에서 현재까지 출토된 14편의 비편(홍영호 · 김도현 수습 4편, 강원문화재연구소 4편, 불교문화재연구소 6편)의 명문을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비석의 주인공은 신라 진골 출신 김 씨로 아버지는 소판(蘇判)의 관등을 가진 상층귀족이다. 하지만 조부의 경우 구체적인 관직이나 관등이 기록되지 않고, 아버지 역시 관등만 있어 중앙정부의 중요한 직책을 맡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게 최 교수의 분석이다.

10세에 불교에 관심을 가지고 출가를 했으며, 출가 이후 열심히 수행해 몇 가지 상서(祥瑞)를 드러내기도 했고, 구족계를 받은 후에는 계를 잘 지켜 많은 존경을 받아 국통(國統)의 직책까지 맡은 것으로 보인다.

주인공 행적 중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국왕에게 당나라에서 대장경을 가지고 올 것을 건의한 부분이다. 당시 당나라에서 대장경을 들여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었다. 신라 때 대장경을 수용한 기록은 〈삼국유사〉에서 보이는 643년(선덕여왕 12)에 경전 4백여 함을 가져왔다는 기록이 유일하다. 이후에는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 827년(흥덕왕 2)과 851년(문성왕 13)에 약간의 경전을 들여온 것이 확인될 뿐이다.

최 교수는 "비석의 주인공이 직접 당나라서 경전을 가져왔다면 가져온 경전의 처리 등이 비문에 언급돼야 하지만 관련 내용은 없다"면서 "국왕에 건의했다는 언급이 있는 것을 볼 때 비석의 주인공은 어떤 일을 계기로 당나라서 대장경을 구해오도록 국왕에게 건의한 사실을 기록한 것으로 이해된다"고 밝혔다.

이어 "시기는 비석 주인공이 입적한 함통년간보다 이른 850년대가 될 것"이라며 "851년 사신 원흥이 불경을 가지고 귀국한 기록이 있다. 비석 주인공의 건의에 의해 당나라서 불경을 가져왔거나 원흥이 불경을 가지고 온 것을 계기로 대장경을 구할 것을 왕에게 건의했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비석 건립을 주도한 인물은 당시 지역을 실질적으로 지배했던 유력자였으며, 비석 본문 및 임기작성과 서사, 건립에는 사지의 승려들이 참여했을 것이라고 최 교수는 추정했다. 그러면서 "유력자에 의해 비석이 건립된 사실이 기록된 것을 볼 때 비석 주인공이 입적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인 10세기 전반에 비석이 조성됐을 것"이라며 "흥전리사지는 9세기 중엽부터 10세기 전반까지 비석 주인공과 문도들에게 의해 운영되던 신라 말-고려 초기의 강원 유력 선종산문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박승현 불교문화재연구소 연구사가 '삼척 흥전리사지 발굴조사 성과와 의의'를, 서영일 한백문화재연구원장이 '흥전리사진의 역사지리적 의미'를, 홍영호 하슬라문화재연구소장이 '삼척 흥전리사지 삼층석탑의 미술사적 의의' 등을 발표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는 문명대 동국대 명예교수의 사회로 양정석 수원대 교수, 엄기표 단국대 교수, 심재연 한림대 한림고고학연구소 연구교수, 홍성익 강원대 외래교수 등이 토론을 진행했다.



삼척 흥전리사지에 출토된 비편. '국통'이라는 명문이 확인된다. 14편의 비편을 확인한 결과 비석 주인공은 신라 진골 출신 김 씨로 명망 높은 고승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평창올림픽 자원봉사 참가기

"올림픽 선수촌서도 불교문화 전했으면"

김영기 포교사

전세계인들의 축제인 평창올림픽에서 선수들과 외국인 관람객들에게 한국문화를 알리는 불자들의 활약이 이어지고 있다. 20여 포교사들을 중심으로 50명이 넘는 불자 자원봉사자들이 그 주인공이다. 평창올림픽선수촌 물류팀에서 1월부터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김영기 포교사는 "선수들이나 각국 대표들에게 한국 전통인 불교문화를 더욱 알리고 싶다"며 생생한 올림픽 현장의 참관기를 보내왔다. 〈편집자 주〉



김영기 포교사(사진 오른쪽 첫번째)가 선수촌 물류팀 사무실에서 다른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봉사를 진행하고 있다.

저는 평창올림픽 선수촌에서 선수들과 각국 대표들의 장비와 생활용품 등을 나르고 지원하는 물류팀에 있는 김영기 포교사입니다. 올림픽 선수촌에서 저희 봉사자들은 총 9명이 현재 봉사하고 있습니다. 경기가 시작되는 오전에는 2명이, 오후에는 3명이 돌아가며 당번을 맡아 근무합니다.

선수촌에는 각국 협회 임원을 비롯해 지도자들이 먼저 입촌하고 선수들이 나중에 입촌했습니다. 대부분의 지도자들은 많은 국제 경험으로 인해 영어회화 등이 가능해 저희와 대화를 나누곤 합니다.

외부에서 많은 이슈가 됐지만, 봉사자들인 저희들에게도 북한 선수들의 입촌은 관심거리였습니다. 2월 8일 양양공항을 통해 북한 선수단이 입촌했습니다. 당시 경비가 매우 삼엄해 자원봉사자들 사이에서도 묘한 긴장감이 돌았습니다.

저는 비록 북한선수들을 안내하지는 못했지만, 북한 선수단의 입촌 후 5일째 되는 날인 2월 13일 IOC물류 사무실에서 북한대표팀 지도자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따뜻한 커피 한잔을 마시며 서로 반갑다고 인사를 하게 됐는데 입촌 당시의 긴장감이나 평소에 느꼈던 생각과 달리 친밀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선수촌에 있으며 아쉬운 점은 선수촌 내에 종교시설이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특히 동계 종목은 기독교 국가에서 참여를 많이 하는데 많은 지도자들과 선수들이 종교시설이 있는지 물어보곤 했습니다.

기독교 종교시설 뿐만 아니라 불교 법당 또한 있다면 선수단과 외국 관광객들이 불교문화를 조금이라도 접할 수 있는 계기가 됐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들었습니다.

이와 함께 선수촌의 식당 또한 다양한 음식을 제공하고는 있지만, 사찰음식을 필두로 한 한국의 채식 메뉴가 없어 아쉬웠습니다. 한국에는 육식 문화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채식 문화가 존재하고 있고, 특히 사찰에서는 이러한 문화가 오랫동안 전승되고 있습니다. 선수촌에서도 이런 문화를 소개하는 계기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북한 선수단 입촌에 긴장 · 감동
종교문화 소개의 장 부족 아쉬움
청소년 불자들 힘 절실히 느껴져

올림픽을 보시는 많은 불자분들이 이번 올림픽에 자메이카, 가나 등 아프리카 국가들이 우리나라의 지원으로 인해 동계 올림픽에 참여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저는 많은 불교국가들에서도 올림픽에 참여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끝으로 포교사로서 불교계 행사에 봉사를 하지만 국가적인 행사에서 자원봉사를 나서보니 청년불자들의 힘이 더욱 절실하게 느껴집니다.

여기 자원봉사자들은 주로 젊은 청년들입니다. 저는 이들에게서 우리나라의 밝은 미래를 보았습니다. 영어 등 외국어 구사능력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전세계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불교 또한 이러한 청년불자들이 많아진다면 점차 발전하지 않을까요?

사회 현안 불교적 모색 'BTN 붓다회포럼' 발족

BTN불교TV(대표이사 구본일, 이하 BTN)가 사회 현안에 대해 불교적 해법을 모색하는 '붓다회 포럼'을 발족했다.

BTN은 2월 21일 AW컨벤션센터에서 'BTN신년하례법회 및 붓다회포럼 발대식'을 봉행했다. 이날 구본일 대표이사는 신년사를 통해 "개국 23주년을 맞은 BTN이 부처님의 법으로 사회공익을 실천하는 방송으로 거듭나려 한다"며 "이를 위해 앞으로 시대가 요구하고 시대에 맞는 공익사업과 진정한 방송포교의 길을 위해 붓다회포럼을 발족해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 발족된 붓다회 포럼은 불교신행공동체 BTN붓다회의 산하조직으로 대표는 붓다회 자문위원장 종상 스님이 맡았다. 앞으로 붓다회 포럼은 각계 리더들과 불교계 지도자들이 함께 야단법석을 연2회 개최할 예정이다. 신성민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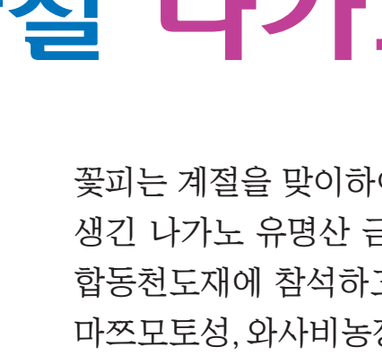
책가방 선물에 천진불 웃음꽃 '활짝'

(재)아름다운동행, 예비초등학생 1600명 책가방 지원

불교계 공익법인 (재)아름다운동행이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저소득가정 예비초등학생들에게 책가방을 선물하며 활기 넘치는 학교생활을 응원했다.

아름다운동행(이사장 설정)은 2월 20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로비서 '선재의 선물-책가방 보내기 사업' 일환으로 책가방 전달식을 열고, 총 1619명의 예비초등학생들에게 책가방을 선물했다. 특히 KB국민카드(사장 이동철)는 1억 원의 기금을 기탁하며 더 많은 아이들이 책가방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 눈길을 끌었다.

이날 전달식에서 아름다운동행 이사장 설정 스님은 "부처님께서는 삼라만상 모든 것이 인드라망으로 연결돼 있다고 하셨다. 결국 나와 무관한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라며 "아이들이 비록 지금은 조금 힘든 환경에 처했더라도 밝게 자라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동량이 되길 바란다. 그리고 이런 아이들을 돕는 이들의 희생 · 봉사정신은 복과 덕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될 것"이라고 행사관계자와 자원봉사자들을 치하했다.



설정 스님이 아이에게 가방을 전달하고 있다.

이동철 KB국민카드 사장은 "아름다운동행과 4년째 책가방 보내기를 함께 하고 있다. 큰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아이들이 좋은 선물로 받아들이고, 건강하게 자라서 국가를 빛내는 동량이 됐으면 한다. 앞으로도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들을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에 배포되는 1619개의 책가방은 소년소녀가장과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등 저소득가정 아이들을 위해 마련됐으며, 각 시군구 드림스타트와 지역아동센터 등을 통해 전달된다.

한편 아름다운동행의 선재의 선물은 저소득가정 아이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돕고자 2009년 시작됐다. 2011년까지 털모자와 장갑, 목도리, 영양제 등 지원하다가 2012년부터 책가방을 선물하기 시작했다. 2014년부터 KB국민카드가 매년 1억 원을 후원하며 책가방은 500개에서 1600개까지 확대됐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온천 힐링사찰 나가노 금강사 참배 안내



꽃피는 계절을 맞이하여 백제성왕이 보내준 아미타삼존불로 인하여 사찰과 도시가 생긴 나가노 유명산 금강사 주지 법현스님 진산식과 부처님오신날 욕불식 그리고 합동천도재에 참석하고 39암자로 이루어진 천년고찰 선광사 참배와 나고야성, 마쯔모토성, 와사비농장을 관람하실 스님, 불자님을 모십니다.

무루 동참하시어
선근공덕을 지으시기 바랍니다.



행사명 : 금강사 주지 법현스님 진산식 / 부처님오신날 봉축욕불법회 / 조상님 합동천도재 / 성지순례와 관광

기간 2018년 4월 7일 ~ 10일 (3박 4일)

장소 나고야성, 나가노 금강사, 선광사, 모토성, 와사비농장

문의 늘 행복한동행 · 대평여행사
02)733-4333 010-6242-0620
열린선원 02)386-4755



웹툰으로 대중 곁에 다가온 백제불교

영광군, 불갑사 등 불교소재 웹툰 선보여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관광 진흥 차원 불교문화 주목
2017년 8월부터 6개월 준비
지역 스님 의견 수렴 거쳐 공개

"템플스테이라니 생각만 해도 두근두근해요!"

"왜 갑자기 불갑사로 템플스테이를 가자고 하는 거야 아들?"

"(스타크래프트) 템플러가 될 수 있잖아요!"

"단어는 그 템플러가 맞기는 한데...템플스테이는 말이야"

백제불교가 최초로 전래된 영광군이 불교문화를 활용한 웹툰 콘텐츠를 제작해 눈길을 끈다. 인도 마라난타 스님이 법성포에 불교를 전래한 내용부터 불갑사를 비롯한 다양한 불교문화 웹툰으로 표현했다.

영광군(군수 김준성)은 2월 18일 "영광의 정신문화를 알리고자 웹툰을 제작해 주요 관광지와 함께 관광 홍보자료로 활용한다"고 밝혔다. 영광군은 2월 13일 제작한 웹툰 시사회를 열기도 했다.

영광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불교를 비롯한 4대 종교의 문화유적지가 있는 곳이다. 이번 웹툰은 불갑사, 백제불교 최초 도래지, 원불교 영산성지, 개신교 순교지, 천주교 순교지 등을 주제로 총 10편이 만들어졌다.

이중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불교 문화 웹툰이다. 불교를 주제로 한 웹툰은 영화에서 '깨달음'을 본 아들이 아버지를 졸라 템플스테이를 가는 것으로 시작한다. 아버지는 귀찮아하면서도 아들에게 템플스테이의 의미를 설명한다. 이어 불갑사에서 아들은 스님을 만나며 한층 더 성장하게 된다.

영광군은 이번 웹툰 제작을 위해 약 6개월간 공을 들였다. 불교 웹툰 제작을 위해서 지난해 8월 컨셉 회의에 이어 답사를 진행했으며, 지난해 11월 불갑사 주지 만당 스님 등 지역 스님들의 의견 수렴을 거쳤다. 올해 1월에 재수정을 통해 중복된 내용과 오류를 바로잡고 공개하게 됐다.

영광군 관광과 최영순 사무관은 "매년 많은 불자들이 백제불교도래지와 불갑사를 성지순례 할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찾고 있다"며 "시민들이 보다 많이 영광을 찾을 수 있도록 영광이 지닌 문화를 활용하고자 이번 웹툰 제작을 진행하게 됐다. 향후 불교문화 등 보다 다양한 영광의 문화를 소개하는 웹툰을 지속 만들어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불갑사 주지 만당 스님은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활용해 불교문화를 알려가는 것이 중요하다. 관광 활성화의 지자체 입장과 불교문화를 알릴려는 사찰의 입장이 맞아떨어졌다"며 "불교계에서 새로운 콘텐츠를 통한 불교 홍보의 장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영광군에 위치한 백제불교 최초 도래지는 백제 침류왕 원년(서기384년) 인도 마라난타 스님이 백제불교를 최초로 전래한 법성포에 있다. 간다라 양식의 유물관이 있으며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4면 불상을 접할 수 있다.

또 불갑사는 마라난타 스님이 최초로 세운 절로 알려져 있으며 보물 제830호 대웅전, 보물 제1377호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 보물 제1470호 불복장전적 등을 비롯하여 팔상전, 칠성각, 만세루, 범종루, 천왕문 등 귀중한 문화재들을 품고 있다.

불자 어르신 요양 불자들이 책임진다

치매와 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불자어르신들을 책임지는 불자 요양보호사 양성이 시작된다. 불교여성개발원(원장 노숙령)은 2월 23일 불교여성개발원 사무실에서 2018정기총회를 열고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설치 운영을 비롯한 신년 사업을 의결했다.

요양보호사는 노인성 질환 어르신들을 위해 재가시설 등에서 가사지원을 하는 이를 칭한다.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 조건은 강의실과 소방시설 등을 갖추고 있으며 교육과정 전용교실과 학습교구 등을 구비하고 있어야 한다.

불교여성개발원은 시청각 학습 기자재 등을 갖추고 30명 규모로 요양보호사를 양성할 계획이다.

불교여성개발원은 이와 함께 3월 10일 불광사 보광당에서 '여성불자의 사회적 역할과 비전'을 주제로 여성불자108인회 워크숍을 연다.

이날 자리에서는 다양한 여성불자의 역할과 요양보호사와 같은 자격과정 신설, 역할부여를 비롯해 회원 교류 방안 등이 논의된다. 노덕현 기자

맑고향기롭게, 길상화 장학생 공모

무소유의 스승 故법정 스님이 이끈 시민모임 '(사)맑고향기롭게'가 오는 3월 16일까지 고교생을 대상으로 '맑고 향기롭게-길상화 장학생'을 공모한다. 장학대상은 일반고·특성화고·과학고 학생이며, 총 50명 내외를 선발한다. 장학기간은 1년으로 수업료와 운영지원비 전액이 지원된다. 추천자는 맑고향기롭게 회원, 지부 사무국, 현직교사, 사회복지사에 한한다.

신청희망자는 추천서와 신청서, 첨부서류(주민등록등본·성적증명서·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를 우편으로 제출해야 한다. 결과는 4월 4일 발표되며 자세한 내용은 맑고향기롭게 홈페이지(www.clean94.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 (02)741-4696

한편 맑고향기롭게는 법정 스님이 수필집 〈무소유〉 인세를 어려운 학생들에게 나눠준 '불일장학금'과 길상사를 무주상보시한 故김영한(길상화 보살) 씨의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1994년 창립 당시부터 '맑고 향기롭게-길상화 장학생'을 선정했다. 이후 현재까지 총 644명의 학생에게 약 9억 50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화쟁의 눈으로 사회 이슈 풀어낸다

화쟁위 집담회… 2월 28일

조계종 화쟁위원회(위원장 도법)가 사회적으로 중점이 되는 한국사회 주요 이슈를 화쟁의 관점서 풀어낸다.

조계종 화쟁위원회는 미래세대위원회·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와 함께 2월 28일부터 4월 18일까지 총 5회에 거쳐 '집담회-화쟁의 눈으로 본 한국사회 주요이슈'를 전법회관 3층에서 개최한다. 낙태, 한반도 정세, 가상화폐, 최저임금, 지리산(문정)댐 문제 등을 다룰 계획이다.

미래세대위원회·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첫 집담회의 주제는 '낙태, 화쟁의 눈으로 이야기하다'이다. 낙태죄 폐지청원이 25만 명을 넘어가는 현 시점에 생명윤리를 불교의 생명관으로 합리적 해결책을 모색하자는 취지다. 첫 집담회는 2월 28일 오후 4시 전법회관 3층 회의실에서 열린다. 박사 북칼럼니스트, 정웅기 생명평화대학 운영위원장과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법우들이 발표에 나선다.

이어 △평창올림픽 이후 남북관계와 한반도 정세(3/7) △가상화폐와 블록체인으로 본 탈중앙화와 공유사회에 대한 논쟁(3/14) 등을 화쟁의 눈으로 이야기 할 예정이다. 박진형 기자

조계종 전법단, '네트워크 활성화' 본격 전개

포교원, 2월 21일 전법단 대표자 회의 개최

조계종이 전법 각분야의 네트워크 조직에 나선다. 조계종 포교원(원장 지홍)은 2월 2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2018 전법단 대표자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11개 전법단 대표 20여 명이 참여했다. 전법단장 가섭 스님(포교부장)의 주관하에 진행된 회의서 전법단은 4월 첫째주 전법단 대중공사를 열고 11개 전법단 활성화 및 네트워크 구축을 논의키로 했다.

체육인전법단(단장 퇴휴)은 올해 개원하는 진천선수촌 법당에서 매주 수요일 법회를 진행하는 한편 올림픽공원 법당에서 3월 화엄경 경전 및 명상강좌를 연다. 10월 전국체육대회선전기원법회도 개최한다.

경찰전법단(단장 지현)은 경찰 네트워크 및 기동단 포교 확대를 목표로 11월 17개 지방청 경승실장 등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개최하고 월례법회를 정례화한다. 또 3월 중 서울청 산하 31개 경찰서 임원진의 템플스테이를 추진한다. 청년포교를 위해 전의경들이 활동하는 기동단에 단주 및 먹거리를 지원하며 정지법회도 열 계획이다.

장애인전법단(단장 도륜)은 지역별 장애인불자회를 구성하며 사업계획서를 받아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우수 장애인불자를 선정해 해외 성지순례 기회를 제공하며 4월에는 장애인의날 기념 법회도 개최한다.

병원전법단(단장 도원)은 임상 및 호스피스 전문가 배출을 위한 교육을 진행한다. 8월 17~19일 2박 3일간 조계종 인증교육연수 과정으로 일산동국대병원에서 교육을 진행, 향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5월 중 조계사에서 불자 환우 돕기를 위한 바자회도 개최된다.

대학생전법단(단장 본공)은 지도법사단을 구성하고 '청년대학생 법요집' 발간 등 청년 포교에 앞장선다. 특히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는 법요집을 7월까지 기획, 11월 경 배포할 예정이다. 6월에는 청년불자와의 만남 자리와 함께, 7월 중에는 청년불자 발굴을 위한 리더 워크숍도 열린다.

국제전법단(단장 계성)도 해외 어린이 불자 양성에 나선다. 7월 중 해외 교포 2,3세 청소년의 모국 방문 템플스테이를 개최하며, 국제포교 스님들을 양성하기 위한 국제학교 연수 및 조직관리도 진행한다. 특히 해외 교포 자녀들과 sns를 통한 네트워크가 추진된다.

교정교화전법단(단장 혜원)은 재소자들의 신행 수기를 공모하여 교정기관 내 신행활동을 배가하는데 나선다. 부처님 오신날을 기점으로 전국교정기관에서 교계 언론과 수기 공모전을 진행한다. 또 교정인 불자 수련회를 6월 중 개최할 예정이며 교정 특별 단주 등을 제작해 보급한다.

조계종 전법단 2018 키워드

- #체육 – 마음치유 강좌
- #경찰 – 불자경찰 조직화
- #장애 – 지역불자회 구성
- #병원 – 호스피스 교육
- #청년 – 눈높이 전법
- #국제 – 교포 자녀 교류
- #교정 – 신행수기 공모
- #신도시 – 지역 연계사업
- #어린이 – 미술교안 마련
- #어르신 – 전법단 연합모임

신도시전법단(단장 도봉)은 지역 불교계 복지관, 사찰과 연계한 문화 포교에 나선다. 먼저 지역사찰 연계 특산물 판매와 음악회 등을 통한 가울문화축제를 10월 경 개최한다. 4월 초 지역 소외계층을 위한 자비나눔 행사와 군법당 및 병원법당 지원, 불교 복지관 후원 행사도 연중 진행될 예정이다.

어린이청소년전법단(단장 성진)은 120다산콜센터를 벤치마킹해 어린이청소년 전문 채널을 개설한다. 온라인 활동지도자 양성하고 체육, 미술 전법 교안도 작성한다.

어르신전법단(단장 정관)은 연합 워크숍을 통한 어리신 포교지원단의 활동에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며 군전법단(단장 덕현) 또한 군법당 법회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에 나선다.

포교원장 지홍 스님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원력을 갖고 각 분야에서 활동하는 분들에게 감사를 표한다. 점점 복잡해지는 사회에서 사명의식과 신심, 원력을 갖고 더욱 정진해 주시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 앞서 포교원장 지홍 스님은 어르신전법단장에 정관 스님을 임명했다.

노덕현 기자

세계에서 침 제일 의과대학, 중국 1위 대학 –

세계 100위 대학 남경대 재경

2018년도 남경 의대(중의학) 학생 모집


혜인스님
한국총장

조기유학생 어학단기반 모 집
● 초 6년 ~ 고3 재학
● 남경사범대학 부속실험학교
www.njsdfc.co.kr

한국 유학생 중국의사 개업 취업
의료행위 할 수 있게 됐다
한국인 중국 의대졸업생 중국정부 중국 의사자격 취득한 외국인 개업 의사활동 허용한다고 중국정부는 발표했다.

❶ 특차모집(남경중의학대학)

학 과	학 제	모집인원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한의학과	5년	100명	• 최종학력증명 1부 • 최종성적증명 1부 • 입학신청서 1부 • 여권용사진 10부
석사과정	3년	50명	
박사과정	3년	10명	
재경대학	4년	80명	• 법학,경제,경영,무역,식품,금융 등

❷ 지원자격
▶ 고등학교 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자
▶ 주지스님 추천자

❸ 학교소개
▶ 세계침구 1위 명문 국립 한의과대학
▶ WTO 국제 전통의학 협력센터
▶ 부속병원3,제약공장,교육병원12,제약연구소 등 완비
▶ 중국어 어학원 및 유학생전용 기숙사
▶ 군입대 연기 가능
▶ 현재 생활관리 담당교사 상주하여 학사 관리
▶ 학자금 대출 가능
▶ 서울시내 대학 편입 가능
▶ 중국내 개업 의사 가능

❹ 전형방법 및 모집기간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모집기간 : 2018년 2월 28일까지 수시전형

❺ 지원서 교부 및 접수
▶ 교부 : 한국 사무처 – 홈페이지에서 다운받거나, 불교조계종 교학과에서 직접 교부 (지방은 우편으로 배부 가능) www.njutcm.co.kr
▶ 접수 : 불교조계종 한국분교(빠른 접수 가능) 서울시 강남구 도산대로 6길 8(논현동 2-13 2층)
▶ 제출서류 특별전형 : 최종학력증명 및 성적증명서 각 1통
▶ 기 타 어학연수 및 조기유학에 관한 문의는 불교조계종 국제교류처(02-511-1080)으로 문의 바람.

❻ 학비 (등록비 및 보험료 포함)
▶ 학사 과정 : 매년 25,800위안
▶ 석사 과정 : 매년 33,800위안
▶ 박사 과정 : 매년 41,800위안

■ 남경중의약대학(南京中醫藥大學)
南京市仙林大道138號 (210023)
138 Xianlin Rd., Nanjing 210023, P.R.China
E-mail : overseas@njucm.edu.cn
Website : www.njucm.edu.cn

■ 한국상담처 : 불교조계종 총무원교육부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6길 8
▶ 교학처 : (02)511-2026, 2027
Fax (02)511-2028
▶ 총장실 : (02)511-1080
http://www.njutcm.co.kr



해군사관학교 호국사가 1년 반에 걸쳐 새 단장을 마쳤다. 낙성식에 참석한 내빈들이 호국사 현판 제막을 하며 축하하는 모습.



현재 사관학교에 재학 중인 생도들이 새롭게 지어진 호국사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고 있다.



임관하는 생도들을 축하하는 법회 현장. 군종교구장 혜자 스님은 개인의 변화와 성장을 당부했다.

해사 생도 요람 호국사, 넉넉한 품 갖추다

신축 낙성… 4대 종교 중 생도 최다 배출 '눈길'

진해=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진해 앞바다를 지키듯 서 있는 해군사관학교 진해 호국사가 새 옷으로 갈아입고 당당한 위용을 뽐냈다. 매년 다수의 불자생도를 배출하는 호국사가 포교에 한층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조계종 군종특별교구(교구장 선묵 혜자)는 2월 21일 '해군사관학교 진해 호국사 낙성식 및 제72기 사관생도 졸업 · 임관 축하법회'를 호국사 법당에서 봉행했다. 이 자리에는 군종교구장 혜자 스님을 비롯해 진해사암연합회장 해초 스님, 부산 관음사 회주 지현 스님, 호국사 초대법사 원명 스님과 안병태 前해군참모총장, 해군 · 해병대 법사 및 군불자, 사관생도 등 4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낙성식은 현판 제막을 시작으로 문을 열었다. 특히 사부대중은 노후화된 건물이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대형 법당으로 재탄생한 데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호국사 초대법사 원명 스님은 "정말 감동적이다. 훌륭한 법당을 보니 불사 전과 후로 나눠 두 생을 사는 것처럼 행복하다"고 소감을 전했다.

호국사는 1971년 개최된 '세계 공승합동 대법회'에서 범어사 주지 능가 스님과 해운사관학교 김규섭 교장 등 여러 관계자가 모여 논의, 1972년 건립됐다. 최근에는 노후화된 시설과 공간 부족으로 신축을 결정, 2016년 6월 10일 공사를 시작했다. 이를 통해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1,046㎡(317평) 규모로 250명을 동시 수용할 수 있는 대형 법당으로 거듭났다. 또한 친교실과 상담실 등의 만남의 공간이 별도로 마련되고, 법당 마루와 입식의자를 함께 설치했다.

법회에서 군종교구장 혜자 스님은 새로 임관하는 불자 장교들을 축하하며 불심(佛心)을 바탕으로 개인의 변화와 성장을 이끌어 군과 불교 발전에 매진해줄 것을 당부했다.

혜자 스님은 "앞으로 여러분은 4년간 몸담았던 둥지를 떠나 새로운 변화를 맞는다. 매일 같이 새로워지는 참회를 하고 자신을 낮춰 화합하는 장교가 되길 바란다"며 "도태하지 않고 부처님 가르침을 항상 되새겨 참된 불자가 돼 달라"고 법문했다.

창원불교연합회장 도홍 스님은 축사를 통해 "호국사가 앞으로도 부처님 근본 도량 역할을 다해 주시길 바란다"며 "생도 여러분도 보살의 이타정신을 실천하고, 군인정신이 투철한 장교로 거듭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졸업생 표창은 총무원장상 차영재, 포교원장상 김정민, 군종교구장상 강승오 · 임익균, 국군불교총신도회장상 박정훈 생도가 수상했다.

대형 법당 거듭난 호국사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
친교실 · 상담실 등 갖추고
250명 동시 수용 가능해져

성장동력은 소통과 배려

관음회 정성담긴 간식 지원
법문 내용 영상 · SNS 활용
생도 의견 받아 반영하기도

해사관학교는 매년 임관법회에서 불자 수가 가장 많은 곳으로 군 포교 성공 사례로도 손꼽힌다. 지난 2013년 67기 생도임관 기념법회에서 졸업생 134명 가운데 불자 생도는 61명, 개신교는 49명, 천주교는 24명으로 거의 절반에 이르는 불자 생도가 졸업했다. 2015년 69기 임관법회 때는 불자가 절반을 넘어섰다. 올해는 원불교 신설로 불자생도가 50명에 그쳤지만 여전히 4대 종교 중 가장 많은 생도를 배출하고 있다.

이 같은 결과는 젊은 생도들의 문화를 이해하고, 시대에 맞춘 호국사의 배려에서 시작됐다. 특히 호국사는 군 가족 신도회인 관음회가 공양과 봉사 후원을 맡아 생도들에게 정성을 다하고 있다.

호국사 법사 혜운 스님은 "간식만 하더라도 인스턴트식품이 아닌 집에서 만든 맛과 영양을 전하고자 직접 조리해 생도들에게 제공하고 있다"며 "어머니 손맛과 함께 전해지는 따뜻함이 가장 큰 원동력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김이선 관음회장은 "생도들을 자식이라 생각하고 대하다보니 자연스레 정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면서 "매년 졸업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흐뭇하다. 이곳에서 얻은 기운으로 군 생활을 잘 해나가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이외에도 호국사는 법회 내용을 쉽게 설명해주는 짧은 분량의 영상물을 활용하고, SNS를 통한 생도들과의 소통으로 그들의 욕구를 반영하는 노력을 더했다. 이번에 법당을 신축하면서 마루와 입식의자를 함께 배치한 것도 단정한 복장을 요구하는 생도들의 불편함을 덜기 위한 배려다. 생도들도 이 같은 호국사의 노력에 감사한 마음을 전했다.

김정민 생도는 "4년 동안 만만치 않은 사관학교 생활이었지만 호국사에서 심리적 안정을 찾을 수 있었다. 힘든 일도 이겨낼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받았다"면서 "보답하는 의미로 좋은 장교가 돼 열심히 군 생활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차영재 생도는 "좋은 도반들과 좋은 도량에서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어 즐거웠다"며 "새 단장을 마친 호국사가 앞으로도 후배들을 위한 안식처와 피난처가 돼주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혜운 스님은 "군 포교는 당장 효과가 드러나지 않는 면이 있다. 하지만 꽃을 피우기 위해선 항상 물과 자양분을 마련해야 하는 것처럼, 씨를 뿌리는 심정으로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야 한다"며 "해군사관학교는 군 리더를 길러내는 곳이다. 임관 후 그 역량이 군 전체에 퍼져 나갈 수 있어 사관학교 종교 활동은 그 만큼 중요하다"고 관심을 당부했다.

각성큰스님 "종경록(宗鏡錄)" 고운사 특강

華嚴의 實敎로써 모든 經을 總攝하며 무궁무진한 圓宗을 모두 표현하여 萬法을 능히 총괄한다.
그는 곧 周遍하고 無礙하며 自存하고 융통하여 비로소 나의 마음을 나타내어 능히 宗鏡을
이루나니 마음으로써 宗을 삼는 것이 禪門의 正脉이니라.



■ 일 시 : 2018년 3월 5일(월) ~ 3월 9일(금) 오후 2시
■ 장 소 : 고운사 화엄문화템플관
■ 특 강 비 : 일십만원정 (₩100,000)
■ 참가대중 : 4부대중 누구나....



■ 저희 고운사에서는 해제 때마다 특강을 해오는 가운데
"승려연수교육에 관한령"에 의거
승려연수교육과정으로 인증을 받아
교육을 수료하시면
30점의 점수가 부여됩니다.

문의처 TEL 054)833-2324(고운사 종무소)
경북 의성군 단촌면 고운사길 415(구계리 116번지)

사찰 연등 및 전선 법당용, 외곽용



통도사 정초 법회

삶은 苦의 연속…"기도로 마음의 힘 기르자"

양력이든 음력이든 새 해가 되면 많은 사람들은 한 해 계획을 수립하고 소원을 빈다. 하지만 계획을 세우고 소원을 비는 것만으로 그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다. 나를 돌아보고 단련할 의지가 필요하다. 통도사 주지 영배 스님은 **2월 18일 통도사 정초 법회**서 '새해 갖춰야 할 마음가짐'을 주제로 법문했다. 영배 스님은 부처님의 말씀과 백장 선사의 일화에 빗대 세상은 본질적으로 무상하니, 넓은 시야와 긴 호흡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설했다. 또한 영배스님은 "기도를 통해 험난한 세상에 대처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리=박진형 기자

주제 : 새해 갖춰야 할 마음가짐

영배 스님 통도사 주지



영배 스님은… 경하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66년 사미계, 1971년 구족계를 수지했다. 제 11~15대 중앙종회의원과 총무원 호법부장, 동국대학교 이사장 불교방송 상무, 동국대 이사장, 불교신문 사장을 역임했다. 현재 통도사 주지소임을 맡고 있다.

설날이 되어 무술년 한해가 새롭게 시작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한 해가 시작되면 여러 계획을 세우고, 새로 하고 싶은 일도 만들고, 소원을 빌기도 합니다. 그러한 소원과 계획,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까 하는 것이 오늘 법문의 요지입니다.

조사어록에 나오는 말씀을 중심으로 법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백장 스님이란 법문에 많이 나오는 선사가 계십니다. 이분에게 어떤 스님이 묻습니다. "어떤 것이 기특한 일(奇特事)입니까?" 그러자 백장 선사가 "대웅봉(大雄峯)에 홀로 앉았느니라"라고 답합니다. 스님이 절을 하니 선사가 주장자로 때렸습니다. 선문염송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어떤 것이 기특한 일일까요?

'기특'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식적이지 아니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기적이라고 합니다. 우리들은 항상 기특한 것, 기적을 꿈꾸는 습성이 있습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로또 한번 당첨되는 기적을 바라죠. 그렇지만 세상에 나와 동떨어진 기적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백장 선사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무상…넓은 시야 가져라

부처님은 이 세상을 본질적으로 무상(無常)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불자들이 무상이라는 말을 잘 못 해석합니다. 무상이 '허무하다'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고 없을 무(無), 항상 상(常)으로 항상 그대로 존재하는 것이 세상에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걸 다른 말로 바꾸면 이 세상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한다, 변하지 않는 것은 세상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생들은 단견(短見), 짧은 견해로 쳐다보며 변한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내가 좋아했던 사람이 영원히 나를 좋아해야 되고, 내가 좋아했던 물건이 영원히 존재해야 한다는 단견에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이 세상이 무상하니까 변하고, 또 변하니까 넓은 시야와 긴 호흡으로 이 세상을 쳐다보라고 하셨습니다.

'일일부작일일불식(一日不作一日不食)'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루 일하지 아니하면 하루 먹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이는 백장 선사가 실제로 실천한 일입니다. 이 노인이 90세가 넘도록 살았는데, 그 나이가 되도록 쉬지 않고 일을 했습니다. 때가 되면 딱 농기구를 가지고 밭과 논을 매는데, 하루는 밑에 있는 젊은 스님들이 노스님 일 그만하시라고 농기구를 싹 없앴습니다. 그랬더니 이 노인이 방에 들어가 문을 잠가 버리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중들이 스님 공양하시라고 하니, "내가 오늘 하루 일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밥을 먹지 않겠노라"고 하셨습니다. 아직도 선방에서 공부하는 많은 스님들이 백장 스님 이야기를 적어놓고 항상 보며 공부를 합니다.

욕망을 억제하라

다섯 명의 비구가 수행을 하다가 하루는 부처님

새해 다짐 · 계획에 몰두 말고
이룰 수 있는 힘을 길러야…
욕망 억제 · 올바른 노력하면
긍정 에너지로 방향성 좋아져

을 뵙고 "감각적 욕망들 중에서 가장 통제하기 어려운 것은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우리 몸은 안(眼)이(耳)비(鼻)설(舌)신(身)의(意) 6근으로 구성됐죠. 이 여섯 가지로 일어나는 욕망을 감각적 욕망이라고 합니다. 비구들의 질문에 부처님께서는 비구들의 지난 업에 대해 설명하시고 자신들의 감정을 통제하지 못함으로 인해 끊임없이 고통 받아왔다고 지적하며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눈을 억제하면 좋은 일이다. 귀를 억제하면 좋은 일이다. 코를 억제하면 좋은 일이다. 혀를 억제하면 좋은 일이다. 몸을 억제하면 좋은 일이다. 말을 억제하면 좋은 일이다. 마음을 억제하면 좋은 일이다. 일체에 있어 억제하면 좋은 일이다. 억제하는 수행자는 일체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난다."

감각적 욕망이 일어날 때 갖고 싶고 · 하고 싶고 · 먹고 싶어 하지 말고 억제하라는 것입니다. 밥을 많이 먹어 소화가 안 된다면 소화제를 먹어야죠. 그런데 억제를 하면 소화제를 안 먹어도 속이 편합니다. 마음과 몸을 다 억제하면 고통으로부터 벗어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특별한 기적은 무의미하다고 했습니다. 기적은 의미가 없다. 그것은 뿌리 없는 나무에 열릴 수 없는 열매와 같다. 뿌리가 없는데 어떻게 열매가 열립니까. 진짜 기적은 우리 일상적 삶 속에서 다 이뤄집니다. 내가 남을 쳐다보는 게 기적이고 내가 남을 사랑하고, 지금 앉아있고, 누워서 잘 수 있는 게 다 기적입니다. 일상적인 삶의 현상에서 기적이 존재 합니다. 그래서 이 기적을 위해서 우리는 게으름으로부터 벗어나고 끊임없이 노력해야 됩니다. 항상 이런 훈련을 하면 몸과 마음에 근육이 생깁니다. 마음의 근육은 마음훈련을 통해 가능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내 욕망의 감각이 일어났을 때 억제하고 모든 느낌을 그대로 놔두면 자연히 소멸한다고 했습니다. 부처님은 올바른 노력에는 4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첫 째는 이미 일어난 악을 물리치는 노력. 악을 물리치는 노력을 첫 번째로 해야 하고, 두 번째는 악이 앞으로 발생하는 것을 막으려는 노력. 우리가 양심적으로 무슨 일을 하다 보면 악을 막으려는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선을 개발하려는 노력입니다. 남을 위해 봉사를 어떻게 해야겠다는 개발노력입니다. 네 번째는 이미 발생된 선을 계속 유지하려는 노력입니다.

일어난 악을 물리치는 노력, 악이 발생하는 것을 막으려는 노력, 아직 일어나지 않은 선을 개발하려는 노력, 이미 발생한 선을 유지하는 노력. 우리 삶에 올바른 노력을 적용하면 건전하지 못한 정신상태의 숫자를 줄여나간다. 건전한 생각들을 늘여서 마음을 평온하게 유지해야 됩니다.

홀로 존재하고 긍정적으로 사유를

불교는 어떤 것에도 기대지 않고 홀로 존재해보라고 합니다. 우리는 원래 혼자입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자살률이 가장 높다고 하죠? 자살하는 사람들 유언에 보면 아버지, 어머니도 있고, 형제도 있고 친구도 있고 다 있습니다. 평소에는 그 사람들과 마음을 열어놓고 자신의 얘기를 다 하고 서로 대화하고 공감하고 사는데, 죽을 땐 그 사람이 아무 필요가 다 없어집니다. 그런걸 보면서 '홀로'라는 말이 참 중요한 단어라고 느낍니다. 우리는 홀로 되는 연습을 하지 못했습니다. 자살한 사람의 홀로는 '나는 이 세상에 아무 필요 없는 존재고, 이 세상으로부터 버려졌다'는 생각의 홀로입니다. 하지만 홀로의 진정한 의미는 내가 이 세상의 누구보다도 가장 존귀한 홀로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니 그 분들이 그런 극단적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을 긍정적으로 살아가려는 마음으로 힘을 길러야 합니다. 부정적 마음은 상대적 비교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긍적적 마음은 이타적인 생각을 더 많이 가지는 데에서 일어난다고 했어요. 그래서 긍정적이고 능동적인 에너지는 우리를 좋은 방향으로 안내하는 좋은 지도자가 된다고 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 예를 들어 얘기를 드렸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하면 내 원도 이뤄지고, 남의 마음도 바꿀 수 있고, 원하는 것도 이뤄집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뭘까요? 기도는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있더라도, 그 상황을 받아낼 수 있는 힘을 기르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좋은 일. 힘든 일 온갖 일들이 펼쳐집니다. 그런데 기도를 해두면 그 힘에 의해 어떤 상황이 내 앞에 나타나더라도 그 상황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렇게 쓰러지거나 무너지지 않습니다. 금년 무술년에는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앞에 어떤 상황이 와도 부처님이 여러분 가슴에 존재하고, 어떤 일도 다 극복해 나갈 수 있다는 생각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혜선스님의 목단화

액운을 없애주고 재운을 부르는 길상화

혜선스님은 출가해서 법화경 사경을 수행하는 중 선몽에 선재동자가 나타나 전해주는 목단꽃을 받고 신비스런 체험을 했습니다. 그 날부터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고 부처님의 가피로 법화경을 후불로 모시고 목단꽃을 그리면서 법화선원을 개원했습니다.

우리 불자님들이 목단꽃을 받고 나서 좋은 일이 많이 생겼답니다.
스님께선 매일 축원을 드리면서 열심히 목단꽃을 신도들을 위해 그려주고 계십니다.



▲ 30호



▲ 20호

주문하신 불자님께 개인 축원을 드리고 맞춤 목단화를 그려 드립니다



요즘은 전국에서 불자님들이 주문하고 계십니다.
* 판매 수익금은 전액 불사에 쓰여집니다.



◀ 40호

■ 구입처 : 법화선원 (대구광역시 남구 봉덕동 547-1, 3층)

010-8923-3385. 053)476-3385

계좌번호 : 대구은행 508-13-000568-4 (예금주 : 법화선원)
http://blog.naver.com/beophwa3385

대흥사 茶風 확인되는 중요 서간문



박동춘의

초의 스님 前 上書

④ 소치 허련의 편지



소치 허련의 1841년 10월에 보낸 초의 스님에게 보낸 장문의 문안 편지. 세로 116.8cm, 가로 24.6cm될 정도로 길다. 안에는 당시 대흥사의 사중 상황을 알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담겨있다.

1841년 10월에 보낸 소치 허련(小癡 許鍊, 1809~1893)의 편지는 세로 116.8cm, 가로 24.6cm 정도나 되는 장문의 문안 편지이다. 이 편지에는 대흥사 사중에서 산소 가에서 자라는 소나무를 잘라 관에 추증이 되는 등,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초의차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보인다.

이뿐 아니라 대흥사 사중에서 만든 차품이 "지난번 연영으로 보낸 차는 비록 스님께서 친히 감사하여 봉한 것은 아니지만 차품이 깨끗하고 맛도 맑습니다. 관찰사(使家)에게 칭찬을 받을 만하고, 드러난 공으로 다른 사람에게 빼앗길 만한 차품"이라고 한 점이다. 당시 대흥사 사중에서 생산되는 차품의 질을 짐작하게 하는 이 편지는 이와 같이 시작된다.

지난 번 연영빈사(蓮營賓舍:진도 우수영)에 있을 적에 문안 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마침 남평 등지로 떠나신다니 편지를 열어 보았지만 만난 것만은 같지 않으니 슬프고 상실된 마음엔 그리움이 같습니다. 삼가 가을인데 묵은 초가집을 살피지 못해 (가을)풍경이 쓸쓸합니다. 이런 때에 스님의 자취는 더욱 청중(淸重)하신지요. 지난 번 남평에 가신 후, 그 사이 과연 평안히 돌아오셨으며, 소망하신 바도 다시 원하시는 것과 같이 되셨는지요. 그립고 간절한 마음을 그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곧 바로 연영의 관청에서 돌아왔으며, 어제 부모님의 제사 날이었습니다. 추모하는 마음이 애통하고 슬프고 망극합니다. 하물며 멀리 한양에서 노닐다가 4년 후에야 비로소 제사에 참여하게 되었으니 더욱 더 애통하여 마음을 다 고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때를 견주어보면 아이의 손을 잡고 산으로 들어가 겨울 내내 결과를 배치하면 헤아림이 있을 듯합니다. 무릇 모든 일은 뜻과 같지 않은 것이 많습니다.

숙부의 병환이 이 즈음에 매우 급박한데 잠자리 문안 인사와 음식 드시는 것을 살피는 일은 원측(遠側)에서는 할 수 없으며, 이 몸도 골골(汨汨)대니 이 복잡다단한 일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또 출입하는 관가는 친하기도 하고 친압 당하기도 하지만 매일 상종하여 서로 떠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희망하는 것이 있으니 단연코 무리해서 어긋나는 곳으로 갈 수는 없습니다.

연성(蓮城)에서 편지를 보내 서로 부르고 매영전역에서 오라고 요구하니 모두 부득이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아마 연말 즈음에 집안 아우가 임지로 가기 때문에 구구한 곳을 털어 내거나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물며 조용한 절을 찾아가거나 유유풍월은 더욱 이런 한가한 일이랴. 제 처지는 혀를 찰 상황이니 더 탄식한들 무슨 이익이 있겠습니까.

암자에 임시로 보관한 행장과 서급(書)은 부득이 다시 맡아 주셔야하는 상황이고, 연아(蓮衙)에서 전담으로 부리는 관노에게 곧 이 물품을 보내주실 수 있을까요. 서급에 '망수친수개무(望須親手開撫)' 열 자는 끝을 봉하여 단단하게 묶고, 또한 도장을 찍어 두어야 반드시 소우(虞)하는 폐단이 없을 듯합니다.

그리고 〈고악부〉 1책, 〈쇄금단벽〉 1소책, 이런 서책 등은 글맛이 풍부하고 아취가 있어서 반드시 책 상자를 가득 채워 보내주시고, 함 속에 당나라 사람이 그린 〈홍, 백매〉 사이에 섞여 있는 〈주련〉 1축과 먹으로 그린 〈송죽 주련〉 1쌍, 〈추사선생왕복서편장첩〉 1책은 귀합니다. 이것은 즉, 비루한 화공이 이 법을 오로지 익혀서 일가를 이루고자하면 법첩을 소지하기를 바랄 것입니다.

모두 단폭(斷幅)에 소지(小紙)의 글자 또한 큰 글자와 작은 글자가 잘 다스려지지 않아 하나로 통일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빠진 어느 간독첩(簡牘帖)은 다만 주의가 고아하여 읽을 만할 뿐 아니라 또한 서행(書行)의 성글고 빽빽함이 마땅함을 얻었으며, 처음과 끝이 차례가 있으니 한번 익혀보고 한번 베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울러 인색하게 하지 마시고 반드시 보내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비록 욕심이 많으나 결단코 그런 중에서 염치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남을 헤아리는 것을 어느 때나 얻을 수 있을까요. 꾸짖어 주십시오.

지난번 연영으로 보낸 차는 비록 스님께서 친히 감사하여 봉한 것은 아니지만 차품이 깨끗하고 맛도 맑습니다. 관찰사(使家)에게 칭찬을 받을 만하고, 드러난 공으로 다른 사람에게 빼앗길 만한 차품인데 가깝게 하기에는 부족하며, 이 한포 차로는 만족스럽지 않아 애석하게 여깁니다. 또한 들으시고 해결하여 주실 런지요.

과연 한 가지 일로 말하고자 한 것인데 몸소 친히 접할 수 없으니 소홀한 듯합니다. 그러므로 집안에 둘째와 막내아우가 내년에 임지를 얻을 상황인데 한번 도서원에 견주어 보고 한번은 균역색을 헤아려보면 목하 납부해야하는 비용은 거의 5백 여 금이니 백지 상태에서 만은 만드는 일을 말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금년에 면포세가 극심하게 부족한대 전정(錢政)이 극히 귀해 입수(入手)할 방법은 거의 거북등을 긁어 털을 얻는 것처럼 널리 찾아도 많이 구할 수가 없습니다. 모두 친하게 아는 것이 아니라면 어떻게 입을 벌리겠습니까. 만약 큰 절에서 여러 곳에 물어 구할 수가 있다면 백량 정도를 빌릴 수 있겠습니까. 십분 상량하신 후 빌려 줄 수 있다고 한다면 아우를 보내 가져오는 것을 주선하겠습니다. 나무 잎에 부는 바람처럼 듣지 마세요. 세세히 헤아려 알려주십시오.

심적암 성묵 스님이 일찍이 차를 보내주기로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이 편지를 급히 아이에게 보냅니다. 답신을 받으신 이래 노전 명적에게도 이 편지로 안부를 전하니 급히 전해주세요. 양호당에게 보낸 편지는 과연 글 중에 소설이 많으니 이는 스님께서 미황사 사중에 계시지 않는다고 들었고 다른 암자에 이리저리 머무신다고 했습니다. 반드시 인편에게 편지를 보내주십시오.

당시 대흥사서 松楸 잘라 물의

"해결위해 초의차 필요" 조언해

대흥사 차 품질 가늠하는 단초

소치 소장 중요자료 초의에 맡겨

둘의 깊은 관계 확인할 수 있어

지난번 우수영에 있으면서 쓴 편지 중에 놀랄만하고 괴이하게 여길 만한 법당이 있다고 했는데 배의(排議)을 짝할 무리는 없습니다. 그런데 소나무를 해친 것은 단지 소란하게 논할 수 없습니다. 비록 영읍의 도움이 약간에 있다할지라도 승가에서 답하고 행하는 것을 보면 공적인 것을 빙자하여 사적으로 행하여 송추(松楸, 산소가에 심은 소나무)를 함부로 잘랐고 해변은 엄하게 금하는 것인데 이처럼 함부로 하였으니 약간의 무리들이 결코 마음먹은 대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바야흐로 결백을 밝혀야할 때입니다. 하루 저녁 서로 마주 보고 대화를 하게 되면 대수롭지 않게 큰 절의 폐막(弊)에 이를 것입니다.

또 모모(某某) 승려가 저지른 폐단을 말하며 대화가 의아해짐을 넘어서게 되면 이 때에 제가 답을 이와 같이 하여 의도대로 화제가 돌아가면 막원 중에 친한 자와 하루 밤을 동침하며 저간의 물음을 세세하게 말하겠습니다. 그러면 처음 알게 될 것이고 알게 된 후에야 제가 주선하는 것이 오히려 어떻겠습니까. 이런 사이에 만약 스님이 법제하신 차를 소개한다면 마침내 전사(專使)가 들어 줄 것입니다. 반드시 자리를 마련하여 조용하고 화기애애하게 얘기해야 합니다. 대개 저런 일은 심려하지 마세요. 맡기시고 한번 웃으시오.

이 사이에 시를 지은 것은 어느 곳에 상증하셨습니까. 이에 보냅니다. 허물을 지적하시어 깎아내고 비평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붉어진 얼굴이 더 붉어질 뿐입니다. 말이 길어져 예를 갖추지 못했습니다.

1841년 10월 13일 창부 허류 배수

제주도 행차는 바람이 또 더욱 높아져 갈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무리 일에 매었더라도 따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운산을 면했지만 또한 세상의 물정이 한탄스럽습니다.

向在蓮營賓舍 探討候書 而適値離錫於南平等地 未得開緘如對 U夫之懷 想一般矣 謹不審秋老 屋 景物蕭索 此時道履 益復淸重 向之南平行 間果穩還 而所望亦復如願耶 溯仰憧憧 不能已也 S直 自蓮衙得還 昨逢親忌之日 追感之慟 慨懱罔極 而 ø遊散遠洛 四載後始參祭班 益復哀痛 情不盡喩 準擬此時携兒入山 三冬結課排布有量矣 凡百事 爲多不如意之計 叔父病患 際此孔劇 問寢視飮 未得遠側 此身汨汨 何若是多端 又是出入官家 見親見狎 不許相離於日日相從 此中則有所希望者 斷不可强違之地 而蓮城之貽書相招 梅營之專驛要來 俱係不得已之勢 然蓋由於歲末 家弟所任事之故 未得擺脫於區區之地矣 ø尋入蕭寺 優遊風月 尤是等閑事乎 身勢_ 益歎何益 庵中任置行裝書 有一事所欲言者 而身未親接 近於 S虞 然家弟仲季 必爲明年得任之勢 而一擬都書員 一擬均役色目下所入之費 幾爲五百餘金 其做事白地萬不成說之中 今年綿 之致 錢政極貴 入手之道 殆若括龜 不可不廣覓多求 皆非親知 何必開口 若於大寺數處問媒 則限百兩 或可貸得耶 十分商量後言及 則當委送家弟 以爲周旋矣 勿以過葉之風聽之 細量示之也 深庵性默堂 曾有茶物所約事 有此書封 必急送兒 受答以來 而爐殿明寂 書皆問訊 必急傳 朗湖堂邊所去書 果有書中多小說 而其師聞不在美寺中 流寓於他庵云 必隨便信傳也 向在水營作書中有可驚可怪之法堂 排議不群 而松木之亂犯 不可但以駭然論 雖有營邑之許助 看作僧家之應行 憑公行私 亂斫松楸 海邊重禁 若此蔑然 若箇輩 決不可尋常處之 方欲發廉之際矣 一夕陪話於對軒之次 尋常語到大寺弊 且說某某僧之作弊 語涉疑訝 伊時鄙答若此 若此歸語 幕員中所親者 同枕一夜 細細諸問 然始爲得知 而得知之後 鄙之周旋 如何 於斯之間 果以法製茶品紹介 竟有專使之擧矣 必待逢席穩討矣 大 如彼 而休勿爲慮 付之一笑也 此間題L 相證何處 玆以奉呈 指摘瑕疵 斤削批評之地 如何如何 醉顔添 而已 語長不審禮 辛丑陽月 十三日 S夫 許 D拜手

瀛上之行 風又値高 想必未能矣 雖係事爲末由焉 得免雲山 亦世情之歎也

소치의 편지에는 대흥사 사중에서 무덤가에 자란 소나무를 벤 일로, 관청의 조사를 받아야하는 처지에 놓여 있었던 것이다. 초의는 아마도 소치에게 이 일을 상의한 듯하다. 그러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초의차가 필요하다는 것을 피력한 소치의 언구가 보인다. 특히 소치가 애지중지하던 소장도서와 회화자료를 초의에게 맡겼다는 점도 이 편지에서 확인된다. 따라서 1841년 2월에 추사의 유배지 제주도로 가기 전에 소치의 소장품이 초의에게 맡겼던 사실이 확인된 셈이다. 이들의 신뢰는 바위처럼 굳건했던 것이다.

당시 대흥사 사중에서 만든 차품의 질을 언급한 자료가 드물다. 이 편지는 이런 정황을 상세히 밝힌 자료인 셈이다. 특히 심적암의 성묵도 차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이 무렵 대흥사의 다풍이 어떠했는지를 짐작케 한다. 거듭 편지의 중요성을 주목하게 하는 대목이라 하겠다.

〈동아시아차문화연구소장〉

2018년
삼선불학승가대학원
제 3 기 신입생 모집

1. 모집요강
① 모집인원 : 개방형(통학) ○○명
② 지원자격 : 구족계를 수지한 대한불교 조계종 비구니 이와 동등한 자격이 인정되는 타 종단 소속 비구니
③ 제출서류 : 입학원서(본원 소정양식), 수행이력서
승려증 사본 및 주민등록증 사본
기본교육기관 졸업증명서, 사진(3×4)2매
④ 모집일정
◎ 접수기간 : 공고일로부터
2018년 3월 10일(토) 오후 5시까지
◎ 전형방법 : 서류심사(조계종 소속) 및
면접(타 종단 소속) 전형
◎ 접수방법 : 방문 및 우편 접수
(주소 :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26마길 40, 삼선포교원)
◎ 합격자발표 : 추후 개별통보
◎ 등록금 : ■1학기당 70만원
■재수강(본원 졸업생에 한함) : 30만원
◎ 예비소집 : 3월 12일(월) 오후 2시
◎ 입학 및 개강일시 : 2018년 3월 14일(수) 오후 1시
◎ 문 의 : 02)923-0582

2. 특 전
① 졸업 후 3급 승가고시 응시에 필요한 교육경력 2년 인정
② 장학 제도 : 전 학인 한 학기 수업료 전액 지급
③ 청강 제도 : 본원 졸업생 중 재수강 희망자에 한함

3. 교육과정 (2년 4학기)
■ 전문과정 1년 : 1학기 아함경(초전법륜경), 법화경, 한문학이해1(치문)
2학기 유마경, 기신론, 불교한문이해
■ 전문과정 2년 : 1학기 원각경, 선문염송, 금강경
2학기 대지도론(육바라밀), 능엄경, 조계종전(서장)
■ 수 업 일 정 : 2018년 1학기(3월 14일 ~ 6월 27일)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 8시

삼선불학승가대학원장 연담 묘순

사단법인 대한불교조계종 승가회 종도모집

귀의 하옵고,
불제자로서 수행과 전법 포교만을 위해 함께 하실 제방의 큰스님들을 모십니다.

입종안내

1 입종 구비 서류 (승가원 비치)
□ 사찰 및 승려등록 신청서 ····· 1부
□ 주민등록증 앞 · 뒤 사진 ····· 1매
□ 주민등록 등본 ····· 1통
□ 반명함판 사진 ····· 3매
□ 사찰 법당 내 · 외부 사진 ····· 각1매
□ 귀 종단 계첩 및 승려증 사본 ····· 1매

2 발급 증명서
□ 승려증
□ 사찰등록증
□ 주지 임명장

■ 문의 : ☎ 053)654-0408. 010-5051-3422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동 현충로 5길 99 원광사
(전화 연락 주시면 자세히 안내하여 드립니다.)

※ 본 종단은 문광부 허가 제2010호-4호
※ 법인등록 274321-0029935로
등록된 사단법인 종단입니다.

남 · 녀 행자 수시 모집 합니다

(사) 대한불교조계종 승가회 승가원 승가원장 고암 정인 합장

사신도와 주악비천, 우주천문의 세계



노재학의
한국 산사의 장엄세계

④ 천축산 불영사



대웅보전 천정에 장엄한 우주천문 문양세계. 꽃과 구름, 별자리를 통해서 법계우주를 표현하고 있다.

고구려 고분벽화의 소재와 사신도

불영사 대웅보전 장엄세계의 두드러진 특색은 내부장엄 곳곳에 고구려 고분벽화의 소재와 모티프를 풍부하게 취하고 있다는 데 있다. 고구려 고분미술의 원형을 1200여년의 시간 간극을 뛰어넘어 유사하게 재현하고 있어 놀랍다. 내부 단청장엄 곳곳에 연화문과 천문 별자리, 사신도(四神圖)를 연상케 하는 신령한 동물들, 주악비천 등 고구려 고분벽화의 소재들이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불영사 대웅보전의 사신도는 창방, 대들보, 천정 등 불전 내부 곳곳에 흔재한다. 용과 백호, 현무, 주작의 사신도는 고구려 고분벽화에서 나타나듯 음양오행에 근거한 네 방위의 수호신 역할을 담당한다. 좌청룡 우백호의 배치는 동쪽 창방에 용, 서쪽에 백호를 둬서 기본 방위개념을 구현하고 있다. 다만 18세기 조선의 시대정신을 반영하여 백호는 다소 해학적인 민화풍의 호작도로 묘사했고, 쌍으로 표현하는 도교적 주작은 유가적 선학의 쌍으로 대체했다. 불영사 대웅전의 사신도 중에서 특별히 눈길을 끄는 것은 현무도이다. 우선 문양의 위치부터 인상적이다. 향좌측의 대들보에 베풀었다. 대들보에 현무 문양을 베푼 사례는 매우 드물다. 이곳 외엔 마곡사 응진전 대량에서 용머리를 지닌 현무 문양을 볼 수 있다. 불영사 대량의 현무도는 어찌 보면 등에 검은 육각형 귀갑문으로 철갑을 두른 공룡 같은 느낌으로 다가올 정도로 육중하다. 수염을 휘날리며 성큼성큼 걷는 모습이 고구려 벽화고분 강서대묘에서 익히 보던 현무도와는 다소 이질적인 모습이다.



사신도 벽화 중 백호와 현무도.

사신도는 네 방위 수호신이자 기(氣)
별, 서수, 천인 공존하는 판타지 세계
사찰천정에 구현한 천상열차분야지도



주악비천 및 공양비천도.

그런데 사신도라는 것은 실존 동물의 구상화인 것이 아니라, 우주, 혹은 천계에 가득한 신령한 기운을 방위에 따라 동물의 형상으로 차용했을 따름이다. 동양미술은 서양과 달리 사실주의적 묘사나 재현보다는 내면을 드러내는 데 보다 신중한 태도를 취했다. 이형사신(以形寫神)의 태도, 곧 형태를 빌려 정신을 드러내는 것이 동양미술의 조형본질이고 조형원리였다. 초현실주의적 사신도는 음양오행에 따른 방위별 수호신 역할을 하는 벽사(辟邪)장치임과 동시에 공간에 흐르는 무형의 신령한 기(氣)를 드러내는 회화적 표현에 가깝다. 법당은 말 그대로 부처님, 곧 법의 집이다. 물리학적 우주는 불교 사유체계에선 법계우주로 현현한다. 법당은 법계우주의 거시체계를 지상에 구현한 상징적 공간이다. 사신도와 넝쿨단청문양 등 초현실주의적 형상은 법계우주에 충만한 무형의 기운을 드러내는 조형언어다.

사방 벽면에 17분의 주악, 공양비천

법계우주에 충만한 기운은 본질적으로 우주만물에 작용하는 생명력이며, 그것은 곧 부처님의 자비력이다. 공포 포벽에 26분의 여래께서 나투시는 것도 자비력의 주체를 염두에 둔 까닭이다. 생명력이 충만하므로, 온갖 이상화 된 관념이 동원될 수밖에 없다. 천계에 온갖 길상의 공덕장엄이 뒤따른다. 부처님 한 분의 불현전으로도 감격스러운데, 시방삼세의 부처님이 한꺼번에 나투시는 희유의 장면에서는 어떠하겠는가? 하늘에서 만다라화, 마하만다라화, 만수사화, 마하만수사화의 꽃비가 쏟아져 내리고, 공양비천과 주악비천의 예경이 울려 퍼진다. 그것은 시방세계에서 출현하신 불보살에 대한 공덕과 위신력을 찬탄하고 헌공 올리는, 환희와 신심의 외적 발현으로 보아야 한다.

대웅전 내부 사방 공포 위에 조성한 회칠 화면의 상벽은 18곳에 이른다. 상벽의 단청장엄에서 두드러지게 눈에 띄는 대목은 다양한 비천의 표현에 있다. 비천도는 상벽의 14곳과 충량의 2곳을 합해 총 16곳에 두루 분포하는데, 등장하는 비천은 총 17분이다. 불영사 대웅전처럼 기악비천과 가무비천, 공양비천을 불전건물 내부 사방벽면에 빙 둘러 벽화로 표현한 사례는 흔치 않다. 범어사 팔상전과 남양주 흥국사 명부전 등 서너 곳뿐이다. 사방 벽면에서 현악기, 관악기, 타악기를 연주하고 있는 주악비천으로 인해 천계에 선율이 가득한 공감각적 효과를 연출한다.

장엄 예술가들은 처음부터 상벽과 천정을 하늘세계로 염두에 두었음이 분명하다. 하늘 꽃비가 쏟아져 내리고, 주악비천과 함께 여러 기이한 서수들과 천인들이 공존한다. 용과 현무, 날개 달린 서수, 선학들이 비상하고, 천도(天桃)나 붉은 여의보주, 혹은 연꽃가지를 든 천인들이 신령한 서수들을 타고 헌공의 신심으로 하강하는 판타지 장면을 구현하고 있다. 익숙한 장면들이다. 조금의 심미안을 발휘한다면 도상학적인 원형질이 고구려 고분벽화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덕흥리 고분이나, 삼실총, 오회분 4호묘, 5호묘 등에서 천계장엄의 모티프를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고구려 고분벽화의 원형질을 예경과 헌공의 장엄세계로 재해석하는 놀라운 예술역량을 발휘하고 있는 것이다.

꽃과 구름, 별자리 문양의 우주천문도

특히 외진주 영역의 빗반자 우물천정 칸칸은 생명력의 에너지로 충만한 태허의 우주 그 자체다. 다양한 꽃과 구름의 형상을 빌려 우주의 조화로운 질서를 표현하고 있기 때문이다. 꽃과 구름은 더 이상 자연의 꽃과 구름이 아니다. 대단히 철학적이며 정신적인 차원으로 재해석하여 생명력으로 충만한 법계우주의 메타포로 활용한 것이다. 칸칸이 붉은 기운 속에, 혹은 현묘한 암흑의 천공 속에서 암흑물질 같은 불가지의 입자와 파동의 선형에너지들이 소용돌이치는 놀라운 장면들이다. 마치 현대물리학의 초끈이론이나 파동이론의 회화적 표현으로 삼아도 좋을 만큼 경이롭다. 반자틀 한 칸마다 에너지 줄기는 나선형으로 회전하며 생명의 꽃을 연속적으로 피우다가, 중앙의 중도자리에 이르러 마침내 화엄의 꽃을 피우는 패턴을 반복하고 있다. 평면의 확장성이 특징적인 천정의 건축개념을 생명력의 기가 충만한 우주적 공간으로 장엄의 혁명을 이뤄 놓은 것이다.

사찰천정 장엄에 벽화형태로 우주천문도가 나타난다는 것은 미술사학적으로나 고고학적으로나 놀랄만한 사례다. 단지 몇 몇의 사찰천정에서 구름 속 둥근 별을 듬성듬성 그려놓은 장면이 포착된다. 구례 화엄사 원통전과 여수 흥국사 응진전, 순천 송광사 영산전 천정 등이 그 같은 유형에 해당한다.

그런데 불영사 대웅전 천정의 우물반자 단청문양은 은하와 별자리를 그려 넣은 대단히 희귀한 천문도여서 감탄을 감출 수 없다. 고인돌의 성혈(星穴:별자리를 나타낸 돌구멍)이나 비석 같은 대형 석판에 새긴 천상열차분야지도(1395년) 등의 별자리 표현과는 전혀 다른 회화적인 도상이다. 빗반자 천정 우물반자 한 칸의 크기는 대략 가로 54cm, 세로 50cm 정도다. 그 작은 크기에 우주천체를 어떻게 담아낼 수 있을까? 밤하늘에 가뭇가뭇한 성단이나 은하는 한 송이 꽃으로 표현하고, 은하수나 성운은 봉긋봉긋한 구름 형상으로 대범하게 차용했다. 그 사이사이에 오행에 따른 3원 28수의 상징적인 별자리를 그려 넣은 파격적인 구도를 취했다. 3원 28수는 천구의 중심부에 자미원 등 3원을 배치하고, 달이 움직이는 길 따라 동서남북 네 방위에 각각 일곱 별자리씩 구역으로 나눈 동양의 전통 천문세계관이다. 그 어마어마한 세계를 천정반자 한 칸에 담아냈다. 온 우주의 영상과 지식이 손바닥만 한 스마트폰에 들어 있는 것과 같은 이치다.

천상의 나무에 화사하게 핀 꽃

자연에서 빌린 꽃의 생김은 연꽃, 국화, 난초, 매화 등인데, 대여섯 송이 꽃떨기 가지로 우주를 표현한 발상이 대범하다. 고사리 새순 줄기처럼 나선형으로 돌돌 말려 연속적으로 만개한 꽃송이 은하들은 금빛으로 찬란히 빛난다. 한 가지에서 다섯 송이, 혹은 여섯 송이씩 꽃다지를 이룬 형상이 심오한 철학적 깊이와 심미적 아름다움을 안겨준다. 꽃가지가 분화하는 변곡점마다 새싹이 촉을 뾰족이 내밀어 생명의 영원성을 암시하고, 꽃차례와 잎차례 곳곳에 스멀스멀하게 꿈틀대는 미묘한 기운을 묘사하고 있어 단청문양의 심오함을 극대화 한다. 그런 회화적 장면들은 고구려 벽화고분 덕화리 1호분, 오회분 4호묘 등의 별자리 표현에서나 살필 수 있던 고도의 정신적인 문양이 아닐 수 없다. 한국의 천문역사 측면에서도 유의미한 실증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는 귀중한 천문 문양세계라 할 것이다.

그런데 여전히 간과해서는 안 될 본질적인 관점이 남아 있다. 우물천정에 장엄한 천문도 단청문양은 28수 성수도 자체를 표현하는 데 있지 않다는 사실이다. 별자리는 성스러운 하늘세계에 실현한 이상향의 상징적 소재로 활용한 부차적인 개념이다. 보다 본질적인 문양은 만개한 꽃봉오리다. 그 꽃은 지고지순의 선과 미로 정화한 귀의적인 불국토이다. 빗반자 별자리 단청문양의 꽃은 바로 영산회에서 미륵보살께서 '천상의 나무에 화사하게 핀 꽃' 으로 비유한 불국토를 상징하는 회화적 표현인 것이다. 꽃의 묘사에 초현실적 관념의 추상성을 극대화하고, 불변의 물질성을 가진 금니 안료로 채색한 뜻도 거기에 있다. 자연의 꽃이 아니라, 불교 교의체계로 재해석한 불국화엄의 꽃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이다.

〈사진작가〉



(사)대한불교한마음조계종은 불조의 혜명에 굳건히 의지하고 현재 봉착한 한국불교의 위기를 진단하여 종파의 분열과 무너진 법계질서를 바로잡아 새로운 승풍을 진작하여 일불제자의 승가정신을 구현하고 이를 통한 한국불교의 중흥을 목표로 하는 창종의 변을 제방에 고합니다. 한 마음 한 뜻으로 정진의 길에 함께 할 제방의 큰스님들과 법사님을 모십니다.

종단사업
- 사회복지 및 장애인 복지사업
- 장례문화연구 및 납골당 운영사업
- 승려등 수행자의 복지사업

승 정 원 장 월해 총 무 원 장 법천당 청운
감 찰 원 장 성호 종 회 의 장 법륜 호 법 원 장 해월
포 교 원 장 덕해 교 육 원 장 영호 규 정 원 장 혜성
감 찰 부 장 경오 호 법 부 장 문경 포 교 부 장 장문
규 정 부 장 성철
서울교구원장 법혜 대전교구원장 수진 충남교구원장 혜성
울산교구원장 정오 부산교구원장 법진 경남교구원장 불해
경북교구원장 천호

한마음 108종도 일동

본 종은 종도화합의 종풍을 확립하고자 상생을 위한 상호협의를 종무행정의 기본으로 삼고자 합니다.

본 종단은 문화관광부 허가 제 2017-7호. 법인등록 194621-0000530으로 등록된 사단법인 종단입니다.

종도모집

입종서류
- 사찰 및 승려 등록 신청서 1통
- 주민등록증 사본
- 반명함판 사진 3매
- 법당사진 내 외 (사찰등록 하실분에 한함)
- 타종단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 입종 종도에게는 승려증 (법사증 · 포교사), 사찰 등록증, 주지 임명장과 간부스님에 한하여 추대장 및 위촉장 수여합니다.
※ 본 종단은 개인 사암의 재산권에 대해서는 일체 관여하지 않습니다.

(사) 대한불교한마음조계종
총무원장 법천당 청운

■ 총본산 : 경남 남해군 삼동면 동부대로 1122번길 74-35
전화 055)867-0024.0025 / 팩스 055)867-8009

‘연기법’ 알면 세상·돈 모두 보인다



윤성식의
불교 속 부자되는 법

④ 인생의 재태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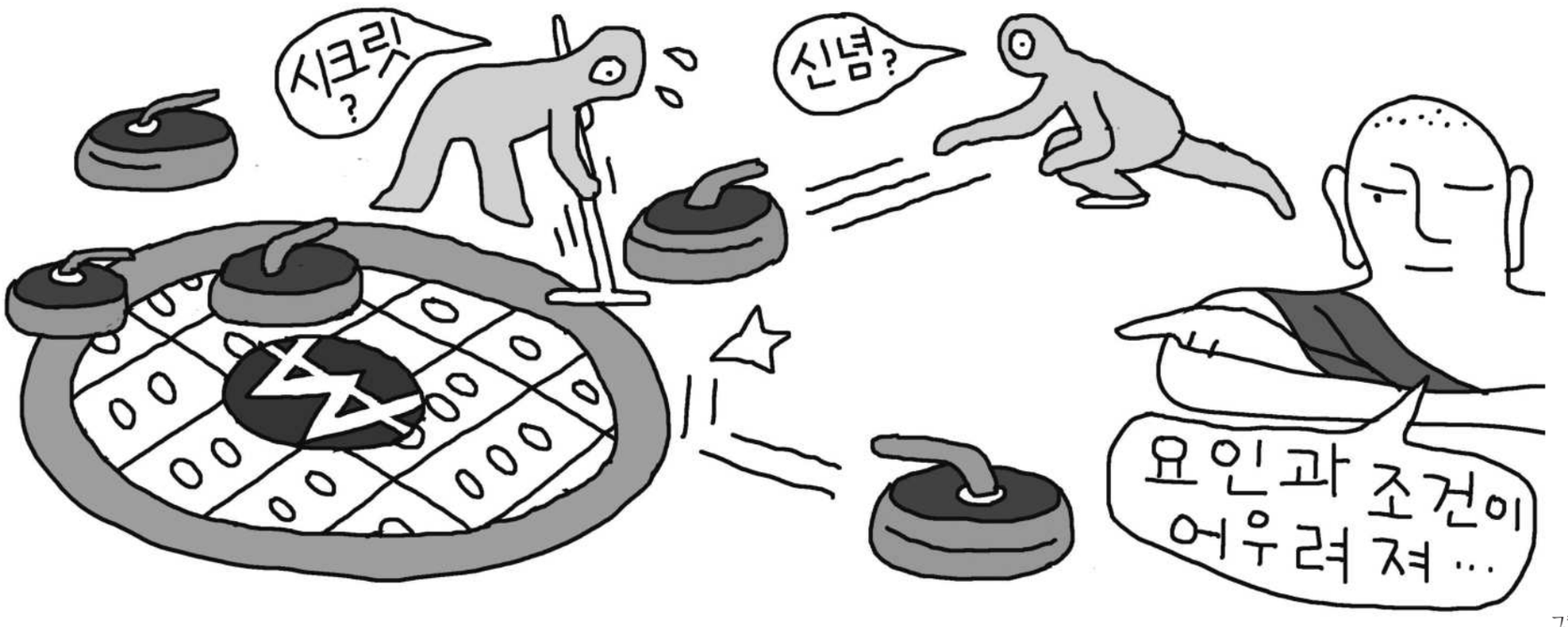


그림 · 박구원

부자, 신념만 가지고 안되
세상의 법칙 살펴보아야
미래 예측 위한 식견 필요
불교 연기 살펴 키워가자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 누군가가 이에 대해서 강의를 한다면 참으로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가질거다. 대한민국 남녀노소가 가장 좋아하는 대화 주제는 돈 이야기다. 요즘은 가지고 싶은 물건을 사지 못해서 알바를 하기도 하고 부모로부터 돈을 타내기 위해 여러 가지 수단을 동원하는 청소년도 많다. 중국에서는 아이폰을 사기 위해 장기를 팔았다는 어떤 소년 이야기가 기사화되기도 했다. 재테크 이야기는 누구나 솔깃해 한다. 대화 중 좋은 정보가 있으면 메모하는 사람도 있다. 그 어떤 대화보다도 공통점을 찾기 쉬운 대화가 바로 ‘재테크 이야기’ ‘재산 불리기’에 대한 대화다.

한국에서는 유명한 운동 선수가 코치가 된다. 미국에서는 유명 코치는 선수 시절 유명한 운동선수가 아닌 경우가 많다. 한국에서는 운동을 잘하는 선수가 좋은 코치가 된다고 생각한다. 미국은 운동을 잘 한다고 좋은 코치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즉 잘 가르치는 것과 잘 하는 것은 다르다고 생각한다. 버나드 쇼는 ‘할 수 있는 사람은 하고 할 수 없는 사람이 가르친다’라는 유명한 말을 했다. 운동 잘하는 사람은 운동하고 잘 하지 못하는 사람이 가르치는지 모른다.

유명 정치가가 꼭 정치에 대해 잘 가르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반대로 잘 가르치는 정치학 교수가 정치를 잘하는 것은 아니다. 마찬가지로 경영학과 경제학 교수가 돈을 잘 버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돈을 잘 버는 사람이 돈 버는 방법을 잘 가르칠 수 있을까? 돈 잘 버는 사람에게 돈 버는 방법에 대해 알려달라고 하면 얼마나 양심적으로 객관적으로 알려줄까? 못된 방법으로 돈을 벌었음에도 그러한 사실은 감쪽 같이 감추고 얼마나 자기가 능력이 있고 노력했는가에만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있다. 설사 올바른 방법으로 돈을 벌었다고 하더라도 자기가 성공한 요인을 자기가 가장 잘 알 수 있을까?

몇 년 전부터 멘토로 불리우는 유명 인사의 성공담이 강연의 형태로 인기를 끌었다. 유명 인사의 성공담이 분명 우리에게 유익한 삶의 힌트를 주기는 하지만 사후에 만들어진 인위적 요소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삶은 회고적으로 보면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할 우려가 있다. 뼈아픈 실수 때문에 특정 요인이 강조되기도 하고 자신의 성격 탓에 중요한 요인을 생략하기도 한다.

나폴레온 힐의 ‘신념의 마력’이라는 책은 수많은 부자의 성공요인을 찾아다닌 결과이다. 그는 이 책을 쓰기 위해 부자를 찾아다니며 인터뷰를 했다. 그가 부자의 성공요인을 찾아보니 신념이 가장 중요했다는거다. 신념을 가져야 부자가 된다는 말은 참으로 편리한 말이기도 하다. 게으른 사람에겐 구미에 딱 맞는 이야기다. 손 발 하나 까딱하기 싫고 가지고 싶은 것은 하늘을 찌르는 현대인의 욕심에 잘 어울리는 말이다. 그저 신념만 가지면 되니 얼마나 편한가?

나는 신념을 가졌지만 부자가 되지 못한 사람을 많이 봤다. 사업을 할 때 신념이 없이 사업하는 사람이 있을까? 성공할 것 같으니 사업을 한다. 다만 대부분 실패하지만 소수만 성공한다. 성공한 소수만 찾아다니며 신념이 있었는가를 물은다면 당연히 그들은 신념이 있었다고 답한다. 실패한 사람을 찾아다녔으면 ‘신념이 있어서 시작했지만… 이런 저런 이유로 실패했다’는 답을 들었으리라.

부자가 되기 위해 필요한 요인과 조건은 많지만 여러 가지가 필요하다고 말하면 그런 책은 팔리지 않는다. 그저 한 가지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것만 하면 부자가 된다’라는 식의 메시지가 사람에게 호소력이 있다. 이런 종류의 책은 주기적으로 나와서 사람을 들뜨게 한다. 몇 년전에 ‘시크릿’이라는 책이 한국을 휩쓸었다. ‘신념의 마력’이 전 세계 베스트셀러였던 것처럼 ‘시크릿’도 세계적 베스트셀러였다.

‘시크릿’의 메시지는 ‘신념의 마력’의 아류에 불과하다. 간절히 소망하면 우주가 화답한다는 점술 같은 이야기에 전 세계인이 열광하다니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 ‘시크릿’에는 거래가 성사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어떤 사업가가 드디어 며칠 뒤에 연락을 받았다는 성공담이 소개되어 있다. 참으로 편리한 돈 벌이 방법이 아닌가? 그저 간절히 소망하기만 하면 된다. 그럼 성사가 된다. 사업하는 사람 중에 계약을 할 때 계약이 성사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까? 물건을 팔고 싶은 사람이 간절히 물건을 팔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을까? 그중 일부만 성공한다. 성공한 사람에게 간절히 소망했느냐고 물으면 당연히 그렇다고 대답할 것이다. 세상에 이런 책으로 베스트셀러가 되다니 어처구니가 없다.

물론 ‘신념의 마력’이나 ‘시크릿’ 같은 책은 여전히 효용가치가 있음을 나도 부인하기는 어렵다. 힘든 사업의 와중에서 기가 꺾이거나 포기하려고 할 때 이런 책이 도움이 된다. 그러나 돈 버는 방법으로 참고하기엔 지나치게 단순하고 비과학적이다. 부처님은 제자에게 당신의 말이라고 무조건 믿지 말고 생각해봐서 타당하면 믿으라고 하셨다. 부처님을 논리의 화신이라고 하는 학자도 있다. 만약 비논리적이고 비합리적이면 불교적이 아니라고 생각해도 무방하다.

불교의 세계는 연기의 세계다. 중아함경에는 ‘연기를 보면 법(진리)을 본 것이요 법을 보면 연기를 본 것이다’라는 부처님 말씀이 설해져 있다. 연기론은 불교교리의 핵심이다. 연기론에 공, 무아, 중도의 불교 핵심교리가 모두 담겨 있다. 잡아함경은 ‘연기는 내가 만든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만든 것도 아니다. 연기법은 여래가 세상에 출현하든지 안하든지 항상 존재한다. 여래는 이 법을 깨달아 해탈을 성취해서 중생을 위해 분별하여 설하며 깨우칠 뿐이다’라고 설한다. 즉 연기법은 원래부터 세상의 법칙으로 존재하였으나 다른 사람은 깨닫지 못하였고 부처님이 처음으로 깨달으셨다는 말이다. 부처님이 발명하신 교리가 아니니 불교교리이지만 세상의 이치이고 세상의 법칙이라는 말이다.

불자라면 누구나 연기론, 연기법을 알아야 한다. 불교경제관을 올바로 갖기 위해서도 연기론, 연기법을 알아야 한다. 왜냐하면 불교경제관도 연기론, 연기법에 근거하기 때문이다. 연기란 ‘연하여 일어난다’이며 ‘…로 인하여 일어난다 즉 생긴다’라는 의미이다. 가장 쉽게 연기법을 이해하는 방법은 잡아함경에 쓰여진 연기법에 대한 설명이다. 잡아함경에는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기므로 저것이 생긴다. 이것이 없으면 저것도 없고, 이것이 사라지면 저것도 사라진다’라는 부처님 말씀이 설해져 있다.

연기법에 의하면 이 세상의 모든 사물과 현상은 연기적인 존재이다. 수많은 요인과 조건에 의해 임시적으로 성립할 뿐 고정된 실체, 독자적 실체가 없다. 수많은 요인과 조건 중 하나만 변해도 임시적 결과는 또 다시 바뀐다. 부자가 되기 위해 뭐가 필요한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도 마찬가지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수많은 요인과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불교는 돈을 벌기 위해 필요한 요인과 조건을 이야기한다. ‘신념의 마력’이나 ‘시크릿’ 같은 책과는 달리 불교는 어떤 특정 요인 하나 만을 부각하지 않는다. 물론 돈을 벌기 위해 필요한 모든 요인과 조건을 나열하지도 않지만 한 두 가지 요인을 강조함으로써 사람을 현혹하지도 않는다. 연기법이 무엇인지 경전은 수레의 비유를 들어 설명한다. 수레는 자체가 독자적인 실체가 없다. 수레라는 별개의 물체가 있다고 생각하면 연기법을 이해하지 못한다. 수레는 나무, 가죽, 끈, 못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나무, 가죽, 끈, 못을 우리는 수레라고 부르지 않는다. 이처럼 수레는 수레 아닌 것으로 이루어져 있다. 나무, 가죽, 끈, 못 등은 일정한 조건 하에 결합하여 임시적으로 수레를 구성한다. 만약 수레가 부서지거나 수레가 불필요하여 해체하면 더 이상 수레는 없고 나무, 가죽, 끈, 못 등이 남는다. 나무, 가죽, 끈, 못 등은 다시 수레가 될 수도 있고 가구가 될 수도 있으며 집을 짓는데 사용될 수도 있다. 이 또한 임시적인 존재에 불과하다.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 필요한 요인과 조건도 마치 나무, 가죽, 끈, 못이 모여 수레를 이루듯이 돈을 버는데 기여한다. 부처님이 열거한 돈을 벌기 위한 요인과 조건은 불변의 진리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 시대가 바뀌면 추가될 수도 있고 특정 요인이나 조건이 강조될 수도 있다. 불교의 세계에는 절대 진리는 없다. 부처님 당시인 2,600년 전에 돈을 벌기 위해 필요한 요인과 조건이 지금도 그대로 통용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불교교리의 현대화가 필요한 이유는 당시에 부처님이 말씀하셨던 요인과 조건을 다시 현대적 맥락에서 재구성, 재해석해야 하기 때문이다.

연기법에 의하면 미래는 수많은 요인과 조건이 어우려져 임시적으로 발생하고 임시적으로 발생한 결과는 곧 변화한다. 오늘날 미래는 한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시대이다. 불교를 한마디로 요약해 달라는 요청에 어떤 미국 학자는 ‘모든 것은 변한다’라는 제행무상을 이야기했다. 모든 것이 변하므로 삶은 허무하다고 말하지만 제행무상을 그렇게 이해하면 지나치게 좁게 해석하는거다. 모든 것이 변하기에 수많은 요인과 조건 중 어느 하나만 변해도 결과는 달라진다. 돈을 버는 일도 미래에 발생하는 결과 중 하나이다.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는 수많은 요인과 조건이 연기화합해야 한다. 따라서 돈을 버는 일은 결국 미래에 일어나는 일로서 미래 예측에 관한 일이다.

사업가는 끊임없이 예측해야 한다. 사업가는 ‘내가 이렇게 계약을 하면 경쟁자는 다르게 대응할 것인데 그러면 나는 또 어떻게 대응해야 하지?’라는 식의 생각을 끊임없이 한다. 돈을 벌기 위해 필요한 수많은 요인과 조건은 항상 변하기 때문에 미래를 예측하기 어렵고 돈을 벌기도 어렵다. 돈 버는 일은 철저하게 수많은 요인과 조건에 대한 과학적 분석이 필요한 일이다. 그게 불교다.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

2018학년도 안정불교대학 신 · 편입생 모집 안내

(불교학과 / 범패학과 / 호적 · 피리반)

본 대학은 천년고찰 청련사의 교육불사 원력으로 설립되어 청련사의 적극적인 후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본 대학의 강사진은 교계의 수준 높은 교수 및 어장스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불교사상과 여법한 불공의식 및 재의식을 동시에 배울 수 있는 교육도량입니다.

※ 재학생 및 졸업생 특전

1. 태고종도는 2년간 등록금 면제(전법사 포함).
2. 본교 졸업생은 종단의 법계 및 승려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짐.
3. 출석 및 성적 우수자에게는 종단과 승 · 속을 불문하고 장학금 수여.
4. 본교를 졸업하면 청련사 범음범패보존회 준회원으로 자동 등록되며 1년 후 정회원이 될 수 있음.
5. 청련사 범음범패보존회가 주최 · 주관 혹은 후원하는 국 · 내외 행사에 함께 할 수 있음.

1. 모집과정 및 원서교부 · 접수 안내

모집학과	1.불교학과	경전(내전 · 외전)	공통
	2.범패학과	기초불공 및 상주권공, 작법과정	
		호적(태평소) 및 피리 과정	전공
원서교부 및 접 수	2018. 02.01.(목) ~ 2018. 03.09.(금)	본교 교학처 : 031)829-3220 교무담당 : 010-3560-0090 인터넷 교부접수 : 홈페이지 http://www.bluelotus.co.kr	
	※ 원서접수 마감 후에도 수시 입학 가능함.		

2. 강의 시간표

1) 불교학과 · 범패학과 (공통필수과목)

교시 / 요일	1교시	2교시	3교시
	14:00 ~ 15:30	15:30 ~ 17:00	17:00 ~ 18:30
매 주 월요일	기초불교의식 (담당교수 : 상진스님)	초기불교의 이해 (담당교수 : 최종남 교수)	율장개설 (담당교수 : 효능스님)
매 주 화요일	상주권공 (담당교수 : 거진스님)	초발심자경문 (담당교수 : 법담스님)	대승불교사상 (증관, 유식, 여래장) (담당교수 : 남수영 교수)

2) 범패학과 호적 · 피리반 (2년 과정)

학년 / 학기	수업요일	1학기	2학기	강의시간
1학년	매 주 화요일 (오후수업)	피 리 반 (초급, 중급)		18:30 ~ 19:10
		호 적 반 (초급)		19:10 ~ 19:50
2학년		호 적 반 (초급)		19:50 ~ 20:30

입학문의
안정불교대학 교학처 http://www.bluelotus.co.kr
11519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권율로 169
TEL : (031)829-3220 FAX : (031)836-1081
교무담당 : 010-3560-0090

※ 통학버스운행 : 1) 매일 각과 수업시간에 맞춰서 운행함.(단, 호적 및 피리반 제외)
2) 구파발 전철역 2번출구 우체국 앞 승차 가능
※ 통학버스를 이용하실 분들께서는 입학 시 통학버스 이용 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입학안내

입학자격	종단과 학력, 승 · 속에 관계없이 입학 가능 함 (단, 편입생은 타학교 재학증명서, 졸업장 제출 할 것)	
입 학 식	일 시 : 2018년 3월 12일(월요일) 11시	
	장 소 : 청련사 대적광전	
개강일시	2018년 3월 12일	
학 과 별 교 수	불 교 학 과	상진스님, 법담스님, 거진스님, 효능스님, 최종남 교수, 남수영 교수
	범 패 학 과	
	호적 · 피리반	위재영 교수
수업시간	불 교 학 과	14:00 ~ 18:30
	범 패 학 과	
	호적 · 피리반	18:30 ~ 20:30
입학금 및 등록금	입 학 금	300,000원 (2년)
	등 록 금	매 학기당 600,000원

※ 본교의 사정에 따라 상기의 내용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참고 : (1) 불교학과나 범패학과는 각 학년 공통과목이나 별도(단독) 수강도 가능함.
(2) 호적 · 피리반은 특강과목이므로 수강신청을 별도로 하여야 함. (청강 불가)

4. 입학서류 및 접수방법

학 과	제 출 서 류	제 출 방 법
공 통	1. 입학원서(소정서식) 1부 2. 최종학교 졸업(예정) 증명서 1부 3. 주민등록등본 1부 4. 수계증 사본 1부(해당자) 5. 반명함판 사진 5매 (득도수계자는 가사 장삼 수한 모습)	1. 본교 교학처 직접 방문 및 우편발송 또는 인터넷 접수 가능 2. 인터넷 원서교부 및 접수한 경우 원서를 출력해 사진부착 후 여타 제출서류와 함께 본교 교학처로 등기 발송 3. 접수처 : 우)11519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권율로 169 청련사내 안정불교대학 교학처

길 잃은 그대 위한 한 줄기 광명



원욱 스님의 경전산책

⑦ 〈숫타니파타〉

〈소부(小部)〉는 〈쿳다까니까야〉로 모두 15경으로 이루어 졌다. 보통 한역대장경으로 번역되지 않았다고 하지만 〈담마빠다〉는 〈법구경〉, 〈자따까〉는 〈생경〉, 〈이티붓타카〉은 〈본사경〉으로 〈숫타니파타〉는 〈의족경〉으로 이미 번역되어 있다. 그 중 부처님의 설법 중에서 가장 오래된 가르침이며 5장 70경. 1,149의 시(詩)로 이루어진 〈숫타니파타〉는 그 중 최고의 경전이다. 중생의 아픔을 꼭 집어 맺혀있던 번뇌의 마음을 시원하게 풀어주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종교를 초월해 가장 많이 읽히는 〈숫타니파타〉는 부처님이 깨달음을 이루기까지 겪은 구도자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제자에겐 어두운 밤길에 함께하는 등불과 같은 지혜의 경전이다.

큰 소리에도 놀라지 않는 사자와 같이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과 같이, 물에 젖지 않는 연꽃과 같이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친구나 주위사람들을 너무 좋아하여 마음이 얽히게 되면 자신이 목적한 바를 이룰 수 없다. 친함에는 이런 부작용이 있다는 것을 관찰하고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우리는 〈숫타니파타〉는 몰라도 '무소의 뿔처럼 혼자 가라' 는 말은 기억한다. 불필요한 인간관계는 오히려 관계를 악화시킨다는 것처럼 들리지만 수행자들에겐 출가목적을 항상 생각하고, 집착하는 삶과의 이별을 고하는 가르침이다.

그 중에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경은 〈나룻배〉다. 사리불과 목건련은 당대 최고의 젊은 바라문들이었다. 둘은 어려서부터 친했고 앞으로 언제까지나 함께 수행하며 좋은 스승을 만나게 되면 서로에게 연락해서 함께 공부하기로 약속했다. 어느 날, 탁발나간 거리에서 우연히 부처님의 제자 앗싸지(Assaji)를 만났는데 그 모습에서 청정한 기운이 감도는 것을 보고 당신 스승의 가르침은 무엇이냐고 묻는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일어나고 인연따라 사라진다. 이것이 위대한 사문의 가르침이다."

그 순간 사리불은 앗싸지의 법을 듣고 청정한 눈을 얻었다. 드디어 사리불은 목건련과 함께 부처님의 제자가 된다. 사리불이 앗싸지가 곁에 없던 어느 날 문득 좌선하다 전생에 두 사람의 스승과 제자였음을 알아 차렸다.

너무도 감동하여 벌떡 일어나 사방에 절을 하였다. 이 모습을 본 수행자들은 사리불이 예전에 바라문이었으니 여기 저기 절하는 버릇을 놓지 못했다고 수근거렸다. 때마침 부처님이 그 곁을 지나가다 보시고는 사리불은 방위를 숭배해서 절을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승에 대한 예경으로 하는 것이라며 이 가르침을 설했다.

진리를 알고 있는 사람은 당연히 존경받아야 한다. 배움이 깊은 그런 사람을 진심으로 존경하라. 그러면 그는 너에게 마음을 다하여 길을 가르쳐 보여 줄 것이다. 생각이 깊은 사람은 그 가르침을 열심히 들어서 그것을 하나하나 실천에 옮긴다.

이런 사람은 가까이 하게 되면 너 역시 그 사람과 같은 경지에 이를 것이다. 진리를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 선지식의 말조차 듣지 않는다면 스스로도 모르고 의심의 장벽을 넘어가지도 못한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남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까.

저 일등 항해사가 아주 튼튼한 배를 타고 많은 사람을 강 건너 저 언덕으로 건네주듯이 진리를 통달한 사람은 진리의 길을 가고자 하는 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다.

제자들아. 지혜롭고 배움이 깊은 선지식을 가까이 하라. 사리를 잘 판단하고 착실히 살아가는 사람은 진리를 깊이 통찰하여 마침내 저 행복의 문에 이르게 되리라.

〈서울 반야사 주지〉

자신을 낮추면 항상 발전한다



김원수의 〈금강경〉 강의

⑥ 혼자 공부의 위험성

언제인가 배웠던 주역(周易)의 한 구절, '정기위물(精氣爲物) 유혼위변(遊魂爲變)'. 즉, '에너지(精氣)는 물질이 되고, 떠돌아다니는 혼의 변화의 근본이 된다' 라는 구절이 떠올랐다.

주역의 계사(설명문)는 공자님의 말씀이라는데 '정기위물(精氣爲物)'. 에너지가 물질이 된다는 말씀을 2500여 년 전 공자님께서 예측하셨다는 것이 아닌가?

선지식에게 물었다. "그런데 어찌하여 밝은 학문을 한 동양사람들은 못 살고 어두운 학문을 하는 서양사람들은 더욱 잘 삽니까?" "오만하면 어두워져 내리막길을 가며, 자신을 낮추고 부지런히 배우는 마음이면 향상 발전하여 오르막 길을 가게 된다. 한국이 지금은 매우 가난하나 장래는 매우 밝다. 지금 우리나라는 자동차 한 대도 만들지 못하지만 머지 않아 한국은 공업 대국이 되어 자동차가 중국으로 쏟아져 들어갈 것이고, 언제인가 우리나라는 세계중심 국가가 되고 말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할 당시인 1967년, 우리나라는 자동차 한 대도 생산하지 못하는 세계에서 가장 빈한한 나라였다. 질문에 대한 선지식의 대답을 통해 우주의 비밀이 하나하나 벗겨지며 신기한 생각이 들기에 언제인가 읽었던 〈육조단경〉의 구절중 궁금한 것을 질문해 보았다.

"〈육조단경〉에 혜능 대사께서는 수도하는 사람에게 선지식이 꼭 필요하기도 하지만 반드시 선지식이 필요한 것만도 아니다"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마음을 잘 살펴본다면 자신의 마음속에 선지식이 있어서 저절로 깨우쳐지기 때문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과연 선지식이 없이 혼자 하는 공부도 가능합니까?"

이런 질문을 드린 것은 아마도 가까운 장래에 수도장을 떠나 독립된 생활을 하고 싶은 마음 때문이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여기서 선지식을 모시고 하는 수도란 것도 용이한 일이 아님은 물론 집에 계신 가족들을 조금만 생각해도 불안하였기 때문이었다.

선지식은 정색을 하시며 "혜능 대사는 이미 전생에 큰 깨달음을 얻고 밝아서 온 사람이었다. 전생에 이미 밝음을 체험한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다 알게 된다. 사람들을 태어날 때부터 혜능 대사 같은 사람을 생이지지(生而知之)한 사람이라 한다. 공자님이 생이 지지요 혜능 대사가 생이지지인 것이다. 생이지지한 사람은 태어날때부터 마음 속에 선지식이 있어 저절로 세상의 이치를 터득하는 능력이 있기에 반드시 선지식을 만나지 않는다 하여도 깨칠 수 있느니라. 그런데 네 마음에 과연 선지식이 있느냐?"

여기 까지 말씀을 들으니 얼굴이 붉어져 고개를 들 수 없었다. 계속해서 선지식은 "네 마음에는 혜능 대사처럼 선지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탐진치가 그득하지 않느냐?"

처음에는 아침 공부시간이 환희심도 나고 보람도 느껴지기도 하였으나 꾸중을 하시거나 자신의 하찮은 모습이 여러 도반들에게 드러날 땐 적지 않게 괴로웠다. 자신의 업장의 표출, 선지식과 함께 하는 검토, 지적 및 꾸중, 퇴타심의 예방에 관련된 법문 말씀 등 아침 법회는 자신의 업보 업장이 태산과 같음을 느끼게 하였으며 그동안 얼마나 무지와 착각 속에서 살아 왔음을 실감나게 하였다. 수지자신죄장 유여산악(須知自身罪障猶如山嶽)! '마땅히 자신의 죄업이 산악과 같이 큰 줄로 알 것이다' 라는 초발심 자경문의 말씀을 인용하시며 우리들의 업장이 얼마나 큰 것을 일깨워주시는 선지식의 말씀은 나와 같은 수도인들에게 또 다른 격려였다. 때가 되어서 스승을 떠나 혼자 만행을 하며 배운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 이렇게 배고픔, 졸림 역시 공(空)하여 본래 없음을 알게 되며 사람과 사람사이의 업보 역시 착각이고 본래 없음을 알게 되면서 나의 마음은 한없이 편안해지기 시작하였고, 끊임없이 일어나는 분별을 잠시도 쉬지 못했던 나의 마음에 차츰 평화가 찾아오기 시작했다. '부처님 전에 복을 짓는다는 것이 이런 것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되며 선지식에 대한 무한한 감사의 마음이 들기 시작하였다.

〈사회복지법인 바른법연구원 이사장〉



청운 스님의 생활속 '이뭣고' 수행

'이 뭣고' 는 마음 관(觀)하는 一法

중국 선종의 초조 달마대사가 150세 나이로 중국으로 건너와서 불교에 대혁명을 일으켰는데, 경(經) 염불(念佛), 송주(誦呪)등을 다 부인(否認)하고 관심일법(觀心一法) 총섭제행(總攝諸行) 직지인심(直指人心) 견성성불(見性成佛)을 했다. 즉 "마음을 관하는 한 가지 공부에 모든 법이 다 들어있으니, 곧 바로 진심을 관해 자기 성품을 보고 깨달아 생사가 없는 부처가 되게 한다"는 의미이다. 여기서 진심을 관하는 일법이 일체 수행법의 근본이며, 그 관하는 반야지혜(般若智慧)가 바로 '이 뭣고' 인 것이다.

육진경계(六塵境界)를 딱 하나로 관하는 자리가 반야(般若)인데, 저 높고 깊은 곳에서 내 모습을 '이~뭣고' 로 관조(觀照)하면, 아무리 높은 태산 같은 무게의 괴로움과 슬픔도 한 조각 하염없이 흘러가는 뜬 구름일 뿐이요, 금방 질식(窒息), 폭발(爆發)할 것 같은 나의 감정의 모습도 지나가는 아지랑이에 불과 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그러니 생활속에서 매순간 일어나는 한 생각을 바로 알아차리고(싸띠) 그 뿌리를 '이~뭣고' 로 찰라에 잘라 버림으로서 제 8아뢰야식에 저장된 업장이 점차 소멸돼 생사고(生死苦)에서 벗어나고, 내안의 자성불인 지혜광명의 스위치를 '이~뭣고' 로 올려 밝히면 그것이 매순간 여의보주를 굴려 쓰게 되는 이치와 같다. 우리의 모든 소원성취도 내안 자성불(自性佛)의 진성연기(眞性緣起)로 이뤄지게 되는 것이지 밖에서 빌어서 오는 것이 아니다.

〈화엄경〉에 약인욕식불경계(若人欲識佛境界) 당정기의여허공(當淨基意如虛空) 원리망상급제취(遠離妄想及諸趣) 염심소향개무애(念心所向皆無碍)이란 말이 있다. 이는 "만일 부처님의 경계를 알고자 한다면 마땅히 그 마음을 허공같이 하라. 모든 망상과 취하려는 욕심을 여의면 이 마음 가는 곳에 걸림이 없으리라"는 의미이다.

"부처님 경계를 알고자 한다면 그 마음을 허공같이 모든 망상과 취하려는 욕심을 여의면 걸림이 없다"

돈오(頓悟)의 돈제망념(頓諸妄念)은 모든 망념을 제거하는 것이고, 오무소득(悟無所得)은 깨달음이란 본래 갖춰 있기 때문에 얻을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다. 즉 망념만 제거하면 그대로가 부처인 것이다.

화두란 지금 우리에게 직접 부딛히는 모든 장애와 관계된 마음의 성질이다. 생활속에서 불법과 화두를 따로 분리시켜 놓으면 생각마다 어려움에 갇혀 움직일 수가 없게 된다. 본래 어둡고, 밝고, 알고, 모를 것이 없다. 누구나 본래부터 그대로 부처인 것이고, 모든 생명은 본디부터 깨달음 그 자체이다. 그러므로 본각(本覺)은 깨닫는 자와 깨닫는 대상은 둘이 아닌데, 둘이 아닌 것을 둘로 나눠놓고 깨달으려 하니 남(南)과 북(北)이 서로 갈라진 것이다. 또한 깨달아 증득하려는 마음이 앞에 놓여 있기 때문에 장애와 어려움이 따르는 것이고, 깨달음을 구(求)하는 것은 자기 집 안방에 앉아서 자기 집을 찾는 격이다. 우리가 삶속에서도 나와 너를 둘로 보기 때문에 시시비비(是是非非)가 일어 나지만, 깨닫고 보면 남이란 타인(他人)이 아니고 또 다른 나인 것이다. 중생이 아무리 본래부터 뚜렷이 이루어졌다고 하지만, 천성으로 지혜의 눈이 어두워 생사윤회를 거듭 하는 것이다.

만약 세상서 뛰어난 금강보검(金剛寶劍) '이~뭣고' 가 아니라면, 누가 무명(無明)의 두꺼운 껍질을 벗겨 줄 수 있을까 감히 생각해 본다. 우리가 수행중 혼침이 일어 나더라도, 이(是)를 심안(心眼)으로 반조(返照)하며, 천천히 의심(疑心)을 일으켜 '이~뭣고' 하면 차차 화두가 순일 하게 이어지게 될 것이다. 쇳덩이를 달궈 황금을 만들 듯이 오직 모르고 모를 뿐인 그 당처를 '이~뭣고' 를 통해 근본 마음자리로 되돌려보는 것이 바로 회광반조(廻光返照)이다.

〈남양주 선재사 주지〉

제 99기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佛教儀式(범음·범패) 學人 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 (야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 (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 (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신행과정 (1 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특수작법 (1 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개 강 일 : 2018년 3월 13일 개강

◆ 강의일시 : 매주 (화, 금) 오후 5시 ~ 6시 30분 (90분 강좌)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반명함판 사진 2매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 · 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教儀式教育院

海東佛教梵音大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 0496

현재 법당의 엠프설비를 "UBS 내장형" 최신형,
최고급 「800W 파워드믹싱 앰프」 셋트로
160만원에 교체 설치, 보시 해 드립니다!

(기본제공 : 800W 앰프 + 450W 스피커2 + 900메가 무선마이크 1대, 사용중인 앰프설비는 회수함!)



• 대출력파워드 믹싱앰프
출력 : 800W USB내장
가격 : 1,200,000원



• 대출력스피커 1조
최대입력 : 450W
가격 : 700,000원

염불용 초고성능 마이크 출시



• 60Cm 이상 거리에서도 장엄하고 맑은 소리 보장!
• 오래된 앰프와도 잘 맞아 뛰어난 소리가 나옵니다
• 가격 : 175,000원 (홀더 포함)
2개 구입시 : 305,000원

마이크용 목걸이 증정

주지스님 전용
• 탁상마이크
자체 소리 조절
가격 : 185,000원

• 무선마이크용 고성능 헤드셋



• 무선마이크



가격 : 300,000원

• CD기기 (5개 연속사용)



[특별판매] 가격 : 350,000원

유코음향연구소
소장 김문화 010-5335-2695
서울시 양천구 신월 3동 48-9 (300호)

소장 김문화
무선설비기사, 음향연구가
제 1급 아마추어무선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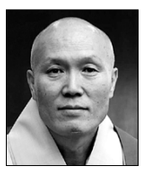
주문 계좌 : 우리은행 김문화
1002-610-963886

일 주 문



화쟁으로 본 낙태 집담회

도법 조계종 화쟁위원장 스님은 2월 28일 오후 4시 서울 전법회관서 집담회 '낙태, 화쟁의 눈으로 이야기하다'를 개최한다.



어린이법회 창립

승석 강화 전등사 주지 스님은 3월 4일 오전 10시 전등사 무설전에서 어린이법회 창립법회를 봉행한다.



불교상담심리사 자격고시

가섭 불교상담개발원장 스님은 2월 2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서 제11회 불교상담심리사 1·2급 자격고시를 개최했다.



포교사의 날 기념법회

윤기중 조계종 포교사단장은 3월 11일 오후 1시 동국대 본관서 '출범 18주년 및 제5회 포교사의 날 기념법회'를 봉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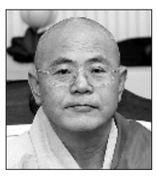


대불련 새학기 템플스테이

양희동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장은 3월 16~18일 충주 석종사에서 '새 학기를 시작하는 설렘'을 주제로 템플스테이를 실시한다.

조계종 직할교구 사찰 주지 인사

미타정사 설주 · 현성정사 마가 스님 등



설주 스님



마가 스님



정수 스님

서울 궁동 미타정사와 홍은동 현성정사, 고양 흥국사 주지에 각각 설주 · 마가 · 정수 스님이 임명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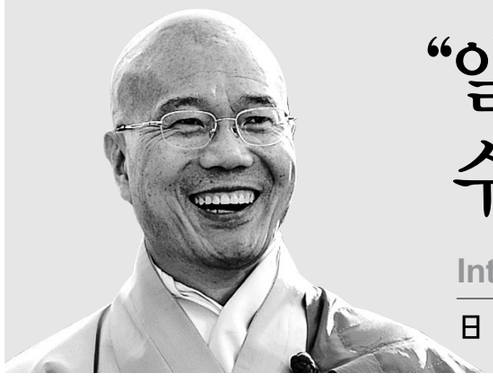
조계종 총무원장 설정 스님은 2월 1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서 미타정사, 현성정사, 흥국사 신임주지 임명장을 각각 전달하고, 원활한 사찰 운영에 힘쓸 것을 당부했다.

이 자리서 설정 스님은 "주지는 만인에게 영향을 주는 지역사회 지도자다. 항상 중생에게 기쁨과 희망을 줄 수 있도록 봉사하고 헌신하라"고 강조했다.

설주 스님은 법장 스님을 은사로 1981년 수계(사미계)했다. 백양사승가대학과 중앙승가대를 졸업하고 고산사 · 영상정사 주지를 역임했다.

마가 스님은 현성 스님을 은사로 1985년 수계(사미계)했다. 중앙승가대를 졸업하고 마곡사 포교국장, 중앙대 교양학부 겸임교수를 역임했으며, 현재 마음치유협회장을 맡고 있다.

정수 스님은 성타 스님을 은사로 1993년 수계(사미계)했다. 동국대 불교문화대학원을 졸업하고 제15~16대 중앙종회의원을 역임했다.



"일본 속 한국불교, 수행 · 힐링사찰 운영"

Interview

日 나가노 금강사 신임주지 법현 스님

교포들이 세운 뜻깊은 사찰
법당 개방, 스님 상주하며
한국불교문화 담아 차별화
4월 8일 주지취임법회 예정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일본불교는 좋게 표현하면 민족성이 두드러진다고 할 수 있지만 부처님 재세시 특성이 많이 사라진 점은 아쉽습니다. 수행보다는 천도재나 상장례 문화가 발달했으니까요. 나가노 금강사 주지로서 수행과 힐링을 중심으로 한 한국사찰의 문화를 널리 알리고자 합니다."

서울 열린선원 선원장인 법현 스님이 오는 4월 8일 열린선원 자매사찰인 일본 나가노 금강사 신임주지로 취임한다. 금강사는 1970년대 말 재일교포들이 십시일반 모연해 지은 한국 사찰로서 그동안 태고종 총무원장을 역임한 스님들이 다수 주지를 맡아 운영했다. 한때는 운영이 어려워 경매에 넘어가 위기에 처하기도 했지만 사업에 성공한 몇몇 불자들이 구해냈다. 특히 법현 스님은 20여 년 전부터 금강사 주지직 요청을 받았지만 그간 사양해오다 일본 한국사찰이 없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마음을 냈다.

법현 스님은 "금강사는 나가노에 거주하는 교민들에게 위로가 되는 중요한 사찰이다. 그동안 한국과 일본 양쪽 사찰 일을 맡기엔 능력이 부족해 금강사 주지를 거절했지만 최근 운영이 어렵다는 소식에 원력을 세웠다"면서 "매월 정기법회를 통해 참선지도와 설법, 축원 등을 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일본불교와는 차별화 된 한국불교의 수행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현 스님은 이와 함께 한국과 일본을 오가는 상황에서 금강사가 비어있지 않도록 1년 내내 기도를 맡을 스님과 와세다대학서 유학한 상좌 스님이 상주하도록 할 예정이다.

눈길을 끄는 것은 대부분 법당을 공개하지 않는 일본사찰과 달리 언제든지 방문객이 법당과 스님을 만날 수 있는 열린 사찰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법현 스님이 서울서 운영하는 '열린선원' 이름과도 궤를 같이 한다.

법현 스님은 "일본사찰은 법당을 일반인들에게 개방하지 않는다. 당연히 부처님을 만날 수도 없다. 다만 법당 앞 불전함에 동전을 던지게 해 그 소리를 부처님이 들을 수 있도록 한 것이 전부"라며 "그나마 불상을 12년에 1번 공개한다. 그걸 보기 위해 인산인해를 이루는데 불교 본질과는 다르다고 생각해 열린 사찰을 계획하게 됐다"고 운영 취지를 밝혔다.

법현 스님은 이어 "경내에 온천수가 나오는 사찰은 금강사가 일본서 유일하다. 요사채를 게스트하우스로 리모델링해 힐링스테이를 체험할 수 있도록 변화를 주려 한다"며 "나가노를 찾는 한국인들에겐 특별한 성지순례 장소로, 일본인들에겐 이색적인 불교문화를 접하는 마당으로 거듭나도록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법현 스님은 태고종 총무부장과 교류협력실장, 교무부원장, KCRP종교간 대화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 인천공항경찰단 지도법사와 서울 은평구 초대 인권위원 등을 맡고 있다. 저서로는 〈추워도 향기를 팔지 않는 매화처럼〉 〈그래도, 가끔〉 등이 있다.

팔순 맞은 불자, 동국대에 1억원 쾌척

이정안 씨 기금 전달
"혜광원 불사 써 달라"

팔순을 맞은 신실한 불자가 동국대에 1억 원을 쾌척했다.

동국대(총장 보광)는 2월 13일 정각원에서 불자 이정안 씨의 동국대 발전기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불교 신자인 기부자를 위해 특별히 정각원 법당에서 불교 법회 방식으로 진행돼 눈길을 끌었다.

전달식에는 동국대 총장 보광 스님을 비롯해 정각원장 묘주 스님, 대외협력처장 종호 스님, 구암사 도희 스님, 기부자 이정안 씨, 딸 기현숙 씨가 참석했다.

기금 전달 후 이 씨는 "불자로서 조계종립 동국대에 기부하게 돼 기쁘다. 예전부터 팔순이 되면 좋은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며 "비구니스님의 기숙사 재건립에 요긴하게 잘 사용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정안 씨와 동국대 총장 보광 스님이 정각원에서 기념촬영하는 모습.

총장 보광 스님은 "보살님의 큰 결심에 총장으로서 힘이 된다. 특히 가족들이 기부를 동의해주신데 많은 감사드린다"며 "미래 한국불교를 책임질 훌륭한 비구니 스님 양성에 보탬이 될 기숙사 재건축 불사에 잘 사용하겠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한편, 이 씨가 전달한 기금은 비구니 스님들의 기숙사인 혜광원의 재건축을 위한 기금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신성민 기자

기무사에 '평화의 불' 봉안

조계종 군종교구, 한반도 평화 기원



조계종 군종특별교구(교구장 선묵 혜자)와 군법당 108평화순례단은 2월 11일 국군기무사령부 통일호국사에서 '부대 안정과 한반도 평화기원 평화의 불 봉안대법회'를 봉행했다. 이번 순례에는 이석구 기무사령관과 108평화순례단원 등 사부대중 350여 명이 동참해 평화의 불 분등과 평화의 비를 제막하며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기원했다.

노덕현 기자

논산 육군훈련소 수계법회

태고종 대전 · 전북종무원 합동으로



태고종 대전종무원과 전북종무원은 2월 10일 논산 육군훈련소 호국 연무사서 훈련병 수계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논산 안심정사 회주 법안 스님과 태고종 전북종무원장 진성 스님 등이 참여해 3600여 장병들에게 오계를 설한 뒤 건강하게 군 복무를 마칠 수 있길 기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백혈병 어린이 돕기 후원

나눔실천승가회, 사랑실은교통봉사대에



대한국불교조계종 총무원장이 후원하는 나눔실천승가회(회장 호산 성보)는 2월 7일 총본산 창원 불광사에서 백혈병 어린이 돕기 후원금을 사랑실은교통봉사대(지대장 홍의주)에 전달했다. 회장 호산 성보 스님은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하는 후원자들이 십시일반 모은 소중한 기금이다. 영 · 유아와 무의탁 노인을 위한 시설 운영에 힘써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청운 경남남부지사장

"새는 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슬라브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전문시공), 창고, 공장, 일반가정집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서울.경기 02-456-8831
강 원 도 019-396-1110
충 청 도 010-6545-3350
경 상 도 010-4187-0062
전 라 도 011-248-6298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현 대 칼 라 산 업 지 붕 공 사

제12기 영남전통범음 · 범패 교육과정 수강생 모집



영남전통 범음 · 범패 교육원에서 2018년도 초급 · 중급 · 고급 과정생을 모집합니다. 영남불교의 전통의식 범음범패, 작법(바라춤, 나비춤) 등에 관심있는 스님 및 불자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교육기간 및 과정
가. 초급과정(2개월) ■ 송주 : 도량석, 종송 ■ 예경 : 칠정례, 오분향례, 각단 예불
■ 권공 : 삼보통청, 상단 중단 권공, 각단불공, 요령, 목탁
나. 중급과정(4개월) ■ 시련, 삼신이운(괘불이운), 대령, 관욕, 옹호게 (신중작법 39위, 104위), 당일천도, 49재, 지장청, 시왕도청, 전시식, 관음의식, 상용영반, 화엄시식, 구병시식, 봉송편
다. 고급과정(6개월) ■ 바라춤 : 천수바라, 사다라니바라, 화의제바라 ■ 나비춤 : 오공양, 유원승, 요잡작법
■ 사 물 : 태징, 북, 광쇠, 호적(태평소), 전통의식타법 ■ 특 강 : 종사이운, 종사영반, 점안의식, 시다림(다비), 예수재의식 등
라. 강 주 : 석법운 스님
2. 개 강 ■ 2018년 3월 22일 목요일 오전 11시
■ 수업시간 : 초급과정 : 매주 목요일 오전 11시 ~ 오후 1시 / 중급 · 고급과정 : 매주 목요일 오후 1시 ~ 오후 5시
3. 입학자격 : 종단과 승 · 속 관계없이 누구나 가능
4. 수 강 료 : 교육비 10만원(교재비별도)
5. 제출서류 : 입학원서 1부(본 총무원에서 교부)
6. 강의장소 및 접수처 : 경북 칠곡군 약목면 복성 9길 28(복성리 1095)
대한불교응공조계종 총본산 총무원 동명사 영남전통 범음 · 범패 교육원
7. 접수기간 : 상시모집
8. 문 의 처 : 010-3544-2605 / TEL 054) 974-2605 / FAX 054)974-2705

뜻을 같이할 종도스님을 모집합니다

영남전통 범음 · 범패 교육원

불교문화포교사 첫 배출 '눈길'

부산불교교육대학, 첫 수료자 44명 배출

불교문화를 도구로 포교에 앞장설 불교문화 전문포교사가 처음 배출됐다.

부산불교교육대학(학장 범혜)은 2월 20일 부산불교교육대학 교육관에서 '합동 졸업식 및 불교문화 포교사 자격증 수여식' 을 개최했다.

불교문화포교사는 불교건축과 고미술 등 전통불교문화를 공부하고 일반인에게 설명해 포교에 앞장설, 불교문화 전문해설사다. 불교인구 감소 및 탈종교 시대에 불교를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 고안됐으며, 불교문화포교사 민간자격증도 신청 등록했다.

학장 범혜 스님은 "불교문화포교사 수료증과 자격증을 받으신 분들은 한국불교를 알리기 위해 최고 전문가가 됐다는 마음으로 활동해 주길 바란다"며 "불교문화를 도구로 누구보다 앞장서 포교를 담당해 주시길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부산불교교육대학장 범혜 스님이 불교문화 포교사 자격증을 받은 졸업생들과 밝게 웃고 있다.

부산불교교육대학은 지난해 11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불교문화포교사 민간자격 등록을 신청, 올해 1월 31일 등록 승인을 받았다. 제1회 불교문화포교사 자격시험은 2월 13일 부산불교교육대학 교육원에서 실시됐으며 총 44명 응시해 전원 합격했다.

한편, 2017년 부산불교교육대학 졸업생은 교리학과, 불교학과, 불교문화학과, 불교의식학과 등 7개 학과 이수자로 총 208명이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교구 발전 기여에 감사드립니다"

고운사, 우수 종무원 및 산하시설 종사자 표창

조계종 제16교구본사 고운사(주지 호성)가 업무추진 능력이 뛰어나고 모범적인 종무행정을 펼친 장기근속 재가 종무원과 산하 복지시관 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표창을 수여하고 격려했다.

고운사는 2월 12일 45개 사찰 주지스님들과 40여 고운사 산하 시설장 및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교구종회를 개최하고, 2017년 회계결산과 함께 교구발전에 기여한 공로자들에게 포상을 실시했다. 〈사진〉

이날 고운사는 안동장애인복지관 정상훈 국장 등 10명에게 모범직원 표창장을 전달하고, 대만 등에 다녀올 수 있는 해외선진지 견학의 포상기회도 제공했다. 이밖에 10년 이상 장기 근속한 영전사 풍기어린이집 김용환 씨(22년) 등



13명에게는 장기근속 표창장 수여와 함께 격려금을 전달했다.

또한 교구종회에서는 교구 산하에 환경위원회, 사회노동위원회, 다문화사회위원회, 국제교류위원회등 4개 위원회를 구성해 지역별 균형 있는 발전과 참여를 전개하기로 결의했다. 또 2017년 교구 내 우수사찰로 선정된 대원사, 선찰사에도 표창장과 금일봉이 수여됐다.

박영애 영주지국장

전북불교대학, 졸업생 54명 배출

전북불교대학(학장 이창구)이 졸업식을 통해 총 54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2월 11일 4층 대법당에서 열린 졸업식에는 이창구 학장을 비롯해 임실 상이암 주지 동효 스님, 전북불교대학 교수 지강 스님, 반재상 총동창회장 등 사부대중 130여 명이 참석해 불교학과 30기 39명, 법사과 25기 15명의 졸업을 축하했다. 또 전법사고시를 통과한 6명에게 전법사 자격증을 수여했다.

이창구 학장은 졸업사에서 "부처님의 제자로 살면서 항상 묻고 또 물으며 부처님의 말씀에 따라 돌아보며 정진하는가 살펴봐야 한다"며 "진짜 업을 마치는 그날까지 함께하며 나아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경찰 · 소방관 힐링, 스님들이 맡아요"

부산불교계, 불자회 창립 돕고 차 명상 수업도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국가와 지역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과 소방관들은 여러 사고 후 트라우마로 고통을 받아도 호소할 곳이 없다. 신경정신과를 방문하거나 상담치료를 받으면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까 전전긍긍하는 실정이다. 게다가 빡빡한 일과로 시간을 내는 것조차 쉽지 않다. 이에 부산 불교계가 지친 경찰과 소방관을 위해 먼저 손을 내밀어 사회적 귀감이 되고 있다.

먼저 부산남구불교연합회 경승 스님들은 부산남부경찰서에 근무하는 경찰과 직원들을 위해 불자 법우회(회장 이현규)를 창립했다. 이는 지난 3년간 지원 스님(문수사 주지)과 화랑 스님(동명불원 주지), 호명 스님(무문홍법사 주지), 능후 스님(대원정사 주지) 등 경승 스님들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물이라 더욱 의미가 크다.

부산남부경찰서 법우회는 2월 21일 문수사 대웅전에서 창립법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서 남구불교연합회 사무총장 호명 스님은 "3년 동안 지속적으로 면담을 요청하고 청장을 비롯해 간부를 만나 설득했다"고 창립과정을 보고한 뒤 "법우회 활동을 통해 앞으로 부처님 말씀을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힘들 때 서로를 위한 의지처가 될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이현규 법우회장은 "부처님이 중생을 보듬듯 시민들과 함께 하고 불자경찰로서 정진해 나갈 것"이라며 "스님들의 관심에 감사드린다"고 인사를 전했다.

창립법회에는 부산지방경찰청 경승실장 경선 스님, 前포교원장 혜총 스님을 비롯해 남부경찰서 경승실장 지원 스님과 경승 스님들이 참석해 격려했으며, 이흥우 남부경찰서장과 경찰 간부, 신도 등 100여 명이 동참했다.

악조건 속 근무하는 직업
정서적 안정부터 우선돼야
스님들 의기투합해 지원
위문품 전달해 격려하기도

(사)향기로운문화동행 기장차문화대학(학장 보혜)은 선차 명상을 경찰과 소방관을 대상으로 직접 지도했다. 기장차문화대학은 2015년 12월 29일 기장경찰서 경찰관 29명, 기장군민 12명을 시작으로 제1기 차문화대학을 개강했고, 2017년 3월에는 기장소방서 소방관을 대상으로 차 수업을 이어갔다.

선차 명상을 경험한 경찰과 소방관들은 "긴장의 연속인 현장에서 활동하는데 차 한 잔과 명상은 마음에 힐링과 여유를 줬다"고 입을 모아 말했다.



2017년 4월 기장차문화대학에서 선차를 배운 기장소방서 김한효 서장 외 6명이 '향기입차다법' 을 선보이는 모습. 현대불교 자료사진

경찰과 소방관을 대상으로 차 수업을 진행한 원동력은 당시 기장차문화대학 초대학장이자 기장경찰서 경승실장이었던 정오 스님과 보혜 스님의 노력이 맺은 결과다.

기장경찰서 경승실장 정오 스님은 "당시 불자였던 청장님의 도움도 컸고, 부산차인연합회장으로 활동하며 다인으로 차에 조예가 깊은 보혜 스님의 노력 덕분에 가능했다"며 "앞으로도 경승으로서 경찰을 위해 더욱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활동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학장 보혜 스님은 "경찰과 소방관들이 차 수업을 통해 좋은 결과를 얻어 기쁘다"며 "앞으로는 기장지역주민을 위한 힐링 차로 더욱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부산 금정구에 위치한 천불정사(주지 고담)는 금정경찰서 경찰관과 지역 지구대 대원을 위해 점심 공양을 사찰에서 제공하며 감사의 뜻을 전해왔다. 또 지난해 12월 14일에는 49일 수자재 기도정진을 마치고 부산 금정구 소방서를 방문해 컵라면, 초코파이 등 100만원 상당의 간식 위문품을 전달했다.

주지 고담 스님은 "포교를 넘어서 그들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싶어 시작하게 됐다"며 "김영란법 시행 이후 경찰서에서 진행해온 동지 팥죽 나눔을 멈춘 상태라 많이 아쉽다"고 말했다. 이어 스님은 "하지만 다양한 방법으로 감사의 뜻을 전하고 관심과 격려를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스님과 함께 나눈 고향의 그리움

전북불교계, 스리랑카 스님 초청해 특별법회 봉행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에 근무하는 스리랑카 근로자들이 자국 스님을 초청해 특별법회를 봉행했다.

설 연휴가 시작된 2월 15일 완주 근로복지공단 대강당서 열린 법회에는 스리랑카에서 방한한 반야사라 스님과 스리랑카 대구사원 비엔난다 스님, 스리랑카서 수행하는 위지따(한국 법명 종원) 스님, 태고종 전북종무원장 진성 스님, 총무국장 송운 스님 등 스님들과 스리랑카 근로자 200여 명이 동참했다. 외국인 근로자들을 지원하는 '좋은이웃' 정용기 대표의 주선으로 봉행된 이번 법회는 이국땅에서 고생하는 근로자들을 위로하기 위해 마련됐다.

법회에 앞서 스리랑카 근로자들은 자신들의 숙소에서 스리랑카 전통방식으로 스님들에게 공양을 올렸다. 스님들은 이들에게 삼귀의와 오계를 설하고 비엔난다 스님이 인연법의 '선인선과 악인악과' 를 주제로 법문했다.



불상과 사리이운을 하는 스리랑카 스님과 노동자들.

법회장인 근로자종합복지관 앞 도로에 운집한 스리랑카 근로자들은 스님들을 맞으며 불상과 사리 이운의식을 했다. 근로자들은 스님들 뒤를 따르며 예의를 갖춰 무한한 공경심을 표했다. 부처님에 대한 공양에 이어 반야사라 스님은 〈부모은중경〉을 주제로 법문하면서 참석한 200여 스리랑카 근로자들의 향수를 달래고 희망을 전했다.

진성 스님은 "가족들과 떨어져 머나먼 한국 땅에서 고생하는 스리랑카 근로자들의 노고를 치하한다"고 격려하고 "우리 산업사회에서 차지하는 스리랑카 근로자들의 고충을 살피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국에서 일한지 10년째라는 고길라(32)씨는 "한국에서 일하면서 부모님 새집도 지어드리고 동생도 결혼시켰다"며 "고국의 스님을 초청해 법회를 볼 수 있어 기쁘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우리나라에는 약 2만5000명의 스리랑카 근로자들이 근무하고 있으며, 전라북도에는 완주, 군산, 익산 지역 공단에 약 1500명 정도가 근무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선운사, 고창불교회관 3월 중 건립 추진

조계종 제24교구본사 선운사(주지 경우)가 2월 8일 불기2562년 1차 교구종회를 개최하고, 고창 월곡지구에 건립 추진 중인 불교회관 건립에 대한 보고와 이에 따른 특별분담금 현황, 2017년 결산과 2018년 예산안, 종교인 과세 등 교구 전반에 관한 안건을 논의했다.

이날 교구종회에서 경우 스님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일대기와 이후 서역 및 중국에서 불법이 전파된 사실을 기술한 〈석씨원류〉 목판본을 복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고창불교회관은 오는 3월중 착공해 11월 경 완공할 예정이며, 불교문화체험관은 2년에 걸쳐 5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건립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비구니 스님들의 의견을 수렴해 비구니 노후 수행관 건립도 추진할 계획이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피부·치아건강제

불 보살님의 기도, 가피, 지혜 원력으로
건강하시기를 기원하며, 회향공덕하는 마음으로
불자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국내산 자연식용재로 준비하였습니다.

스님, 불자님, 충치, 풍치, 시린이, 치주염, 치석, 잇몸출혈, 흔들리는이, 입냄새, 담배냄새, 혀백태, 입안건조, 임플란트 틀니 하시고 잇몸 아프신 분. 탈모, 비듬, 얼굴 기미, 손발톱 무좀, 각질, 습진, 전신잡티, 낭습진, 피부아토피, 알레르기, 벌레, 풀독, 모기물리고 머리염색 후 가려움증, 상처, 비염, 화상(즉시 여러번 사용 물집안생김), 백반증, 노화성피부건조 등 피부 치아가 건강치 못한 분들 연락주시면 3개월 사용분을 보시합니다.

문의 및 보시처 안산 법흥사 개운 합장
010-6332-6070

제11기 송강범음범패전승회 수강생 모집

범음범패에 관심있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 목 : 49재 의식(평염불), 천수바라, 도량게, 작법무, 사물 다루는 법
■ 장 소 :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미륵당길 70 봉업사 (☎ 031-676-0900)
■ 시 간 : 매주 금요일 오전 9시 ~ 오후 4시(1년 과정)
■ 비 용 : 입회비 200,000만원, 수강료 무료
■ 개강일시 : 2017년 3월 3일 오전 9시

특강
법고무 - 문곡스님
성명학 - 삼규스님
태평소 - 시우스님

연락처 ▶ 회 장(관희) 010-8290-6623
강 주(문곡) 010-3727-0870
총 무(진효) 010-5306-0856

송강범음범패전승회 회장 관희 합장

양지국악사

사찰전통 大법고 · 법당천도법고 · 태징 · 목어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764-2159 / 010-5264-3906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 010-5264-3906
계좌번호 : 농협 221098-52-250376 조남양

www.yangjikukak.com

대한명인 제14-406호
대고제작

* 본 지면 광고는 본지와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생 활 안 내

▷ 문 의 : 02) 2004-8214 / FAX 02)737-0696 / e-mail : jabi1522@hyunbul.com
▷ 가 격 : 1회 1Box (4.3×5.0) 4만원, 1회 1Box (8.7×5.0) 8만원
▷ 마 감 : 매주 월요일 ~ 수요일. 수요일까지의 입금 기준으로 광고 게재됩니다.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금주의 법어】

중생은 사악한 마음을 품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기도 한다. 중생은 그것을 조금도 수치로 생각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미혹 속에 빠져서 끝없는 고뇌를 받고 있는 것이다.

– 무량수경 –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0-9002-8523
빙의 치료 전문

범불교조계종 교육도량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종도모집 및 승려증 발급종단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회심곡
사찰행사전문
천도재 49재 점안식 회심곡
010-9317-6686
「유투브」에서 대명스님를치세요!
대명 합장(부산)

무형문화재 학인모집

부산시 무형문화재 제9호
영산재작법 천수바라연수원
염불 사물, 승려증 발급 종단
– 특별반 3개월 과정 모집
제9호 영산재 작법무, 천수바라
사찰행사 전문
(사)대한전통불교예술대학
전통불교조계종 총무원 영축사
010-5511-7000

신 묘 방 편 력

사찰, 포교당, 대지,
건물 등 속히 매매 성취
010-2896-6689
광명 공덕
터 / 자리도 봐 드립니다

수 맥

수맥탐사 교육생 모집
삼 일 단 기
속 성 반 (1:1개인지도)
이론실기 현장실습
교육 후 수료증 발급
* 출장탐사 * 개인사업자창업지도
(사)한국수맥협회 부산수맥연구소
051)462-8711

범음범패 학인,회원모집

염불을 여법하게 하고 싶은 분
염불 내용을 알고 싶은 분
사찰행사 함께 공유하고 싶은 분
사물, 바라, 작법을 배우고 싶은 분
(매주 금요일 오후2시–5시)
사찰행사 문의 환영
(살풀이, 극락무, 지전무, 관음무)
055-744-5300
010-5243-3587
진주 여여불음원 법일 합장

관 상 (손금)

- 얼굴만 보면 모든 것을 알 수 있다(암,질병,묘터,송사재판,산소,낙태유산,조상영가,교통사고,직장운,승진운,재물운,이혼수)
- 성철스님 사주 비법전수
- 철학원 하실 분 천기누설 전수
- 스님, 무속인, 일반인

010-4014-8822

불공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49제, 점안, 살풀이, 바라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0-2168-2800
011-850-0176

범음 범패 교육도량

범음범패 천수바라 나비무
법고. 정근북(양고장)
송주북 (각단 예불)
사찰 행사 문의
진주시 집현면 정수리 417
금륜사 대진 합장
010-7579-8200



위 패 몰

www.위패몰.com
염주 마이크목걸이 /
사찰합동위패 / 영가전대
051-244-2040

토종하수오

진액 판매
(약사사)
010-9692-5775

PC유경험(봉사자 모집)

문서작성 및 홈페이지 관리
경험자 / 사찰홍보(블로그, 카페, 광고등) 경험자
* 나이, 성별, 지역 관계없음
(숙식가능)
051-529-2100
010-9085-0792
부산 진구 성지로 94번길 151-17
대원정사

점안식 49재 천도재 불공 사찰행사 전문

범음범패 실전위주교육
바라나비무, 법고, 화청, 풍수,
명리, 육효, 주역, 작명 (학인모집)
남여 결혼 성사 접수 중
대 광 명 사 (동양불교대학)
031-953-3328
010-8893-8361

양 도 공 고

(등록된 종무법인임)
종무업무를 국가기관에
등록받은 불교법인, 불교
연합회 불교종단 양도함
011-412-8040 법광

역학·빙의 퇴마

개인 지도 · 예약 상담
1. 역학 : 사주,궁합,택일,사업운
2. 성명학 강의 및 작명, 개명
3. 빙의퇴마,전생요법,심리상담
4. 정신분열,환청,환시,우울증
※ 빙의(신병)출장 퇴마 및 상담
010-3772-4606 제행
서울 지하철 4호선 상계역

특 강

숫자로 보는 생활철학
- 수시모집 : 2018. 3월
- 개인지도(매주)
- 화,금 18:00 ~ 20:00(12주) 50만원
- 대구은행 010-3527-1037 서일영

영도기문철학
010-3527-1037
대구 남구 안골길21 안지랑역 3번출구 5분

불교의식 수강생 모집

– 주1회, 누구나 할 수 있도록 실용교육
– 예불,불공,사십구재,천도재 등
– 북,징,경쇠,요령,목탁 다루는 법
– 바라작법, 오공양무
영남범음범패 염불선원
(경산시 경산역 부근)
010-5315-3589

신통도인의 신통상담

상담을 통해 질문을 하면 허공에 문자를 써내려서 질문에 답을 해주는 신이한 신통으로 상담을 해준다. 도통기도 뜻을 이룬 신통이다
(전화상담, 직접상담)
010-6357-5152
신통도인 육관

寺 포교원 부전 명리 요양원

대출(2금융권)상담
서울 경기지역
010-5381-1419
경상도 지역 광고 같이 할분 찾음
참신한 공양주 모십니다
010-8620-4303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남 밀양)
011-803-2626
055-353-6148

공양주 보살님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경남 고성)
010-8507-9892

수인작법 사주팔자

- 옛 고승과 도인에게만 전수되어 내려온 비술
- 손 하나만으로도 몇년 전, 몇월, 몇일의 운세점 검 몇년 후, 몇십년 후, 몇월, 몇일, 몇시의 일도 예측할 수 있는 작법
- 명리를 배웠어도 시원치 않은 분
- 운명학을 배웠어도 시원치 않는 분

천지조화의 수치를 열어 보입니다
010-7703-1188

도깨비를 부리는 기도법 전수

옛날 엽전 구합니다
☎ 02)963-1148 / 011-741-0867
-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274-1 3층 백선사 대주스님 합장

중풍, 당뇨, 고혈압, 치매, 손발저림

예방, 치유가능
네이버 '현오스님' 검색
010-9229-3801 약손스님 현오

특수실전 강의 안내

천지운기 육입법. 백초귀장술.
파동에너지. 성명학. 주택풍수 2개월 과정
누구나 쉽게 배우고 실전가능
중요문화재 제50호 특수작법 강의 안내
다게. 도량게. 사방요신. 법고무. 막바라. 화이재바라.
천수바라. 사다라니바라를 지도하여 드립니다.
3개월이면 실전에 충분히 참석할 수 있도록 가르쳐 드립니다
– 오전 10시부터 특수실전강의 –
도갑스님 010-2693-6585
– 오후 2시부터 특수작법강의 –
지원스님 010-7557-2568
행사에 필요한 살풀이 지전무. 극락무.
진혼무 일체. 민요 소리. 장단 가르쳐 드립니다
010-8575-6671 (상담)
경북 칠곡군 동명면 기성 1길 3 천명사

과일의 왕 두리안

제일 맛이 좋은 시기에
수확하여 들여왔습니다.
두개 6.5KG 이상 70,000원
한박스 14KG 이상 130,000원
Sale!
주문하시면 즉시 택배로 배송되며
받아보실 때는 영하 40도로 급냉해 보관된
두리안이 먹기 좋은 상태로 해동이 되어 있습니다
〉 망고, 체리, 아보카도 수입과일 일체 판매합니다 〈
인터넷에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한글로 두리안샵
www.durianshop.com
양다원
판매및 문의
불자가 운영합니다
대표전화 ☎ 031-882-1357
Fax 031-881-1350 전화 : 010-5474-1345
입금구좌 : 농협 100023-56-156761 (조명숙)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우학스님 상좌 및 예비수행승(행자)모집
이 시대 불교를 리더할 참신한 예비수행승(행자)을 모집합니다
1. 수행 위주의 교육
2. 수계 후 공부 100% (대학, 강원, 기본선원) 교육비 전액지원
3. 공부 마친 후 국내도량, 해외도량, 복지시설 등에서 활동 할 수 있음.
4. 본인의 희망에 따라 대구큰절, 감포도량 중 선택하여 행자생활 함.

문의 : 054-753-8228, 010-8852-0075

사 찰 행 사 전 문

점안식. 천도재. 사십구재. 터고사 등
각종 재의식 상담
바라춤, 나비춤, 살풀이, 지전춤, 극락무, 회심곡
(불교무용, 한국무용, 남사당풍물)
010-2277-7955

MYANMAR (미얀마 語) 강좌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 위빠사나 강좌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미얀마 문화원 (종로구 청진동)
문의 : 02)733-5670

맛 샘나 식물성 콩고기

최신 국내기술로 만든 식물성 조직 콩단백 효모와 항산화가 함유된 건강 단백질 콩고기
소화흡수 충분한 고단백질 영양섭취
전립선, 다이어트, 성인병 예방
주문전화 1661-4288
농협 301-0222-880671 (주)샘나

교육학 박사 진각 스님의 명리상담학



- 지금은 명리상담학이 제도권학문이 되어 여러 대학교와 대학원에서 학사, 석사, 박사 학위과정이 있음.
- 또한 명리상담분야의 비학위과정도 지역문화센터 등에서 많은 개설과 보급으로 신도 님들이 공부를 많이 하였음.
- 이러한 현상이 현대는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과 상담분야로써 필요성이 더 절실하기 때문 임.
- 이제는 명리상담학을 필수학문이라 생각하고 방편 삼고자 큰마음을 내신 스님만을 위한 초급입문과정을 개강.
- 한자(漢字)는 22자만 알면 가능하고, 명리상담법과 작명법
- 부산 송광정사 부설 문화대학 교육학박사 진각
- 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도 10년간 강의 · 강의경력 23년
- 부산지하철 3호선 배산역 하차 4번 출구.

부산 ☎ 051-868-8438

한국최초!! 내 손 안의 육임

◆ 무료강의 : 매월 2, 4주 일요일 오후 4시 (미리 접수바랍니다)

이제 운세를 휴대전화와 휴대용 PC로 순쉽게 손안에서 해결되는 새로운 비법의 육임 운명법(사주, 개운법포함), 명궁법, 신수법, 시간법을 각자의 생년월시만 넣으면 8640페이지로 명쾌하게 해결 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운명을 알아 맞추는 형식이었다면 육임 운명법은 운명의 법칙대로 살아야 잘사는 법을 만든 비술이다.

- 시간법도 각각 年名(년명)을 대입하여 풀어놓은 국내 최초의 비술이며 휴대전화와 앱으로 볼 수 있는 국내최초로 만든 손 안의 운세이다.
- 육임은 대운법 뿐만아니라 세운으로 각자의 운명을 어떻게 살아야 맞게 사는지를 자연법칙에 맞추어 만든 비술이다.
- 인연이 가장 중요하고 직업이 중요하다. 만법이 자연에 순응하여 살듯이 인간도 자연법칙에 맞추어 살아야만 세상을 이기고 행복한 삶을 사는 법이다.
- 육임 운명법은 자연법칙에 맞는 인연과 직업을 명확히 알고 살도록 만든 최초의 비술이다.

❶ 동영상 강좌 : 250만원 ❶ 직강 : 300만원
❸ (내손안에 육임) 프로그램 : 450만원
❶+❷+❸ 合 600만원 (개별구입 가능)
※ 각종카드, 할부금융 – 무이자 24개월 할부 가능

■ 강좌문의 : 공념학당 010-4471-6410 「육임이 보인다」 저자

2018년 실전 사주 명리학 무료강의 제10기 수강생 모집

그동안 제1기에서 제9기까지 전국에서
1,000여분의 스님이 수료하셨습니다.
2018년에도 스님과
불심 깊은 불자들에게 무료로
명리학을 가르쳐 드리고자 합니다.

대 상
1) 현재 사찰을 운영하고 계시는 스님이나 총무보살
2) 불심 깊은 불자님들

◆ 수강신청방법 : 전화로 신청하시면 안내문을 보내드립니다.

① 교육기간 : 2018년 3월 13일 ~ 9월 18일까지
② 수 강 료 : 약 7개월 교육 전기간 강의료 무료
③ 교육시간 : 매주 화요일 오후 1시 ~ 오후 4시 (3시간)
④ 개강일자 : 2018년 3월 13일 (화요일) 오후 1시
⑤ 책 자 : 초급에서 고급비법까지 총 8권 (책자대금 : 20만원 준비)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오포로 345-4 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768-8413

알기쉬운 구 단 구 궁 법

특허 상표등록번호 40-0863341 저작권등록번호 C-2011-003967
서비스표등록번호 41-0213393

저작권자 상표권자 법화종헌	저자 (속명 정흥교)는 경주불국사, 대구동화사, 부산범어사 승가대학에서 수학하고 고려고찰 고산사, 석불사 등 주지직을 수행하고, 전통불교조계종정을 역임. 지금은 「구단구궁법주」로써 자비의 방편학문인 「구단구궁법」을 세상에 널리 펼쳐 많은 중생을 요익케 하고 있다.
누가? 몇일?	◆ 누구나 5일이면 실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 왕초보 저학력 아무상관 없습니다. ◆ 써먹지도 못하는 죽은 학문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 시대의 필수과목입니다.
내 용	◆ **손으로 짚어 5분안에 자금회전, 일의성패, 직업, 성격, 적성, 궁합, 택일, 이사방위** 등을 주저없이 판단하고 기판(답안지 5분) 작성시에는 과거, 미래 십년도 한눈에 일년 열두달도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날짜별, 시간별도 마찬가지이다.) ◆ 한문에 관계없이 초보자도 가능함 ◆ **귀신뽑아 조상천도 연계** ◆ 교수 이수 후 즉시 영업 활동 가능함 ◆ **사찰, 포교당, 철학관 상담소 운영**에 획기적인 방법
※ 1월(寅月)의 높은 나무는 바람결에 귀신의 소리를 듣는다.	
수강료	◆ 스 님 – 오십만원(책값 별도) ◆ 일반인 – 일백만원(책값 별도) ◆ 우체국 : 601401-01-001843 (예금주 : 자비실천불교연합회)

구단구궁법 고실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대로 27번길 31, A동 107호 (지하철 덕천역 12번출구)
cafe.daum.net/9dan9gung 전화 010-7415-0803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관계 및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불자정보

▷ 접 수 : 매주 월 ~ 수요일 (팩스,이메일로 광고 접수 받습니다.) ▷ 게 재 : 매다음주 수요일
※ 수요일까지 입금된 기준으로 광고 게재해드립니다.
▷ 문 의 : FAX 02)737-0696 / 02) 2004-8213 / iom@hanmail.net
▷ 가 격 : 기본 4.7㎝ 50,000원(1회) / 가로 6.7㎝ 70,000원(1회) / 가로 9㎝ 100,000원(1회)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금주의 법어】

어진 마음으로 자비행을 하여 널리 중생을 보살피고 사랑하면 훌륭한 명예와 복이 언제나 그의 뒤를 따르게 된다.

– 법구경 –



원주시 사찰 안내

(www.이박사.com)

- 목조법당. 목조요사채. 토지 700㎡
- 원주시 외곽 운영 잘되고 깨끗함.
- 양도 : 5억 6천만원 (융자가능함)

■ **참되고 좋은인연 만드는 이박사공인중개사**

010-7347-1010 (02-430-0284 이박사)

주소 : 서울시 송파구 동남로18길40.가락동프라자@상가 (대표:이규철)

■ **비밀 보장. 방문 접수. 전국사찰. 암자 급히 구함 !!!**



사찰 안내 "가람"

- 전국 사찰 암자 포교원 양도 양수해 드립니다.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
- 계약 체결시 까지 홍보
- 매물홍보 최적화(사진촬영) • 비밀보장(희망자 한함)

사찰 사진과 상세한 정보는 가람공인중개사사무소 사이트
"사찰안내가람"(인터넷 검색창에 입력)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가람 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 김인수)

02-492-6789 / 010-8980-4789

주소 :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로 36번길 38 (상봉동127-15호)

펜션 및 장기요양 안내

허리 무릎 어깨 통증으로 고통 받는분, 암등 불치병으로 투병하시는 분!
따뜻한 남쪽나라 남해 자연 치유마을 황토 구들장 팬션으로 오세요!
전통재래 구들장으로 지어진 뜨거운 방에서 몸의 모든 독소를 배출하시고
산과 바다가 어우러진 명상길에서 지친 심신을 충전 하십시오.

장기요양 하실분 환영 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인터넷 "남해여행닷컴" 네이버 · 다음에서
"황토구들장 펜션" www.구들장팬션.kr을 검색 하시기 바랍니다.
이곳에 오시면 영험하신 도안스님의 친절한 인생 상담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안스님 연락처 010-9036-2131)

자연 치유마을 황토구들장펜션 주소 : 경남 남해군 남면 무지개로 81번길 23-32

문의전화 : 010-6260-3915 / 010-5352-9245

광진 사찰 안내

◎ 위치 : 서울북한산급양도 ◎ 위치 : 경기 수도권
◎ 무허가 건물 ◎ 부지 : 150평
◎ 건물 : 약 40평 ◎ 법당 : 40평,차량진입
◎ 도로근접,숲속,사용료지불 ◎ 요사 : 60평
◎ 매가 : 5천 5백만원정 ◎ 매가 : 10억 8천

*40년세월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출장 상담 받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광진불사」를 입력해보세요.**
*전국사찰,땅,포교당,다량보유 **부전, 공양주, 처사 소개 합니다.**
*고불, 석불, 골동품, 종교법인 상담 받습니다.

광진불사 010-4586-4525

연무대 사찰 (급) 안내

- 한옥법당.요사채.공양간.산신각
- 토지 400㎡
- 비구니스님추천사찰. 타지방에불사
- 논산 IC근처 교통 편리
- 양도 : 1억2천만원 (융자가능함)

010-7347-1010 (02-430-0284)

사무소 방문 부동산 무료 상담

(서울이박사공인중개사 이규철)

전국사찰다량보유.무료상담

도심 속 작은 사찰 안내

- 위치:경남 창원시 진해구 여좌동
- 건물 : 1층 단독 주택
- 아담하고 예쁜사찰, 법당, 요사 실내화장실, 실외화장실, 세탁실 창고, 포교, 철학 상담하기 좋은 사찰
- 난방 도시가스, 심야 전기
- 가액 : 1억 9천 5백만원 (대출 7천5백만원안고 1억2천만원)

010-7188-7723

울산 포교원 안내

- 위치 : 울산시 동구 시장 옆
- 2층 50평
- 칠보삼존불, 천수천안, 호신불 615불, 등 320등
- 방, 거실, 주방, 화장실, 창고
- 신중단, 영단(시설최고)아파트, 상가 밀집지역
- 가액: 보증금 2,000만원 월60만 시설비 4,000만원

010-8424-0042

사 찰 안 내

- 위치 : 포항시 남구 장기면 교통 아주 좋음
- 대지 약 500평, 주변산 2천평
- 건물 : 대웅전, 요사채, 기타 아름답게 잘 정돈된 사찰
- 가액 : 8억 (방문 후 결정)

010-4537-5386

사찰 (급) 안내

- 위치: 전남 해남읍에서 5분거리
- 사찰도량 1,500평 남짓
- 법당, 목조 20평, 관음전, 종각, 차실, 요사채, 공양간
- 모두 방 10칸, 외부, 부속사 등등 대영주차장 등
- 가액 : 모두 2억 9,500만원 (대출 7,500만원 승계도 가능)

010-4628-5699

(부득이한 사정)

사 찰 안 내

- 위치 : 산청군 삼장면 소재
- 600평 건물 6동
- 법당 53평 그 외 용왕당, 산신각, 요사채
- 가액 : 전화 상담

010-8957-8089

사 찰 안 내

- 위치 : 북한산(삼각산) 자락에 위치한 절임
- 건물 : 법당, 산신각
- 평수 : 470평 • 가액 : 7억 5천
- 조건 : 양도시 모든 기물 포함(불상,불화등 기타) 주변 주차 시설 양호함.도시가스, 상수도 임
- 대중교통 편리함(도보로 5분 거리임)
- 위치는 서울시 성북구 정릉동쪽 임

연락처 010-8697-2251

(부재시 문자 남겨 주시면 연락 드리겠습니다)

사찰 (터) 안내

- 위치 : 경북 청송군 안덕면 고와리 (안동시길안면사무소와 청송읍사무소 중간 청송군 파천면 지경리 근방)
- 사찰터로 좋은 전답 3필지 (약 1,800평)
- 가액 : 10,800만
- 분할가능 : 1필지(약 600평)5000만 2필지(1200평) 9,000만

010-2016-6281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부산 다대포 위치
- 60평
- 법당, 공양간, 요사 완비
- 주위 대형 병원, 아파트 밀집지역
- 현재 운영중

010-5267-4937

051-266-4937

사찰 및 전세 안내

- 위치 : 전남 광양시내 뒷산
- 경관좋음. 정원수 다량 조경된 아름다운절
- 포교 최적지. • 대지 1200평
- 법당 26평. 요사채 30평 공양실 16평(전체 목조. 단청완료됨) 창고. 저온창고
- 가액 : 8억(대출1억 안고) 전세가능

010-6603-1456

멋진2층 상가주택 토굴

- 위치 : 경북 김천시
- 대지 : 717평방
- 건평 : 1층 상가 149.99 2층 주택 81.75
- 가액 : 3억 2천만원 (4천만원 빼드림)
- 대출 : 1억포함(조정가능)

010-3007-5611

사 찰 안 내

- 위치 : 강원도 강릉시 사천면 손맞이길 107
- 사찰건물 : 법당, 방2, 주방 다용도실, 독채 등기필
- 대지 : 도지료 1년 35만원
- 넓은 마당 및 텃밭 200평 사용 (건물은 지상권 등기되어 개인 소유임)
- 가액 : 5천 5백만원

010-8525-1959

사찰 포교원 안내

- 위치 : 진주시 중앙시장 앞
- 2층 70평 정도
- 각단 탱화 및 삼존불 시설 완벽, 즉시 법회
- 가액 : 보증금 시설비 보신 후 결정

010-6208-5555

055)747-9874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 구서동에 위치한 작은 암자 (지하철에서 도보로 3분거리)
- 크기는 작지만 50년 된 기도처
- 도심 한가운데 멋진 숲속 풍광
- 구거(溝渠) 약 100평(산신각 포함)
- 직접 보시면 만족하실 조건 위치
- 인연 닿는 스님께 양도 원함

010-7121-3030

010-3574-3303

사찰 (포교원) 안내

- 위치 : 김천시 면소재 (차편 10분 거리)
- 사찰건물 : 32평 독채 등기필
- 법당, 주방, 방 2, 세면장
- 시가지 대로변 포교사찰 남향
- 대지 : 도지료 1년 35만원 (건물은 지상권 등기되어 개인 소유임)
- 가액 : 5천 8백 만원

010-7295-1259

사 찰 안 내

- 위치: 경북 영천 청통 부근 산을끼고 아주 조용한 사찰
- 단청, 주련 현판
- 총평수 465평, 현대식 건물 2동 1층 요사 30평 14평 2층 30평 법당
- 가액 : 3억 9천만원

011-503-0517

사 찰 안 내

- 위치: 수원시 동수원 사거리 중심 그린상가
- 건물 : 1, 2층 전체
- 대지 136.5평 건평 149평, 법당 75평
- 1층 요사채 겸 식당 주차장 완비
- 가액 : 평당 천오백

010-3752-2601

사 찰 안 내

- 위치: 충남 아산시 배방읍 설화산
- 대지 : 문중산
- 건물 : 법당 20평 요사채 20평 산신각 5평 장작. 기름겸용 보일러
- KTX역 10분 전철. 철도역 5분거리
- 판매가: 5000만 전세4500만

010-5404-9213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북 제천시 봉양읍
- 법당, 거실, 주방, 방
- 심야전기 보일러
- 가액 : 3천 3백만원

010-5258-1570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 영도구
- 시장, 은행, 마트 가깝고 교통편리함
- 대지57평, 건물 철근 콘크리트 2층집
- 1층 요사채 30평내, 방2개, 주방1개 거실1개, 세면장 화장실1개, 도시가스
- 2층 법당 20평내, 스님방 1개 도시가스 외부세면장 화장실 1개
- 모든 사물은 갖추어져 있음. 몸만 오시면 됩니다
- 가액 : 2억 9천만원

010-4495-7005 (스님전화)

토굴(암자)안내

- 위치 : 경북 안동시 예안면 신남리 702,701,693번지
- 평수 : 836평
- 도로, 전기, 물, 구옥, 정남향
- 금액 : 3,500만원

010-6783-2513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진주시
- 대지 평수 265㎡(80평) 2층 법당 15평, 산신각 1동 1층 요사채 27평
- 아랫체 창고 방 1개
- 산자락 및 아담한 암자
- 가액 : 융자 4천 안고 1억 2천만원 절충가능

010-8794-1257

010-6222-5835

한 옥 안 내

- 위치 : 지리산 산청 단성 IC에서 5분거리 지방도 2차선접 토지 1,700평, 한옥 50평
- 정원수 백여종 다량, 식용가능 야생초 다량 식재
- 용도:사찰, 영수원, 동호인주택, 펜션, 찻집 음식점 가능
- 주변도시 진주시내와 20분거리 하나로마트 대형마트 5분거리
- 가액 : 12억 8천만원

010-5923-3388

사 찰 안 내

- 위치: 경북 영천 청통 부근
- 총평수 465평, 현대식 건물 2동
- 1층 요사 30평 14평 2층 30평, 법당
- 단청, 주련, 현판
- 산을 끼고 아주 조용한 사찰

011-503-0517

낮 12~17시까지 전화 요망

토굴식 포교원 안내

- 위치 : 충북 진천 문백면
- 모든기도 성취 영험도량
- 평수 253평, 2필지
- 가액: 3억 (융자 1억 2천 8백만) 시세조정가능

010-5496-6417

포교원 (급) 안내

- 위치: 강원도 동해시 발한동
- 시내골목 신축아파트 주변로
- 이중담장 별장같은 단독주택
- 양도금 : 시세이하 6천9백만원 시설일체 반액 5백만원(별도)

건물주 직거래

010-8934-8259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함안군 칠북면 단내로 266
- 큰법당 32평, 삼성각 5평, 주지실 24평
- 후원 약 50평, 주차시설, 농업용 저장고
- 가액 : 가격은 절충

010-8523-9919

토 지 안 내

- 위치 : 경북 청도군 화양읍 범곡리 563번지
- 용도 : 주택, 복지사업용, 종교시설, 2차선 도로인접
- 가액 : 864평. 평당 170만원

※ 기도중 전화 못 받을시 문자 넣어 주세요 연락드리겠습니다.

- 주인 직거래 부동산 사절

010-3540-7739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영양군 석보면
- 종교부지 250평, 법당 25평, 산신각 4평
- 요사채 32평, 창고 화장실 15평
- 총건평 80평 가량, 철골 지붕 강판 기와
- 가액 : 1억 6천 절충가능
- 터밭 별도 450평, 년15만원

010-4726-6496

도심 속 작은 암자

- 위치 : 전북 전주시 진북동
- 단독 주택
- 법당 안에 화장실 밖에 화장실, 방 2개, 주방
- 가액 : 8,000만원

010-5628-9338

사 찰 안 내

- 위치 : 대구 팔공산
- 토지 457평 하우스 내
- 법당 20평
- 방 2개, 해우소 2개 CCTV, 공양간 50평
- 가액 : 토지 1억 2천 시설비 6천(융자 8천만원)
- 몸만오시면 법회 가능합니다

010-4504-7809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시 수영구 무학로 10번길 35(광안동) 광안리 최고요지
- 3층 건물 2층 50평, 법당 5존불 외
- 한자불 50불 30㎝, 후불탱화
- 방3개,주방1개,식당,화장실2개
- 가액 : 1,500만원, 월세 70만원 시설비 1,000만원

010-3884-0122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부산시 사상구 사상로
- 평수 : 20평, 3층 건물
- 삼존불 조성
- 몸만 오시면 언제든지 법회가능
- 가액 : 전세 1,000만원 월세 45만원 시설비 : 1,000만원

010-3866-5928

복층 단독주택 법당(급) 안내

- 위치 : 경북 영천시 북안면
- 대지 : 192평, 건물: 약 45평
- 1층 법당, 방2, 주방, 다용도실2, 창고, 복층 방2, 다용도실 가건물 공양간, 다용도실(신축)
- 가액 : 1억 9천 500만원 (대출 6천 포함)

010-2544-4848

사 찰 안 내

- 위치 : 창원
- 대지 125평 중 건평 100평
- 법당 35평, 삼성각, 용왕단, 호신불 650불, 인등 1008등
- 방 5개, 화장실 3개 아파트 대단지 부근
- 가액 : 3억 5천만원

010-5019-5385

사 찰 안 내

- 위치 : 대구시 달성군 현풍면 성하리 (50년된 암자, 재래시장, 정류장 10분 거리)
- 총 374평, 종교 용지, 법당, 산신각, 요사채, 화장실(등기필)
- 특징: 테크노폴리스(과학도시)
- 가액 : 2억(답사후 절충가능)

010-3536-6333

사찰터 기도원 안내

- 위치 : 경산 용성면 용천리
- 임야 : 12,000평
- 수목 : 소나무 참나무 진달래 약초, 고사리 참옻나무
- 작은 연못도 있으며 산정상으로 등산로 탐방길 되어 있습니다
- 가액 : 2억 2천

010-4953-1728

탈 종 공 고

- 주 소 : 경북 경산시 자인면 원효로 156길 43-34
- 사찰명 : 법륜사
- 주 지 : 청임 (조옥희)

상기인 사찰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28일

한국불교태고종 총무원장 법하



신 화 불 사

■ 전통한옥 철거, 매입 매매
■ 사찰 부동산 양도
■ 법당 장엄, 조각
■ **60평 법당, 요사채 (2층 가능)**
상태 A급, 맡배지붕, 저렴함
■ 7층 석탑 (500~3,000만원)
다수 있습니다.
■ 수익형 기도처 (서울)
2억 (보증금) 월 1,000만원
양도가 21억원 (잔고증명 필요)
■ 사찰부지 4,800평 (포천)
양도가 15억, 다수의 석물 있음.
■ 38평 제실 상태 A급. 가격 매우 저렴.

010-6545-2020

그외 다수의 매물 있습니다

스님들도 경영 배운다… '주지 학원' 인기

스님들 요청으로 2012년 개원
현재 수강생 스님들 500여 명
현대 경영학 관점서 운영위해
리더십 · 신도관리 등 배워

일본에서는 전통적인 사찰 운영이 아닌, 현대 경영학의 시점서 사찰경영을 배우는 '미래의 주지학원'이 인기다. '교토신문'은 2월 1일 이 새로운 학원에 대해 보도했다.

'미래의 주지학원'은 2012년 문을 열었다. 당시 많은 스님들이 "사찰의 경영도 비즈니스적인 측면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기 시작했다고 한다. 학원장 마츠모토 스님(38)은 도쿄대 철학과를 졸업한 후 인도로 유학을 떠나 MBA코스를 취득했다.

주지학원은 사찰관계자를 대상으로 연 6회의 강의와 토론을 통해 진행된다. 커리큘럼은 먼저 현대 경영학의 관점에서 사찰경영의 기초를 배운 후 각자 사찰의 존재의의를 명확하게 분석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이후 각자의 사찰에서 신도들의 의견을 모아 사찰의 가치를 생각하고 경영자로서 주지의 자리에 대한 자각, 조직을 이끄는 리더십과 방법론을 착실하게 익힌다. 사찰의 가치와 신도조직의 장단점, 강약점을 분석하는 스와트(Swot)와 법회 및 행사에 대한 마케팅 기법을 익히고 이를 직접 적용하는 것으로 마친다. 커리큘럼을 마치고나서도 수강생들이 다시 모여 실적을 발표하고 서로 의견을 모으는 것으로 더욱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고 있다.

마츠모토 스님은 "세계와 사회현상을 직접 발로 뛰면서 우리가 어디에 서있는가, 어디를 향하는가, 그 속에서 사찰은 어떤 역할을 이룰 것인가, 이러한 시선을 갖춰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사찰도, 출가자도 의미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미 주지학원의 수강생은 500여 명을 돌파해 종파와 지역, 연령을 넘어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종단차원에서 주지학원의 노하우를 적용하는 곳도 생겼다. 사찰운영의 방법을 바꾸고 싶지만 방법을 알 수 없는 불교계에 새로운 길을 제시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 1월 16일 열린 수강생들의 사찰경영 계획발표회에서는 지역과 인구, 관광자원을 포함한 사찰의 외부환경과, 사찰이 가진 유무형의 가치, 앞으로의 비전과 사찰의 사명 등이 발표되었다. 보고서에는 명확한 수치까지 제시되어 있어 각 사찰에 적용하기 쉽게 했다.



'주지 학원'서 신도관리에 대한 사찰경영 수업을 듣고 있는 스님들. 사진출처=교토신문

이날 발표자였던 키리야마 스님(45)은 "근년 산사태로 본당이 무너졌다. 재건을 목표로 하였으나 단 9세대뿐인 신도회에 차마 부탁할 수 없었다. 그러나 주지학원을 수강하고선 '본당이 없는 장점'을 살려 모두가 한데 모일 수 있게 되었고, 지역사회에 새로운 본당에 대한 아이디어 응모를 제안함으로써 사찰에 새로운 인식을 불러 일으켰다"고 발표했다. 또 교토에서 온 야마시타 스님(38)은 "사찰의 불화를 이용한 스토리 전달, 캐릭터 상품의 개발, 지역상점가들과의 연계를 통해 신도 이외의 사람들과의 새로운 관계를 쌓게 되었다"고 발표했다.

복잡한 사회현상과 경제활동이 함께하는 현대사회 속에 종교에 대한 환경이 격변하고, 그 안에서 미래를 바라보는 주지스님들의 새로운 경영법이 어떠한 결실을 맺게 될지. 앞으로의 전개가 주목된다.

박영빈 객원기자

불교를 종교로 보지 않는 서양…

"동양철학으로 전파됐기 때문"

종교로 불교를 바라보는 대부분의 동양적 사유와 달리, 서양인들은 불교를 철학으로 바라보는 경우가 많다. 이는 서양 불교 첫 전파가 '새로운 동양철학'의 형태로 이뤄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하는 기사가 나와 화제다.

미국 '듀랑고 헤럴드(The Durango Herald)'는 2월 17일 서양인들이 불교를 철학으로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 분석했다. '듀랑고 헤럴드'는 "불교가 서양에 전해진 지 약 200여 년이 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서양인들은 불교를 철학으로만 생각할까? 아마도 서양에 처음 불교가 전해졌던 방식 때문일 것"이라며 서양에 불교가 전해진 과정을 설명했다.

불교가 미국에 전해진 것은 19세기 말이다. 당시 서양에는 동양의 신비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었다. 당시 저명한 철학자와 문학가등은 불교와 힌두교에 대한 문헌을 깊이 탐구했다. 이

'동양의 신비' 관심에
수행과 철학 먼저 소개

때 불교미술에 대한 문헌이 생겨났다. 종교학자였던 폴 카루스(Paul Carus)는 1892년 〈부처의 복음(The Gospel of Buddha)〉이라는 최초의 불교교리 문헌을 출판했다. 그리고 이듬해 시카코 만국박람회에서 열린 세계종교회의에서 일본의 선승인 샤쿠 소엔(釋宗演)과 스리랑카의 불교 개혁가 아나가리카 담마팔라(Anagarika Dharmapala)가 참석하면서 본격적으로 불교가 전해졌다.

'듀랑고 헤럴드'는 "불교는 당시 일반적이던 서양의 종교와 달리 유일신을 주장하지 않았다. 또한 합리적 인식을 주장했기 때문에 근대 서양인들은 불교를 철학으로 인식했다"며 "더욱이 당시 불교의 대표로 소개된 소엔과 담마팔라가 임제선과 위빠사나 수행을 중요시한 수행자였다는 점도 일조한 것으로 보인다. 불교의 명상과 철학이 교학보다 먼저 소개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이 같은 방식의 불교 전파는 부작용을 낳기도 했다. '듀랑고 헤럴드'는 "서양서 인기를 끄는 '명상 차(Zen tea)' '럭키 붓다 맥주(Lucky Buddha Beer)' 등은 불교를 상업적으로만 활용했다. 이국적이고 이색적인 것이 이목을 끌자 신비로운 불교를 차용한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박진형 기자

무분별 방생에 생태계 혼란 '골머리'

돈벌이 수단으로 의미 와전되기도

지난 2월 14일 중국의 '팽배신문'은 하이난성(海南省)에서 대규모 방생이 이어져 생태계 혼란이 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원래 방생은 붙잡힌 동물들을 자연으로 돌려보내고 공덕을 짓는 행위이지만 실제로는 "생태계에 혼란을 야기하고, 자칭 승려라고 하는 단체가 신도들로부터 돈을 모으는 수단이 되었다"고 신문은 전했다.

문제가 된 단체는 '남해복혜방생공승군(南海福慧放生供僧群)'이라는 이름의 단체로 인터넷 블로그를 통해 "3년간 방생을 이어나가면 모든 악업이 소멸된다" "방생을 통해 공덕을 짓고 극락에 왕생한다" 등의 문구로 방생을 광고해왔다. 그러나 광고 이외의 항목은 특정 회원 외에는 볼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논란이 불거지자 해당 블로그는 폐쇄됐다.

하이난 경찰은 "하이난 시에서 대규모 방생은 위법이며, 방생되는 동물 중엔 보호종 동물인 바닷거북들도 포함되어 있어 그 출처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2월 8일 오전, 해상에서 실시된 방생을 조사한 경찰은 "이미 죽어 있는 동물들을 바다에 던지는 경우도 있었고 약 1천 마리의 생물이 한 번에 방생됐다. 이후 오후에도 같은 규모의 방생이 실시됐다"고 전했다.

방생에 사용된 동물들은 신자들이 낸 보시금에 따라 가격이 달라진다. 팽배신문이 입수한 남해복혜방생공승군의 2015년도 방생기록에는 가장 비싼 동물은 중형 바닷거북으로 한 마리에 약 60만원이고, 방생으로 얻은 소득의 최고치는 1일 8천 8백만 원을 달성한 날도 있었다. 신문은 "방생이 유행하게 되면서 이익이 창출되는 연계 고리가 생겨나고, 방생의 규모가 더욱 커졌다"고 논했다.

또 방생기록에 실려 있는 동물들 가운데엔 인공번식이 불가능한 동물들도 있어 야생동물을 포획하여 방생에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야생동물은 포획 중에 스트레스로 죽는 경우가 많고, 방생하더라도 본래의 서식지가 아닌 장소에 풀어주어 생식에 혼란을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방생이 생태계에 악영향을 준다는 목소리는 이전부터 존재해왔다. 2017년 1월 하이난성에서 시행된 '야생동물보호법'에 "야생동물을 방생할 경우 방생되는 동물과 방생되는 장소의 생물종이 공존 할 수 있어야한다"라고 지시하고 있다. 중국에서는 천여 년 전부터 방생이 유행했다. 지난해 9월엔 시내 공원에서 독사인 코브라가 방생돼 처벌되기도 했다.

박영빈 객원기자

티베트 성지 조캉사원 대형 화재

2월 17일, 원인 · 피해규모는 중국서 은폐




조캉사원 전경. 사진출처=티베트 비스타

◀트위터에 올라온 조캉사원의 화재 당시 모습 캡쳐.

티베트인들이 가장 성스럽게 여기는 곳이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티베트의 조캉사원(大昭寺)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다. 불길은 수 시간만에 진화됐으나 중국 당국이 화재 원인은 물론 피해규모 등 사건 내역을 철저히 통제해 실제 피해정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2월 18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영국 '더 텔레그래프'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 40분 쯤 중국 시짱(西藏 · 티베트) 자치구 수도 라싸(拉薩)의 조캉사원 뒤쪽에 있는 승려들 숙소 부근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조캉사원은 황금색 지붕의 사원으로 티베트 예술의 세련된 모습을 볼 수 있는 건물들이라는 평을 받아왔다. 건물 내부에는 신화와 전설 및 불교 고사를 묘사한 벽화가 가득 차 있으며 2001년 유네스코 지정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된 바 있다.

'BBC'에 따르면 이번 화재 당시 목격자들은 수km떨어진 곳에서도 불길을 볼 수 있었다고 증언했다. 또한 관련 뉴스와 영상이 중국 웨이보(微博 · 중국 SNS) 등에서 공유됐지만, 당국이 이를 삭제한 것으로 보인다고 외신들은 전했다. 중국 관영 매체인 '중국중앙티비(CCTV)'는 화재 소식을 짧게 전하면서 전날 저녁까지 모두 진화됐고 인명 피해가 없다고만 알렸을 뿐 구체적인 화재 원인이나 경내 유물 피해 여부 등은 밝히지 않았다.

이 때문에 조캉사원의 현재 상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기원후 7세기부터 지어지기 시작한 조캉사원은 부처님의 12살 때 모습을 형상화한 불상과 정교한 벽화 등을 보유하고 있고 2010년 유네스코 지정 세계문화유산에 선정됐다. 티베트인들은 조캉사원에서 오체투지순례를 하는 것을 일생의 과제로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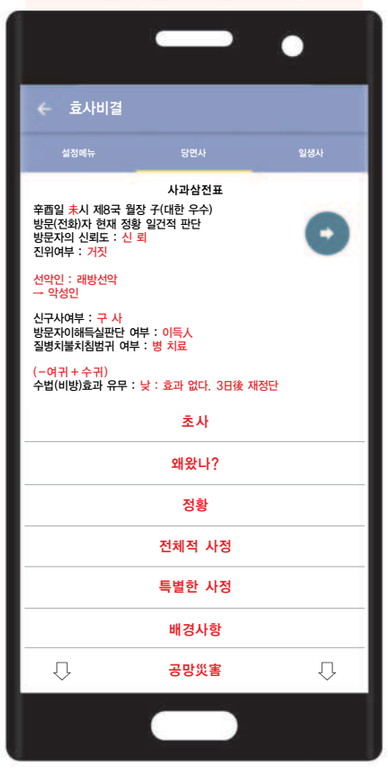
특히 조캉사원은 티베트 독립을 요구하는 시위 발생이 잦아 중국 당국이 삼엄한 경계를 펴는 곳이다. 지난 2008년엔 승려들의 독립 요구 시위 끝에 공안이 유혈 진압에 나서면서 수백명의 인명피해를 부르기도 했다. 2012년에도 중국의 지배에 항의하는 티베트인 2명이 조캉사원 앞에서 분신해 1명이 숨지는 사고가 있었다.

박진형 기자

휴대폰에 육임 CD프로그램 '효사비결 최신완결판'을 담았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사안이든 만나거나 통화하면서 당면사 27개 항목, 일생사 17개 항목을 시원하게 말해줄 수 있습니다.- 물론 정확도 · 효과성 · 신속도 · 간편성이 담보되어 있습니다.

① 육임 당면사 즉단 27개 항목



② 육임 성부판단 24개항목과 12띠별 확정



원터치 기능

- 상대의 공 · 사적 비밀 사항 적시
- 귀신 · 부정 · 산소탈 침범 여부
- 질병 치 · 불치 · 오래끔 판단
- 천도 · 시식 · 기도 효과 유무
- 대적자 처신 방침
- 묻는 사항 24개 항목 띠별 성부 표시 등등

■ 정 가 : ~~30만원~~ → 20만원 (3월 10일까지 할인)
■ 계 좌 : 기업은행 024-086103-04-019 대한불교 천기종
■ 설 치 : 입금 확인 후 10분 이내 본인 핸드폰에 설치됨
■ 참 고 : 본인 실명으로 개통된 핸드폰
■ 전 화 : 주 · 야 010-4500-5465 일과시간 02-738-8685
■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후암로 110 서울시티타워빌딩 22층

영혼의 세계(빙의)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훤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영가의 생각을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몸에 들어온 이유를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 않는다.(영가의 병이 사람에게 옮겨온 경우)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 (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빛은 영가가 천상으로 가는 길이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조상영가, 전생영가로 인해 잡귀가 들어온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 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 않고 살이 찌시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근육이 풀어지며 통증으로 고통 받는 분, 몸이 굳어지며 감각이 없는 분**, 병원 등을 수십군데 찾아 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 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 풍수에 관한 모든 것 상담 가능 ◀

천 광 수 련 원 ☎ 043)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

상상력이 효과적인 명상 이끈다



지운 스님의 **자비선 명상**

1. 자비선이란 무엇인가?

2) 깨달음 가는 地圖 명상 ③

③어른 수준의 깨달음

◎ 좌종을 친다.

○ 집으로 돌아온 후 집안의 더러움을 청소한다. 그리고 집안의 대소사를 관장한다. 부정적인 번뇌의 잠재적 성향 때문에 법신이 완전하지 못하다. 계속 잠재적 성향으로 있는 번뇌를 선정을 통하여 공성의 지혜로 제거한다. 일상생활에서는 다른 사람과 중생들에 대해서 지혜와 자비심으로 바라본다(대한다). 중생은 상호의존적 존재로 분리된 둘이 아니라는 공감의 자비와 공성의 평등지혜로써 계층 간의 차별, 성차별, 인종차별 등을 타파하고 고통 받는 중생을 돕고자 보리심을 실천한다.

즉, 어린아이 수준의 깨달음에서 벗어나는 '어른 수준의 깨달음' 은 잘못 앎이라는 꿈속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어른 수준의 깨달음' 은 밖으로 향하여 욕망대로 사는 것이 마치 여러 나라를 떠돌면서 겪은 고초를 괴로움이 아니라고 생각하며, 현실에 살고 있으며 행복하다고 느끼는 것이 착각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다. 그것이 자신이 꾸었던 꿈과 같음을 알아서 다른 사람들도 꿈속을 헤매는 것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사랑과 연민을 가지는 것이다. 그리고 그들을 도와주고자 공감능력으로 계속 노력한다. 그 노력은 꿈속의 꿈에서는 깨어났으나 아직 꿈에서 덜 깬 줄 알고 스스로 머리를 움직이고 손을 흔들어 몸부림치며 완전히 깨어나려고 하는 것이다.

④구경의 깨달음

◎ 좌종을 친다.

○ 드디어 아버지는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집 나간 자신의 아들임을 얘기해 준다. 아들도 비로소 아버지임을 깨달아 알아보고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상속받는다. 부자상봉은 본각과 시각이 만나는 것으로, 본각과 시각이 동일하며 구경각(究竟覺)임을 뜻한다. 어른 수준의 깨달음에서 벗어나는 '구경의 깨달음' 에 대하여 〈대승기신론〉은 각심초기심무초상(覺心初起心無初相)으로 구경각을 설하고 있다. 꿈에서 깨어 꿈속의 인연을 되돌아보니 꿈속에서 여기저기 떠돌면서 고초를 당한 나의 몸이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꿈을 꿀 때나 깨어났을 때나 자신은 고요히 평상(일여상, 一如床)에 누워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평상에서 한 발자국도 옮기지 않았음을 아는 것이다. 결국 깨달음은 본래 깨칠 것이 없음을 아는 것이다. 본지풍광(本地風光) 아님이 없기 때문이다.

⑤중생구제

◎ 좌종을 친다.

○ 상속받은 재산을 오로지 지각 있는 존재들을 위해 베푼다. 아버지는 완전한 깨달음이며 상속받은 재산은 바로 자비심을 뿌리로 둔 보리심이다. 보리심이라는 재산을 중생에게 베풀어 생사에서 벗어나게 하는 실천은 자비심이다. 그래서 완전한 깨달음(아버지)은 오로지 중생(아들)을 위해 보리심을 일으켜 중생 구제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깨달음의 목적이다. 깨달음은 반드시 이루어야할 법칙이다.



꽃 피고 져도 허공은 그대로
본각 변하지 않음 깨닫게 해
집 나간 자식 비유한 명상에
그림 그리며 사유를 해보자

⑥地圖 명상하기 사유와 이해

◎ 좌종을 친다.

○ 자식이 집나가서 집으로 되돌아오는 것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해본다. 첫째, 마음의 본성은 심청정하여 생사가 없어 완전무결한데 어떻게 생사윤회의 세상으로 나가는 중생이 있을까? 둘째, 왜 가출했을까? 셋째, 어떻게 집으로 되돌아 올 수 있을까? 이러한 의문에 대하여 마음속으로 사유해 본다.

◎ 좌종을 친다.

○ 마음의 본성이며 일체 모든 것인 법계는 '집 나간 자식의 비유' 로서 어떤 뜻이 있을까?

①집을 나가서 밖으로 돌고 집으로 되돌아오는 것을 반복하는 이치는 윤회의 뜻이 있으며 ②집에 도착하여 더 이상 집을 나가지 않는 것은 열반의 뜻이 있으며 ③열반과 윤회는 비롯함이 없는 무시이래(無始以來)의 뜻이며 ④일체 모든 것은 이것을 의지하고 있다. ⑤수행의 길은 각 단계마다 그 뜻이 있으며 ⑥경境(진여)-행行(수행)-과果(수행의 결과)의 처음과 중간과 끝이 모두 마음의 본성이다. 즉, 무심(無心) 공부는 마음 비우기와 마음현상 알아차리기로부터 출발하여 그 과정과 끝의 바탕까지 공함은 바뀌지 않는다. ⑦가출하여 고초를 당할 때는 무명불각이 있지만 집으로 되돌아옴은 무명불각은 착각으로 본래 존재하지 않음을 아는 것을 뜻한다. 그렇다면 왜 무명불각이 생기는 걸까? 무명불각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음을 뜻한다. 이 사실은 집나가서 중생이 되는 것은 본래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중생은 물에 뜬 달과 같이 거울의 영상같이 중생은 중생이 아니라는 것으로 모든 것은 평등하다는 것이다. 이것이 깨달음의 내용이다.

◎ 좌종을 친다.

○ '깨달음으로 가는 길의 지도(地圖) 명상하기' 의 '집나간 자식의 비유 명상' 은 본각의 집을 중심으로 들어가고 나감은 생사의 뜻이지만, 마치 허공에 꽃이 피고 져도 허공은 바뀌지 않듯이 본각의 집은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명상이다. 이것은 나무가 불에 타서 재가 되면 다시는 싹이 돋고 꽃이 피지 않듯이 더 이상 불각이 생기지 않음을 뜻한다. ⑧마음의 본성인 집은 체(體)이며 공(空)이며 불변(不變)이며 일미(一味)이다. 집나가는 것의 출발과 과정과 결과는 작용이며 비춤[照]이며 수연(隨緣)이다. 즉, 체와 용을 알게 하고 공(空)과 조(照)가 둘이 아님을 알게 한다. 그러므로 끝이 끝이 아니라 중생이 있는 한에는 보리심도 끝이 없다.

○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천천히 눈을 뜨고 죽비를 세 번 친다.

명상하는 과정의 순서와 효과

명상하는 과정은 명상에 필요한 멘트를 해줄 수 있는 분이 있으면 그 분의 멘트를 들으면서 시각화하고 사유하면 된다. 그러나 멘트를 해줄 사람이 없을 때는 자기의 멘트 음성을 녹음해서 하면 된다. 반복해서 하다보면 그 내용이 숙지되어 스스로 멘트 없이 명상을 할 수 있게 된다.

깨달음의 지도는 상상력으로 수행의 길을 시각화하여 그리는 것이다. 따라서 생생하게 그리는 것이 중요하다. 꿈속에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듯이 상상의 세계도 이와 같다. 즉, 〈유마경〉 속 유마거사의 방 같이 상상의 신통력으로 마치 그림 그리듯이 해야 효과가 극대화된다.

명상의 효과를 살펴보면 명상은 하면 할수록 명상의 동기가 더 생기며 깨달음으로 가는 길과 그 과정이 명확해진다. 그리고 이 명상을 하면 자기에 대한 인식과 자기제어와 공감능력과 커뮤니케이션이 향상된다. 뿐만 아니라 마음의 근육과 생각의 힘도 생긴다. 이 생각의 힘이 우리가 알아야할 마음의 본성을 직관으로 알게 하고 사유하게 하여 깨달음에 이르게 한다. 다음은 깨침의 수단인 생각이라는 것의 힘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생각의 힘이 명상의 수단

(1) 뇌와 기계를 연결하는 장치

모든 존재의 본성인 심청정의 열반을 이루기 위해서는 생각의 힘이 필요하다. 명상의 수단인 생각에는 어떤 힘이 있는가?

불의의 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된 환자는 다시 걸을 수 있게 되는 걸까? 척추가 마비돼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은 스스로 걷게 되는 세상을 맞을 수 있을까? 말을 못하는 사람이 생각만으로 글을 쓸 수 있게 될까? 정답은 "그렇다"이다. 2016년 8월 과학이 기적을 일으켰다. 듀크대 연구팀이 이용한 4차 산업혁명 기술은 '뇌기계인터페이스(BMI)' 이다. 뇌와 기계를 연결하는 장치(Brain-Machine Interface)를 활용해 뇌파의 생각대로 사물을 움직이도록 하는 기술이다. BMI기술 세계적 권위자인 니코렐리스 교수의 작품으로 사람이 걷거나 서는 등 특정한 동작을 하려고 생각하면 일정한 뇌파(腦波)가 나오는 원리를 적용했다.

연구팀은 브라질 상파울루 신경재활연구소에서 하반신마비 환자에게 뇌파를 읽는 모자를 씌웠다. 그리고 몸에 착용하여 입는 외골격(exoskeleton) 로봇을 착용한 채 VR장비로 풍경을 보여주며 걸어가는 상상을 반복해서 하도록 했다. 그러자 뇌파가 나오고 그 뇌파가 나오는 동안에는 외골격 로봇을 생각(뇌파)으로 조종하는 연습도 병행했다. 이 과정에서 뇌가 신경세포를 자극해 하반신에 운동신호를 전달하는 기능이 다시 살아났다. BMI장치가 잃어버렸던 운동 감각을 복원시킨 것이다. 이 훈련을 1년간 진행하자 신기하게 환자의 두 다리에 감각이 돌아오고, 운동 능력도 향상됐다. 1명은 목발만으로 걷게 되는 기적이 발생했다. 당시 재활 대상자 8명은 모두 의학적으로 재활이 불가능하다는 판정을 받았던 환자들이었는데 그 중 7명이 움직일 수 있게 되었다. 생각하는 힘만으로 로봇을 움직이고 하반신 마비를 회복시킨 것이다.

실리콘밸리의 뉴로스카이(NeuroSky)는 머리에 헤드셋을 쓰고 뇌파로 물건을 움직일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 이 기술을 활용하면 뇌파로 조종하는 게임기, 뇌파로 움직이는 장난감을 만들 수 있다. 집중력 훈련용으로 사용하면 치매나 뇌졸 증 등의 치료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뇌파를 활용해 IT기기나 자전거, 자동차를 작동시킬 수 있다. 자동차 운전자는 생각만으로 기기의 속도, 방향전환 등을 할 수 있다. 2016년 4월 미 플로리다대는 뇌파만으로 드론을 조종하는 경기를 세계 최초로 개최했다. 같은 해 7월 애리조나 주립대는 한 사람의 뇌파로 최대 4대의 드론을 동시에 조종하는 기술을 선보였다. 그리고 미국 스탠포드대학은 마비환자를 컴퓨터와 연결해 생각하는 힘만으로 정확하게 타이핑할 수 있는 기술을 시연하는데 성공했다.

〈보리마을 자비선명상원 선원장〉

KBS 과학카페 박현숙 원장 출연 (2010. 2. 6)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숙변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 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록원웰빙 02)523-0708 박현숙 원장

인터넷 검색창에서 「초록원웰빙」을 치세요.

수행도우미

미국FDA 등록인증 3009241067



발로해(두한족열양말)
노폐물 독소 쑥 빠지며
발 보들보들
발냉병 즉시 해소
법당에서 절할때 꼭 필요해요



선하트조율
하루 10분 수행으로 몸맘 행복한 조율
상·중·하 단전 차크라 열려 기운 쌩쌩!
스트레스 제로! 피로 제로!
온 몸에서 엄청난 氣감 체험



氣사라따
누구나 누워서 저절로
자동단전호흡 100%
피로회복, 氣모음 확실
환자에게 최고의 선물



휴~ 힐링베개
잠이 스르르~ 저절로
가슴답답, 우울, 수면장애, 어깨뻐근, 손발저림
목아픔, 결림, 허리 뻐근 완전해결!
이완이 스르르 저절로 와선삼매 100% 체험



보디스킨
발목,장단지,허벅지,엉덩이,등허리
목, 뒷골은 3분만 밀어도 氣통하며
정신이 맑아지고 졸림, 나른,
피로회복 즉시 해소

www.법왕정사.net
010.3487.0035

굴셀健

80ml × 60팩
13만원



지리산 다슬기 眞 골드

無색소, 無방부제, 無화학첨가물로 만들어진 다슬기 엑기스!
껍찔채 가마솥으로 재래식 중탕해 고농축 멸균처리로 누구나 안심하고 드실 수 있습니다.
신장 기능 강화에 좋은 다슬기, 간 기능에 좋은 껍질까지 들어간 2배 엑기스!

느릅나무 유근피 원액



물 맑고 공기 좋은 지리산 일대 국산 야생 느릅나무 껍질(유근피)!
가마솥에 오래 달여 진공포장해 편리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위장을 맑게! 염증은 싹~ 가라앉히는 효과!

100ml × 60팩
6만 5천원

평안할 康

제품문의 : 칠성상회 (02) 879-2007
입금안내 : 농협 1282-17-003433 (주)한메소프트
입금금액 : 지리산 다슬기 진골드 130,000/느릅나무 유근피 원액 65,000원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 대행 스님의 법문 중에서 발췌하여 답변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월드오피스텔 606호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인터넷: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FAX: (031)470-3116



대행 스님

사는 자체가 다 바로 근본에서 하는 거라고 믿고 놓아야!

(지난 호에 이어서)

그러니까 그러한 문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어떻게 하면 여러분에게 알게 하고, 어떻게 하면 순간 자기가 자기를 알게 될까 하는 생각에서 "모든 걸 놔라. 놔라." 이렇습니다. 놓지 않고는 도저히 해결이 안 납니다. 사는 자체가 다 바로 그놈이 하는 거라고 믿고 놓아야 합니다. 만약 그놈임을 믿지 않고 그놈한테 다 맡겨 놓질 않는다면 그놈은 절대 나오질 않아. 회사에서도 어느 믿을 만한 직원한테다 딱 맡기면 도둑질도 못해, 맡겼기 때문에. 그리고 더 잘해요. 그런데 맡기질 않으면은 그게 참 나오려고도 안 해요. 왜? 막아져 있으니까. 제 잘났다고 턱하니 자기가 위로 올라앉았으니, 참자기는 나오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참자기를 탄생시키기 위해서는 자기가 자기한테 머리 숙여 숭배해야 해요. 자기 조상이니까. 자기 아비라고. 겸손하게 보필하면서 자기는 믿어야 된다 이거야, 마음적으로. 그래서 믿어서 그것이 완전히 둘이 아니었을 때에, 아비가 자식이고 자식이 아비이고 말이야. 이거 왜 이렇게 되느냐. 아비면 그냥 아비지, 왜 아비이자 자식이고 자식이자 아비라고 그러느냐? 불이법(不二法)이 그러하다는 얘깁니다.

그건 왜? 그렇지 않으면 연속해서 길이 될 수가 없거든. 즉 예를 들어서 높은 일도 있고 낮은 일도 있고 아주 하(下)의 일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라고 하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없고 어머니가 없고 자식이 없다면 이건 뭐, 진리라고 볼 수도 없지 않습니까? 나라의 일도 그렇고, 모든 게 삼위일체로써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 수가 없다는 얘깁니다. 그럴 때 아버지가 아들이 되고 아들이 아버지가 되고 이러는 법은, 즉 말하자면 아버지가 일을 할 때는 아들이 아버지로 돼 주고, 아들이 일할 때는 아버지가 아들로 하나가 돼 주고, 아버지와 아들이 둘이 될지언정 결국 하나다 이겁니다. 뱀이 일할 때는 스님도 뱀이 돼 버리고 또 스님이 일할 땐 뱀이 바로 스님이 돼 버리고, 사자가 스님이 돼 버리고 스님이 사자가 돼 버리고, 코끼리가 사람이 돼 버리고 사람이 코끼리가 돼 버리고, 그게 마음은 하난데 마음이 수천수만 가지로 생각을 낼 수 있으니 그 모습조차도 바뀌지더라 이런 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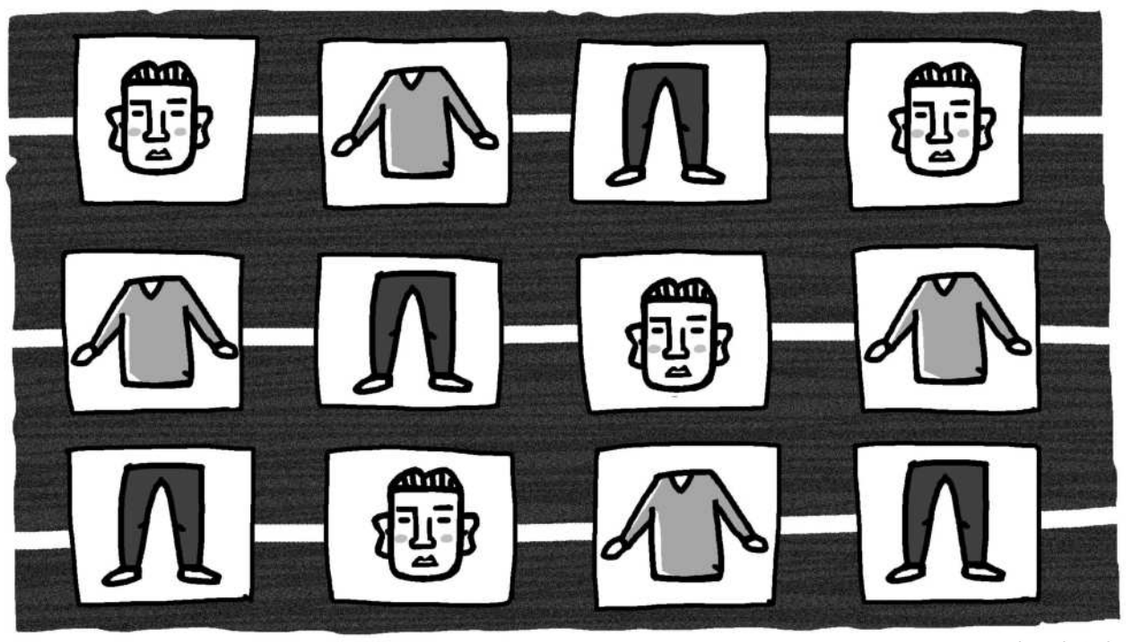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우리가 수없이 거듭거듭 거쳐 나오면서 모습을 바꿔 가지고 나온 그 자체가 바로 우리의 길입니다. 우리가 계발하고 연구하고 그러는 자연의 섭리 그 자체가 바로 우리의 스승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연의 이 토대가 바로 어디에서부터 온 겁니까? 모두들 지수화풍이 허무하다고 그러지만, 지금 지수화풍이 실질적으로 우리의 생명의 근원입니다. 지수화풍이 없으면은 지금 우린 꼼짝도, 아니, 생겨나지도 못했죠, 응.

지금 다른 혹성에도 이런 게 있죠. 우리 지구에도 그렇지만 법망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 지구에도 망사처럼 이렇게 큰 둘레로 돼 있는 법망이 있습니다. 그 법망으로 인해서 전체가 같이 이렇게 돌아가고, 바깥으로 표시가 돼 있는 것도 있다는 얘깁니다. 즉 말하자면 핏줄처럼 돼 있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과학자들은 이것이 어디로 해서 어떻게 나가는지 다 알지 못합니다. 법망이 보이지 않는 데 법망이거든요. 조금이나마 바깥으로 표현된 것도 천체망원경으로 봤기 때문에 표현된 거지 육안으로 그렇게 보이는 게 아니죠.

그러면은 육안으로는 볼 수 없는 그것을 바로 우리가 현세에 이렇게라도 볼 수 있게끔 나온 것이 어찌 과학이 아니겠느냐는 얘깁니다. 우리는 볼 수 없는 그 자체 속에서 분자에 의해서 생명이 되고, 그 생명에 의해서 진화가 되고, 이렇게 자꾸자꾸 나투면서 우리는 지금 한시도 머물러 있지 않고 빛을 발하면서 활발하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돌아가고 있다는 얘깁니다. 그러면서도 자기가 그런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구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끊임없이 돌고 있는데, 지금 이 안에서는 우리가 지금 그렇게 가고 있다는 걸 전혀 생각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전혀 생각지 못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만 알았지 그것이 지금 어디로 어떻게 돌고 있는지 그런 것은 모릅니다.

그러면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전에도 얘기했지만 이 몸뚱이 속의 생명들은 지금 내가 저기 갔는지 여기 왔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알고 있나.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배 속의 오장육부 세포에서도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왔다고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묘법이 아니겠습니까?

아무도 없는데 내가 도둑질을 했어도 누가 알겠느냐 하겠지만 이 배 속의 생명들이 오죽이나 많습니까? 다 알고 있습니다.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죄 알고 있으니, 우주간 법계에서 다 이건 그냥 파다하게 알게 됩니다. 그러니 이거 거짓을 할 수가 있습니까? 거짓을 하더라도 '거짓 아닌 거짓을 해라' 이겁니다. 즉 말하자면 남을 위한 거짓이라면, 부모를 위한 거짓이라면, 자식을 위한 거짓이라면 거짓이 아닙니다. 그건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좀 더 이것을 잘 음미해 본다면 이 보이지 않는 데에 진출하는 이런 마음은 부처님 법의 경을 읽고 또 이론으로 알고 또 물리를 안다고 해서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제 아무리 잘 안다고 하더라도 한번 내가 집어 먹을 줄 모른다면 그건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한번 집어 먹을 줄 알고 남을 줄 줄 안다면, 자기 죽는 거, 이 옷 벗는 거를 그렇게 뭐, 대단하게 생각 안 합니다. 이 자리 저 자리를 육신으로 다니며 하려면 그게 얼마나 하겠습니까? 옛날에는 사람이 몇 안 되고, 칼이나 창이나 활이나 또는 대포를 가지고 해도 싸움이 됐지만, 지금은 안 됩니다. 시대가 시대니만큼 사람도 많이 생겼을 뿐 아니라, 사람의 머리도 그만큼 깨었고, 그만큼 과학적으로 발달이 됐고, 문명으로나 모든 걸로 봐서는 지금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아니 되죠. 그런데 이 공부하는 사람은 한 술 더 떠서 공중에서 싸운다 하더라도 그것마저도 커버할 수 있고 앞장설 수 있는 대인이 되시라 이겁니다. 이파리 하나 가지고 군사를 몇백 명이라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기르라 이 소립니다.

그런데 뭐가 언짢고 귀찮을 게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너무 소극적으로 생각하고 너무나 인간살이를 어렵게만 생각해서 그런데, 고통을 아무리 받는다 하더라도 이것은 내 주인으로부터 나를 형성시켜서 여기까지 끌고 왔으니 부와 자가 하나가 된다면 무엇인들 못하겠습니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마음은 하나인데 마음 내는 거는 수억만 가지입니다. 수억만 가지가 한마음으로 들고, 한마음에서 수억만 가지가 난다 이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묘법이고 광대무변한 자신의 보배를 자신들이 가졌습니까? 그러니 그렇게 수억만 명을 만들어서, 이 우주를 덮게끔 할 수도 있어. 지금 모습 없는 모습들이 각 혹성에서도 바라고 있으니까. 모습 있는 생명들도 많지만, 모습 없는 생명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마 헤아릴 수가 없을 거예요. 그거 헤아릴 수 없을 거예요, 아마. 그것이 다 친구라면, 무서울 게 뭐 있고 두려울 게 뭐 있겠습니까?

그리고 소도 사람을 처음 봐서 아무것도 모를 때 사람 마음을 거기 줬을 때에는 그 소가 '아하! 이 마음이 이러니까….' 하고 그냥 마음에 따라서 같이 알게 돼요. 전체를 아는 게 아니라 그 범위 내에서만. 그러기 때문에 길을 따라 준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위대하죠. 사람은 전체를 알고 있는데, 짐승은 부분적으로 자기가 생각해서 알고 있는 거 그것뿐이거든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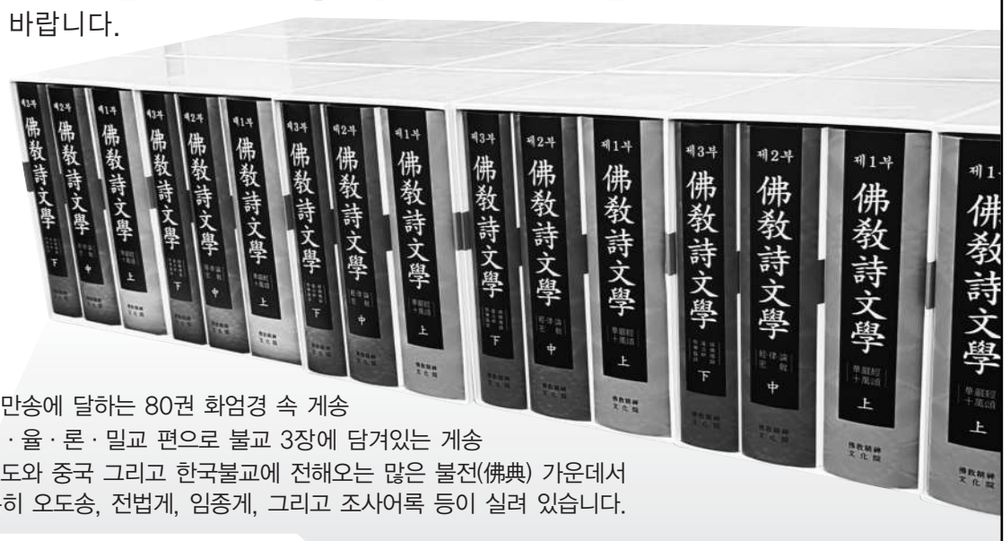
그러니 나라에 어떠한 문제가 있다면, 예를 들어 공산주의 나라가 독재로 다스려서 이익이 뭐 있느냐 하는 것도 있지마는 우리가 앞으로 계발을 한다면, 또 모든 에너지를 같이 이렇게 평등하게 만든다면, 어떤 문제라도 뛰어넘을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아마 3, 4년 전 얘기일 겁니다. 나는 중공이든지 소련이든지 어디든지, 민주화로 좀 이렇게 같이, 물을 좀 갖다 섞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그런가? 앞으로도 우리가 마음을 그렇게 섞지 않는다면 살기가 희박하다는 문제입니다. 전부 계발하기도 희박하고, 또 불국토를 가져오는 것도 희박하고, 또 앞으로 연구하는 데도 큰 절망이 따르고 있습니다. 또 생명체들이 잘 살 수도 없고요.

언젠가는 우리가 멸망할 수도 있는 문제들이 마음이 너그럽지 못해서 생길지도 모른다. 그러니 마음이 너그러워야, 썰물 밀물이 같이 혼합을 해야 살 수 있는 기대를 품을 수 있고 또 지혜가 나오고 물리가 터지고, 불국토도 이룰 수 있는 거죠. 과학도 더 나가서 연

☞ A18면으로 계속

불교시문학(佛敎詩文學) 上 中 下 강의

활안스님의 『불교시문학 상 · 중 · 하』 출판을 계기로 불교시문학 강의를 계획하였습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 상권 : 십만송에 달하는 80권 화엄경 속 게송
■ 중권 : 경 · 율 · 론 · 밀교 편으로 불교 3장에 담겨있는 게송
■ 하권 : 인도와 중국 그리고 한국불교에 전해오는 많은 불전(佛典) 가운데서 특히 오도송, 전법게, 임종게, 그리고 조사어록 등이 실려 있습니다.

강의내용 및 시간

■ 상권 (월 1회) : 매월 4째 토요일 오후 2시 ~ 4시 (3월 24일 개강) / 화엄경 게송 강의
■ 중권 (주 1회) : 매주 월요일 오후 1시 ~ 4시 (3월 5일 개강) / 아함경 ~
– 강사 : 활안 한정섭 스님
※ 불교시문학은 (사) 한국불교금강선원에서 구입 가능합니다. (각권 정가 5만원)

(사) 한국불교금강선원 | 문의 02)969-2410. 969-4981

(사) 한국불교 금강선원 학인모집 안내

- 직장에서 가정에서 불교 교리 학습 -

불교통신대학 · 대학원

◆ 대학장, 대학원장 : 서무선

발심을 하고도 시간상, 거리상 제약으로 부처님 공부를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없는 불자들을 위해 통신과정을 마련하여 각자의 근기에 따라 학습 진도를 조절하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통신교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통 신 대 학 : 기초과, 중등과, 고등과, 대학과 (각 6개월 과정 – 2년)
◇통신대학원 : 경, 율, 론, 선, 밀교 (대학원 – 각 1년 과정)
◇원서 접수 및 교부 : 수시접수

- 강원 교육 -

나란다삼장불교대학

◆학 장 : 성 덕

강원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스님과 출가를 원하는 불자 및 초심자를위하여 의식을 포함한 기초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 모집학과 : 사미과, 사집과, 사교과, 대교과 (각 6개월 과정)
◇ 원서교부 : 2018년 1월 15일 부터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 개 강 : 2018년 3월 7일 화요일
◇ 교 수 진 : 활안 한정섭스님, 호암스님, 서무선 박사님 외
◇ 출가수행, 사암, 포교원운영 행정지원
◇ 출가 수행자를 위한 기숙사 완비

- 범패 · 작법무 -

불 교 예 술 대 학

◆교 수 : 해 사

불교예술의 계승 발전과 지도자 양성을 목적으로 교육하는 불교예술대학에서는 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해사스님을 교수로 초빙하여 불교예술의 진수를 배울 수 있다. 불교예술의 관심을 가지고 배우고자하는 학인들의 좋은 기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강의내용 : 신중작법, 상단불공의식
◇원서교부 : 2018년 1월 15일 부터
◇수업시간 : 매주 목요일 오후 3시 ~ 6시
◇개 강 : 2018년 3월 8일 목요일

서울시 동대문구 청량리 1동 51-14 www.kumgangnet.com 전화 02)969-2410, 969-4981 / 팩스 02)964-2433

내 마음이 아는 걸 우주법계에서 다 알고 있습니다

☞ A17면에서 계속

구할 수 있는 문제가 생긴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죽이는 것이 원력이 아니라, 서로 둘이 아니게 교류를 맺게 하고 인연을 맺어 주고, 좋은 방향으로 끌고 나가는 이것이 진짜 능력이라는 얘깁니다. 원력이 있다고 해서 어느 나라를 죽이고, 어느 나라를 살리고 이러는 게 문제가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나 자기 앉은 자리 딱 지키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누구나가 자기네 집 지키지 않는 사람 여기에 한 분이나 계신 거 보셨습니까? 하루 종일 다니다가도 자기네 집으로 들어갑디다, 모두. 거기는 꼭 지키더군요. 어디 나가서 여관에 가 자도 내 집이 있다는 건 꼭 지키더군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이러한 공부, 이러한 도리를 배우지 않으면은 절대로 살기가 어렵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자식들을 낳고 키워도 그 애가 스스로 밝은 길을 걷도록 가르칠 때, 말로 하고 때리고 욕하고 그래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스스로 내 전화통이 있고 그 애 전화통이 있는 이상, 내가 그 애 번호를 자식이라고 알고 있는 이상, 그거는 억만 년이 지난다 할지라도 둘이 아니기 때문에 길을 인도할 수 있다는 얘깁니다. 그 뿌리에다가 많은 에너지를 다 넣어도 넣은 사이가 없이 스스로서 밝아서 스스로서 길을 올바르게 갈 수 있다는 얘기죠. 누가 일부러 그 손을 끌고, 욕을 하고 때리고 그래서 갑니까?

각본대로 여러분 사시죠? 여러분이 그 게임 속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창살 없는 감옥에서 벗어날 수 없으니깐, 어쩔 수 없이 각본대로 자기에게 주어진 대로 사는 거 아닙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대로 각본대로 돼 있는 거를 벗어나려면은 그만한 고초가 없이 어찌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어어! 이 절은 뭐 이상해." 그러죠? "뭘 놓으래? 사랑도 돈도 다 놓으면 어떻게 살라고?" 이렇게 미거한 소린 하지 마세요. 사랑도 돈도 다 그 속에 있는 건데 누가 하지 말라나요? 하되, 내 것이 아니라 내 것이다 이 소립니다. 자기 게 아니라 자기 거다 이겁니다. 여러분이 똑바로 그것을 잘 아신다면은 자기는 관리인으로서, 시봉자로서, 자기의 시봉자로서 올바르게 함으로써, 또는 시봉자는 주인에게 "너는 차가 고장 났으면 올바로 고쳐서 끌고 다녀라!" 이렇게 하라 이 소립니다. 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운전수가 없어도 안 되고, 차가 없어도 안 되고 기름이 없어도 안 돼요. 하나라도 없어선 안 돼. 생명이 없어도 안 되고, 분별이 없어도 안 되고, 마음 내는 게 없어도 안 돼. 또 마음 내는 게 없어도 안 되지만, 육신이 없어도 안 돼. 그러니 세 개 중에 내가 높다고, 어떤 게 높다고 하겠습니까? 높은 게 하나도 없어. 통틀어서 그냥 일심(一心)이야. 일심이 들고 나는데, 삼세심(三世心)이 그냥 들고 나. 삼세심이 일심이요, 일심이 삼세심이라. 과거심(過去心)도 미래심(未來心)도 현재심(現在心)도 그냥 일심이야, 통틀어서.

앞으로 우리에게 당장 시한에 닥치는 일들, 그냥 아슬아슬하게 넘어가는 일들…. 어떻게 돼서 그렇게 아슬아슬하게 넘어갈 수 있었겠나. 박 대통령 당시에도 아슬아슬한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왜 그렇게 됐는가. '그렇게 되려니까 그렇게 됐지.' 이러는 것보다도, '그렇게 하니깐 그렇게 됐지.' 하는 겁니다, 모두가. 그것이 둘이 아닌 까닭에 그렇게도 될 수 있는 거고 저렇게도 될 수 있는 거지마는, 우리의 마음먹기에 달렸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식도 내 자식이지마는 너무 남한테 해롭게 하고 그래서 열 번만 그렇게 끌려가 보세요. "그 새끼는 내 새끼 아냐. 가만 둬, 잡혀가거나 말거나." 이렇게 해 버립니다. 열 번을 타일렀는데도 열 번을 붙잡혀 간다면 그렇게 될 겁니다. 문제가 바로 그런 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환경에 따라서 그렇게 주어지는 건데, 환경에 따라서 그렇게 주어지더라도 중심은 있어야 된다는 얘깁니다.

중심이 흔들리면 안 돼! 집이 비면은 남한테 채여! 환경에 따라 가다 보면 그만 흔들리고 중심이 없고 집이 비게 돼요. 그럼 그 집에 남이 들어서서는 내 집이라고 하거든. 그래서 달마 대사가 "내가 잠시 어디 갔다 오니깐 내 집에 누가 들어왔더라. 그래서 나는 집이 없어서 비워 놓은 딴 집에 들어가서 털보가 됐다." 이런 말이 있죠? 그거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그 사람이 그렇게 됐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이 한 가지 벌어졌으면, '어! 그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말을 했나?'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달마 대사가 그 사람이고, 그 사람이 달마 대사로 몸이 바뀌었습니까? 왜 바뀌었느냐 이겁니다. 달마 대사는 재주가 그만큼 없어서 바뀐 겁니까? 남의 집을 뺏을 줄 몰라서 뺏긴 겁니까? 그러면 그만큼 공부해 가지고도 집 뺏길 정도라면, 집을 뺏기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쳤다면 그건 달마 대사 자격이 없죠, 하기야. 그런데 말입니다, 그걸 가르치느라고 말씀을 그렇게 해 놓으셨다는 거를 생각해 보십시오. 바꿀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걸 들었으면 한번 음미해 보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이 마음의 도리로, 이렇게도 이끌고 저렇게도 이끌고 할 수 있는 거, 여러분이 가난해서 아주 살 수가 없는 사람이라도 그 도리를 안다면 나물죽을 먹고도 껄껄 웃을 수 있는 그 능력, 그것이 멋있는 겁니다. 그렇게 좋을 수가 없는 겁니다. 고기반찬에 잘 먹고선 그냥 흐드러지게 좋아하는 것보다 참 얼마나 멋있는 줄 아십니까? 그 맛이란….

여러분이 여기 스님들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이 여러분을 먹이기 위해서 여기 갖다 놓습니다. 그러면 좋고 좀 더 맛있는 거는 여러분과 같이 공양을 하고, 좀 더 후진 거는, 또 후진 것도 없는 사람한테는 사실 후진 게 아닙니다. 그거는 너무나 감지덕지죠. 그래서 이것은 천차만별로 나눠 주죠. '스님네가 심부름하기가 이렇게 어려운지 미처 나는 몰랐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너무나 어렵구나! 이렇게 중노릇하기가 어려운 줄은 내가 애당초에 생각을 못했구나!' 그것도 내가 생각한 것 아니겠는가, 어렵다는 것도. 그러나 어렵다는 거는 어렵지 않기 때문에 어렵다는 거를 생각하게 됐다. 왜? 내가 그건 어렵다고 생각할 게 없어. 나 하는 대로 그냥 꾸준히 그냥 뚜벅뚜벅 가면 되는 거니까, 저 물 흐르듯이.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을 잘 쓰느냐 못 쓰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어떻게? 아까도 얘기했듯이 내 마음이 아는 걸 우주법계에서 알고 있는데, 그게 무서워서 내가 마음대로 못하는 건 아닙니다. 그것은 철칙이기 때문입니다. 남이 알든 모르든 그건 상관이 없어요. 내가 알고 있는 게 그게 괴로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괴롭지 않게 살아라 하는 얘깁니다.

남이 두렵고 남이 무서워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내게 괴로움을 가져오는 거고, 내가 편안하기 위해서 여러분한테 그렇게 하는 거죠. 어떤 때는 참, 부모도 없고 불쌍한 애들, 어떤 때는 등록금도 못 내고 그럴 때는 말이죠, 참 그런 거 누가 좋아합니까? 누가 주었다는 거 말해도 좋아하지 않을 겁니다. 남의 체면도 있지. 그럴 때 그냥 내주면서도, 그것은 내가 괴로우니까 내가 마음 편안하려고 주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내 마음 편안하자고 나 사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편안해야 내 마음이 편안하기 때문에 '중노릇하기 참 어렵구나!' 하는 겁니다.

어떤 때에는 빚을 내서 시주를 한다고 가져온 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도로 줄 때가 있죠. "야! 누가 빚 내 가지고 오랬어?" 그러고 주면서 "네가 괴로우면 내가 괴로워! 난 괴롭기 싫어. 이게 이자 늘어 가면 내가 죽겠어. 당신이 죽겠는 것보다 내가 죽겠어. 그러니까 난 이거 안되겠어. 갖다 갚아. 심부름 좀 해!" 이럽니다. 내 심부름 좀 하라고 그래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없는 사람은 절에 와서 부처님을 친견 못하고, 없는 사람은 부자가 될 수 없다 하는 조건이 붙어 있는지 그것 좀 잘 생각해 보세요.

없는 사람이나 있는 사람이나, 아픈 사람이나 안 아픈 사람이나 어떤 스님네들은 "병 고치는 게 중인가?" 이러는 사람이 있고 "그건 이단이다." 그럽니다. 이단이 아니라 일단이라도 좋다 이거야. 그거는 당장 내가 아프고 내가 귀찮으니까 하는 거지, 내가 일단 되기 위해서, 정법 되기 위해서 이런 공부 한 게 아니다 이거야. 내가 아픔을 겪어 봤고, 내가 내 아픔과 둘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아프지 않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지, 내가 부처 되기 위해서 이 공부 한 게 아니야. 하려고 해서 한 게 아니야. 자연의 섭리야, 이건. 누가 뭐라면 어때요?

내가 겪어 보니까, 이렇게 살아 보니까 야, 참 아픈 것도 누가 대신 아파 주지 않고요, 똥이 안 나와도 대신 똥 눠 줄 사람도 없고요, 허허허, 참 피곤해도 누가 대신 피곤해 줄 사람도 없고, 누가 대신 울어 줄 사람 없습디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렇게 내 아픔처럼 아프고 불쌍하고, 정말 뼈아프게 아픈 때가 많아요. 그런 분들이 방에 들어와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합니다.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어서 가십시오." 이럽니다. 왜? 내가 아픈 거를 내가 빨리 어떻게 어떻게 낫게 하려고 말입니다. 아프기 때문입니다. 얘기 듣기만 하면 됐지 뭘 내가 더 말할 게 있습니까, 괴로운데. 그 사람은 그렇게 괴로워하는데. 모든 게 나 괴롭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빨리 나가라고 그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뭣이 좋아서 자꾸 얘기할 맛이 나겠습니까? '어떻게, 처리를 어떻게 하나.' 하고선 좀 잠시라도 이렇게 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변소 안에 가서도, 어떤 사람은 무슨 부처가 변소 안에 있느냐고 그러더군요. 예전에 두루마기를 입고 변소에 그냥 들어갔습니다, 급하니까. 야단법석이 났습니다. 두루마기를 입고 어찌 변소 안에 들어갔느냐 이겁니다. 그때에 어린 마음에도, 지금처럼 나이나 먹었으면 그냥 픽 웃고 말았을 텐데, 그때는 그냥 입이 근지러워서, 허허허. 그러니깐 좀 모자랐죠. "아니, 우리가 변소 안에 드나드는데 부처가 변소 안에 없다고요?" 아, 요렇게 되받았지 뭡니까? 허허허. 그리고 그 스님한테도, 아유, 모자란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저도. 그때 몰라서 그랬죠. "당신에게는 반밖에는, 반절밖에는 못하겠소." 허허, 이랬거든요. 그 왜 그랬나? 그때는 너무 삐죽하고 빳빳하고 아주 눈에 불이 펄펄 날 때니까. 그때는 그렇게 너그럽게 벼이삭이 숙여질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알면서도,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다 이겁니다.

또 무슨 표창장을 주면은, "뭐 잘했다고 상장 줍니까?" 이러고, 아,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건데 뭐 스님네들이 날 뭘 주느냐 이거야. 그러곤 그 자리에서 박박 찢어 버리는 그런 행태. 그러니깐 몹시 나빴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그러나 그런 과정 없이 어떻게 벼이삭이 첫 번부터 익을 수 있느냐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이 있어도 '저게 바로 내 모습이야!', '저게 바로 나야!' 이렇게 됩니다. 내가 만약에 그렇게 안 해 보고 그렇게 겪어 보지 않았더라면…. 그분들이 다 스승이야, 내 밑거름이고. 그러니까 그걸 받아 줬지. 안 받아 줬어도 거름이요, 받아 줬어도 거름이에요.

어떤 한 큰스님은 너무 너그럽게 날 받아 주시고 불쌍히 생각해 주시고, 아주 나이 어리다고 그냥 남몰래 아껴 주셨습니다. 그런데 남들이 욕을 합니다. 저 노장은 저 하치않은 애한테 저런다고 말이야. 그러니까 누룽갱이 한 조각이라도 몰래 주느라고, 세상에! 이 마음밖에 더 무서운 게 없어요, (주먹을 쥐어 보이시면서) 마음! 아무리 거대하고 잘나도 그런 마음을 나눌 수는 없는 겁니다. 이 마음이 얼마나, 죽으나 사나 마음이라는 게 얼마나 귀중한지 모릅니다. 그랬던 고로 그 분들은 죽지 않았다고 봅니다. 또 여러분은 앞으로 죽는다고 보십니까? 여러분도, 사람이 진화돼서 다시 모습을 바꿔 가지고 나올 뿐이지 죽지 않는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오늘의 차원이 바로 내일의 차원이요, 또 내일이 오늘입니다. 오늘은 이걸로써 마치겠습니다.

참자기를 탄생시키기 위해서는
자기가 자기한테 머리 숙여 숭배해야 해요.
자기 조상이니까. 자기 아비라고요.

※위 법문은 1987년 2월 15일 정기법회에서 설법하신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N D YouTube G 검색창에
대통인을 치세요!
인터넷동영상강좌 평생교육원 대통인.com
온라인 인터넷 동영상강의보기 사이트
수강상담 전화
1661-6551
(24시간 접수중)

인터넷 동영상 수강 과목

명리학	구성학	기문둔갑
매화역수	천문지리풍수	수상
육효	육임	주역
타로	물상명리	풍수지리
성명학	수맥	팔체질
꿈해몽	생활풍수	사자소학

-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공부해서 좋다.
- 역학의 모든 과목을 실력있는 강사에게 배운다.
- 누구나 저비용으로 반복하며 전 과목을 공부한다.
- 누구나 공부하면 빠른시일내 사업에 나설 수 있다.

N D YouTube G 검색창에
대통인학술원을 치세요!
오프라인강좌수강! 전국공개강의 알리미 사이트 대통인학술원.com
오프라인 인터넷 공개강의보기 사이트 (자격증 취득과정)
수강상담 전화
1833-9551
(24시간 접수 중)

현재 오프라인 수강생모집 과목

과 목	강사명	개강일	수강시간	강의시간	월수강료	비 고
구 성 학	박창원	3월13일(화)	14-17시	3개월	20만원	교재제공
자연물상 사주명리	지정도	3월14일(수)	13-15시 16-18시	3개월	15만원	교재제공
유니버셜 타 로	차두성	3월14일(수)	10-12시 14-16시	3개월	15만원	교재제공
주 역 점	장호철	3월15일(목)	14-16시 19-21시	3개월	15만원	교재제공
		3월18일(일)	12-14시			
마르세유 정통타로	조미정	3월16일(금)	14-16시 17-19시	2개월	20만원	교재제공

- 컴퓨터나 핸드폰에서 대통인학술원을 치시고 들어가셔서 공개강의 공지를 자세히 보세요.
- 주소 :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3가 222번지 흥도빌딩 3층 301호 (지하철 2. 5호선 영등포구청역 4번 출구 30m) (자가용 → 영등포구 구의회옆 당산공영주차장 이용)

만트라 염불소리치료 명상 센타
기에너지 음악치료 명상
무료공개 강좌 : 매월 셋째주 일요일 낮 12시

미래의 대체의학인 기공(밀교의 의성신 · 금강신)을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닦아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이롭게 하고 제도하는데 원력을 세워서 수행 정진 하실 분

- 입 문 : 초보 입문자의 기맥을 직접 열어주고 발공능력까지 갖추는데 3~6개월(주1회 특별수련)
- 고 급 : 개인의 기공능력을 아무 부작용 없이(주화 입마, 상기병 등등) 키워나가면서 단기간에 최고의 경지에 이르고자 하는 분(비법 전수)
- 특 징 : 제6차크라(제3의 눈 · 뇌의핵심〈송과체〉· 인당)가 단기간에 몸이 바뀌면서 온 몸에 신경세포가 전부 살아 움직이고(피부호흡) 머리에서 부터 발끝까지 온 몸에 24시간 강력한 전류가 흐르며(기에너지체) 고요하고 편안한, 몸이 완전히 이완된 상태에서 부작용 없이 자연스럽게 뚫리고 열려 나감

■ 개인지도(면접 상담 후 결정) ■ 등록번호 : 138-50-00260
■ 문 의 : ☎ 02-393-8027 (기공치료 예약 접수)

제6차크라 열리기 전·후 비교사진

기공치료 명상가 처명(선광) 스님
-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선학과 응용선학 박사과정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 졸업
-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 졸업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 남부 구치소 교정위원, 前 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2015년 8월 4일


2017년 1월 9일

※ 페이스북에서 'Sung Ho Park'(처명선광) 검색

만트라 염불소리치료 명상 연구소 (소장 : 처 명)

| 현불 논단 |

시대 맞는 불교출판 절실하다



최종남
중앙승가대 교수

문체부 조사서 독서율 첫 50%
지속적 감소… 일 · 학업이 이유

불자 독서율은 '비상등' 인 상황
불교인구마저 줄어 더욱 암담해
학술 · 문화 전반에 영향 미칠 것

e-북 이용 증가, 전자 출판 고려
시대 · 세대 맞춤형 佛書 발간해야
사찰별 도서관 운영도 확대 필요

문화체육관광부의 '2017년 국민독서실태조사' 에 의하면 성인들의 연간 도서 구입량은 4.1권이며, 독서율은 59.9%(2016년 65.3%)이다. 그리고 선호분야는 '문학' (23.7%), '장르소설' (13.0%), '취미 · 여행 · 건강' (10.9%), '철학 · 사상 · 종교' (10.3%)의 순이다. 이 조사에서 '한국인의 책 읽기' 가 심각한 경고등이 켜졌다라고 분석하고 있다.

이와 같이 도서 구입과 독서율이 해년마다 줄어드는 큰 이유로서는 '일과 학업이 바빠서' 이다. 직장인들은 업무에 시달리고, 학생들은 입시와 스펙 쌓기, 취업준비 때문이다. 그리고 스마트폰과 초고속인터넷에 의해 언제든지 다양한 정보 검색이 가능해지고 흥미로운 여러 텍스트들을 접하게 되면서 독서에 대한 습관과 인지도가 떨어지는 것이 또 하나의 큰 이유라고 할 수 있겠다.

이와 같이 일반 사회에서는 도서 구입과 독서율이 '경고등' 이 켜졌다고 하지만, 불교계에 있어서 불서 구입과 독서율은 '경고등' 을 지나 '비상등' 이 깜빡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와 같은 상황은 1998년의 IMF와 함께 급격히 진행되고 있다. 이 상황을 불교계 관계자들은 방관하지 말고, 직시하고 분석하여 현재와 미래의 대안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에 의하면 불자 수는 현재 761만 명(15.5%, 2005년 1,058만명)이며, 조계종의 경우 출가자수는 연간 500여 명에서 현재는 150여 명 내외로 감소하였다. 즉, 불서를 구입하고 불서를 읽을 사람들이 그 만큼 감소했다는 의미다. 이 불자들 중에서 또한 신도층의 고령화로 인하여 불서 구입과 독서율이 감소하고, 그리고 사회에서 불교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 불서를 판매?구입하는 일반인들이 급격히 감소하므로 인하여 '비상등' 이 켜졌다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불교사상, 수행, 문화, 예술 등에 대한 지식과 정보제공의 부재, 그리고 학술적의 저술과 출판이 안 되어서 한국불교학연구의 질적 저하로 이어지게 될 수 있을 것이다. 〈잡아함경〉에 "과거, 미래는 현재 속에 존재한다"라고 설하고 있다. 이것은 곧 현재 속에 과거와 미래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 경구에 의하면 한국불교의 불서출판, 문서포교는 과거와 현재가 미약하므로 미래의 불자수, 출가자수, 사회의 신뢰도는 더욱 더 낮아질 것이다.

이와 같은 비상등의 상황에서 한국불교 및 출판계에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먼저, 대학의 도서관에서는 매년 '종이책' 보다 '전자책(e-북)' 의 이용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청소년층을 대상으로 하여 정보통신기술(ICT) 시대와 세대에 맞게 불서 전자책 출판을 권한다.

또한, 불교출판문화협회에서는 각 지역의 대형서점과 본 · 말사 등을 순회하면서 불서 소개 및 저자들과의 만남 등을 주최하여 다가가고 함께하는 이벤트를 개최하였으면 한다.

불교사상 · 수행 · 명상 등에 대한 지식과 정보 습득, 문서포교, 그리고 평온한 쉼터 및 힐링의 공간으로서 각 사찰마다 하나의 공간을 제공하여 도서관(실)을 운영하였으면 한다.

한정된 경전, 수행, 기도 불서들을 출판하는 것보다도 불교출판문화협회에서는 시대에 맞고, 세대에 맞는 구독자의 입장에서 다양한 주제와 내용들이 수록된 불서를 출판하였으면 한다.

이와 같은 제안들은 단순하게 불서 출판의 비즈니스적으로 언급한 것이 아니다. 앞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한국불교의 미래, 포교, 지식 · 정보제공, 불교학연구, 그리고 한국인의 마음 평온들을 위함이다.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한국불교 종단들의 행정적 협조와 불교출판 관계자들의 변화와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불교 및 사회에서 원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스님들의 법력에 의한 불서들이다.



특별기고
김광식 동국대 교수

불교, 3 · 1운동 100주년 준비하자

3 · 1절이다. 3 · 1절은 1919년 3월 1일, 전국 방방곡곡에서 우리 민족이 다 함께 '만세', '대한 독립만세' 를 목청껏 불렀던 역사를 기리는 날이다. 역사적인 그날, 우리 민족은 남녀노소, 종교, 이념 을 넘어 빼앗긴 나라를 되찾으려는 정신으로 만세를 불렀다. 그리고 민족 독립의 당위성을 발표하였으니, 그것이 바로 3 · 1독립선언서였다.

3 · 1운동은 서울에서 시작되어 전국으로 파급되었다. 나아가 중국, 러시아 등의 교포들도 만세를 불렀다. 불교의 스님들도 3 · 1운동에 동참하였다. 민족대표(33인)로 한용운 스님과 백용성 스님이 활동하였고, 한용운 스님은 독립선언서에 3 · 1정신인 공약삼장을 추가하였다. 그리고 동국대 전신인 중앙학림 스님들은 탑골공원에서의 만세시위에 참가한 후, 출신 사찰로 가서 만세운동을 파급시켰다. 그 후 일단의 청년 승려들은 상해 임시정부, 만주 독립군에 망명하여 독립운동을 지속했다.

또 사찰의 스님들은 독립운동에 필요한 군자금을 암암리에 지원했다.

올해로 3 · 1운동이 일어난지 어언 99년이 되었다. 오랜 세월, 각박한 세태, 급격한 서구화로 인해 그동안 3 · 1정신은 퇴색되었다. 불교의 종단, 사찰, 스님, 단체에서 3 · 1정신을 찾으려는 움직임은 거의 없었다. 그래서 99주년 3 · 1절을 맞아 몇가지 내용을 제언한다.

첫째, 태극기를 달자. 태극기는 우리 민족과 나라를 상징하는 국기이다. 우리의 역사, 정체성이 태극기에 담겨 있다. 민족과 나라를 위해 희생한 애국지사들의 정신이 태극기에 담겨 있다. 각 가정에 달아야 하겠지만 스님들과 불자들은 사찰에도 태극기를 달아야 한다.

둘째, 3 · 1운동 100년 기념 사업을 준비하자. 내년은 3 · 1운동의 100주년이 되는 해이다. 천도교, 기독교는 3 · 1운동 100주년 행사를 5년 전부터 준비했다. 다양한 행사, 자료집 발간이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 불교에서는 그런 준비 작업이 매우 부진하다. 다행히 조계종단 사회연구소에서 준비를 하고, 최근 일부 성과물이 나왔다. 불교의 저력에 걸맞는 준비를 하자.

셋째, 호국불교와 민족불교를 다시 보자. 한국불교의 정체성은 호국불교, 민족불교에서도 찾을 수 있다. 외적의 침략으로 나라가 위태로운 지경에서는 스님들이 나섰다. 이는 불교 실천 차원에서, 그리고 공동체(국가) 및 구성원(중생, 대중)을 구제(보호, 수호)하려는 정신에서 나왔다. 그래서 우리는 서산대사, 사명당을 구국의 영웅으로 자랑스럽게 기억한다. 일제에게 나라를 빼앗겼을 때에도 한용운, 백용성, 김법린, 백성욱, 최범술 등 많은 스님들이 독립운동 대열에 참가했다. 호국불교의 부정성(권력과 결합)으로 인해 비판을 가한 시절도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호국불교와 민족불교의 진정성을 보고 재평가를 하자.

3 · 1정신을 찾지 않으면 불교는 종교라는 울타리에 갇힌다. 그래서 3 · 1정신을 다시 찾아 민족과 나라를 끌어안고 보다 넓은 광장으로 나가자.

社 說

금강대 변화 물결 기대한다

금강대 신임총장에 송희연 前 KDI 원장이 선임됐다. 앞서 한광수 총장의 막말 파문과 이준원 총장의 취임 두 달만의 사임 등으로 오랜 기간 리더의 부재를 겪은 금강대이기에 변화의 물결을 바라는 천태종 안팎의 기대가 높다.

송희연 신임총장이 본지 단독인터뷰서 밝혔듯이 금강대는 현재 위기상황이다. 학제 개편은 1~2년 단위로 이뤄져 학생들이 혼란을 겪었고, 지난해 직원들은 총장의 불통과 독단적 운영에 문제제기를 했다. 또 교수협의회는 이 같은 혼란 상황에서도 문제를 타개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지 못해 금강대의 위상은 땅에 떨어졌다. 게다가 이 시기는 대학구조개혁평가 D등급의 오명을 벗기 위한 준비가 이뤄진 때여서 악재가 겹쳤다. 송 총장의 어깨가 무거울 수밖에 없는 이유다.

그럼에도 송 총장은 금강대의 위기상황을 감추지 않았다. 솔직하게 인정하고, 구성원들이 함께 지혜를 모아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병은 알려야 빨리 낫는다' 는 그의 지론은 더 이상 부끄러움에 움츠러들지 말고, 현실을 인지해 개선하자는 구성원 독려로 읽힌다.

15년 전, 금강대는 전액장학금 지원과 해외연수 등 파격적인 장학제도로 문을 열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며 당시 파격적이었던 혜택은 더 이상 파격적이지 못한, 조금은 흔해진 제도가 됐다. 학령인구의 급감을 감안하면 학교 경쟁력은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

금강대는 학생 개개인부터 직원, 교수까지 모두가 기관장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임해야 한다는 송 총장의 역설을 귀담아 듣길 바란다. 빠르지 않더라도 한걸음씩 옛 위상을 되찾아가는 지혜의 길이 열리길 기대한다.

불교웹툰 증가, 이젠 플랫폼 개발을

최근 불교문화를 활용한 다양한 웹툰이 선보이고 있다. 영광군은 2월 18일 영광의 백제불교 최초 도래지, 불갑사 등을 주제로한 웹툰을 공개했다.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영광의 문화를 소개하는 웹툰이지만 불교문화를 알리는데도 활용가능하단 평가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은평구청도 3.1절을 맞아 독립운동가 백초월 스님의 활동을 거장 이현세 작가와 함께 웹툰으로 그려 공개한다.

지자체에서 주도적으로 나서고 있지만, 조계종 포교원 또한 포교 전법 차원에서 올해 웹툰 작가들을 대상으로 템플스테이를 여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웹툰과 게임 등 다양한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 불교문화를 활용한 사례가 늘고 있다. 문제는 이를 담아내는 플랫폼이 불교계에 없다는 점이다.

가령 불교 웹툰을 그려낸다고 하더라도, 네이버와 다음 등 주요 포털이나 전문웹툰 사이트를 뚫을 수 밖에 없다. 영리적인 목적을 하는 플랫폼에서 종교적인 웹툰이 자리잡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기독교계는 이미 '갓피플' '다이아툰' 등 기독교 소재를 활용한 웹툰을 게재하는 플랫폼이 마련돼 있다. 웹툰 뿐만 아니라 이모티콘, 그래픽 등도 쉽게 구할 수 있다.

현재 스마트폰 보급이 애플의 앱스토어 플랫폼에 자유로운 앱개발자들이 앱을 등록하면서 이뤄졌다는 점에서 불교 웹툰 개발 뿐만 아니라 웹툰을 대중들에게 전하는 플랫폼에도 이제는 불교계가 관심을 가져야 할 때다.

대중들에게 사랑을 받는 불교 웹툰이 나오기 위해서, 또 불교문화콘텐츠 발달을 위해 플랫폼 개발에 나서야 한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발행인 : 혜도 대표이사 : 박종수 편집국장 : 김주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 구 지 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512-5003
전 북 지 사 : (063)910-8977
부 산 지 사 : (051)405-9402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 주 지 국 : (054)634-3429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禪農敎團 우리불교 曹溪宗

종정 홍산 현불

종도모집

◦ 총본산 : 충남 부여군 세도북로 149번길 32번지 마강사
◦ 총무원 : TEL 041)832-4153 / FAX 041)833-4154

세계불교종단연합회(WBOA)
불교 국가간 문화 교류를 통한 힐링 불교의 재 탄생으로
더 큰 불교 세계를 이루고자 종단 참여를 공고합니다.
문의 041)832-4153 / H·P 010-6478-1569
응화세존 3천 4십 3년 음 10월 1일
WBOA 총재 영공 도성 (부산 태종사)
회장 홍산 현불 (우리불교조계종 종정)



입종안내

1) 입종 구비서류
◇ 사찰 및 승려 등록 신청서 1통
◇ 주민등록증 앞 · 뒤 사본 1통 ◇ 반명함판 사진 3매
◇ 법당사진 안 밖 각 1매(사찰등록 하실분에 한함)
◇ 승려증 발급 하실 분은 필히 타종단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첨부
◇ 도첩은 본 종단에서 수계를 받을 분에 한하여 발급합니다.

2) 입종 후 발급 증명서
◇ 승려증 (법사증 · 포교사)
◇ 사찰 등록증
◇ 주지 임명장
◇ 추대장 및 위촉장 (간부스님에 한함)

(宗)선농교단 우리불교 조계종에서는 도제양성과 포교에 함께 할 사찰 및 종도님을 모십니다.

나
또한
세상을
바꾸는
힘

밝음과 어둠이 동시에
공존하듯이.....
당신의 반쪽은 이미
깨어 있는 붓다와
공존 중입니다.
.....지금 바로
〈깨달음 종교〉에서
발견하세요

깨달음종교
팔만대장경을 6강사상으로 압축하다.
BTN불교TV의 각설하고를 이 책에 담다.
팔만사천 법의 덩어리를 관찰하고 이 책을 쓰다.
저자 진귀장자

제1강 사성제 제2강 법화사상
제3강 반야사상 제4강 유식사상
제5강 화쟁사상 제6강 화엄사상

※ 전국서점 및 인테넷서점에서 구입 할 수 있습니다

Daum 진귀장자 검색
NAVER 깨달음산문 검색

•문 의 : 1899-9532



자리이타로 제주불교 이끄는 자비보살들

道伴의 향기 태고보현봉사단

이병철 제주불교신문 기자

나눔장터 등 제주지역 봉사 선봉

태고종 제주교구 종무원 산하

'자리이타' 위해 2000년 창단

제주불교대 졸업생 중심

김장담기 · 경로잔치 대표봉사

목욕 · 배식봉사 등 다양

경로잔치 〈부모은중경〉 실천

찬 바닥에 자며 육개장 준비

'제주를 불국정토로' 원력

자리이타(自利利他), 자신도 이롭고 다른 사람도 이롭게 하는 것. 대승의 보살이 닦는 수행이다. 자리이타를 원만하고 완전하게 수행한 이라면 그를 부처라, 보살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모든 이들이 그와 같이 살아갈 때, 그 곳을 불국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제주도를 불국정토로 만들겠다는 원력으로 모인 이들이 있다. 태고종 제주교구 종무원(종무원장 · 지원) 산하 봉사신행단체인 태고보현봉사단(단장 · 박영순, 이하 봉사단)이다.

제주지역 봉사의 선봉

"소외된 이웃들을 위하영 쓰염쑤다(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쓰입니다). 인형 하나에 100원, 겨울부츠가 1000원, 겨울점퍼가 5000원. 싸우다. 혼저들 왕 구경헙써(빨리 와서 구경하세요)."

봉사단의 단원들 목소리가 매서운 한파를 녹이며 쩌렁쩌렁하게 울린다. 지난 2월 3일, 제주시 야구장 동측 주변에서는 '중고물품 무상교환과 나눔장터'가 열렸다. '나눔장터'에 나온 물건들은 제주 고유의 이사철인 신구간(1월 25일~2월 1일) 중에 배출된 중고물품을 제주시와 제주시나눔장터위원회가 공동으로 수집한 것들이다. 신구간은 제주의 고유한 풍습으로 제주 사람들은 이 기간에 이사를 하거나 집을 수리해왔다. 타 지방 이주민들이 늘어나면서 신구간의 의미가 예전 같지는 않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이 시기에 이사를 하고 집수리를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버리는 물건들이 배출되는데, 제주시와 제주시나눔장터위원회가 공동으로 이를 수집하여 필요한 사람들에게 저렴하게 다시 판매하는 것이다. 그리고 100여 명의 최대 회원 수를 자랑하는 봉사단이 그 선봉에 선다.

장이 열리자 의류와 가구, 가전제품 등 중고물품을 구입하려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일부 물품은 장이 선 지 1시간여 만에 모두 팔려, 일부 시민들이 아쉬워하기도 했다.

이날 봉사단 단원들은 옷을 찾는 어르신에게 알맞은 옷을 찾아드리고, 손님들에게 물건에 대해 설명을 해주는 등 장터를 찾은 시민들의 눈과 손이 되어 주었다. 단원들의 친절함에 장터는 훈훈했고, 시민들의 돌아가는 발걸음은 가벼웠다. 그리고 이웃을 돕기 위한 모금함에는 시민들의 온정이 담긴 성금이 쌓여갔다.

박영순 단장은 "최근 넘쳐나는 쓰레기로 제주도가 몸살을 앓고 있는데, 이 같은 나눔장터를 통해 재활용에 대한 우리사회의 인식이 변화됐으면 좋겠다"면서 "신구간에 나온 물품을 방치하면 모두가 쓰레기인데 물건도 새롭게 쓸 수 있고 소외된 이웃도 도울 수 있으니 일거양득이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서 걷힌 수익금은 나눔장터위원회가 결연을 맺고 있는 이웃들에게 돌아가게 된다.

봉사는 수행

봉사단은 나눔과 봉사를 통한 자리이타행을 실천하기 위해 지난 2000년 7월 8일 창단됐다. 나눔장터를 비롯해 도내 사찰과 복지시설은 물론 하천 정화활동, 김장김치 나누기, 복지시설 점심공양 등 다양한 영역에서 부처님의 자비정신을 실천하고 있다. 특히 종무원 산하 제주불교대학 졸업생을 중심으로 구성된 봉사단은 정기법회와 수련회, 성지순례 등을 통해 신심을 키우는 한편, 단원 간의 화합과 결속을 다지고 있다.

창단 2년 뒤인 지난 2002년 11월에는 비영리 민간단체로 등록해, 사찰 및 교계 복지시설 봉사에 머무르지 않고,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찾아가고 있다. 그로 인해 봉사단의 그 명성은 불교계 뿐 아니라 도내 전역에 알려져 있다.

어느덧 봉사단이 창단된 지도 18년이란 세월이 흘렀다. 그 오랜 세월이 흐르는 동안 단원들의 봉사는 쉼 없이 이어졌다. 매주 월요일 제주도노인복지관 배식봉사, 매주 목요일 제주태고원 목욕봉사, 매달 첫째 주 금요일에는 미타요양원 등을 찾아 시설 환경 정화를 하는 등 봉사단의 자리이타는 쉬지 않고 이어져왔고, 단원들은 봉사를 번뇌를 물리치는 수행으로 삼아왔다.

6개 분과로 나누어 봉사활동을 소화하는 단원들은 "봉사하면 봉사할수록 자신이 더욱 즐겁고 행복해진다"고 말한다. 그 말속에서 베풂을 통한 자비와 화합의 정신이 묻어난다. 수행으로 마음을 밝히고, 베풂으로 이웃을 도우며, 화합으로 하나 된 봉사단의 지난 18년은 이제 역사가 되어가고 있다.

지난 1월 24일 취임한 박영순 신임 단장은 "땀 흘려 봉사하면 몸이 고되고 힘들 것 같아도 봉사에 참여하는 동안 그 봉사로 다른 사람들이 행복하고, 즐거운 마음을 갖게 되는 모습을 보며 더욱 힘이 나고 저 스스로가 행복해 진다"고 말했다.

제주불교대학을 5기로 졸업하고, 2001부터 봉사단에서 활동하며 봉사단의 중심에 서온 박영순 단장은 "6개 분과가 한 달에 한 번씩 정기 법회를 갖고, 다시 봉사현장에서 땀을 흘리며 봉사에 전념하는 동안 더 끈끈한 유대가 이뤄진다"며 "단원들은 봉사에 대한 열정이 남다르기 때문에 단원들이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응원하는 게 단장인 제가 해야 할 일이다"고 취임 소감을 밝히기도 했다.

또한 박 단장은 신심도 남달라 "불교신행을 통해 가정이 편해지고 마음이 행복해지니 이 보다 좋은 일이 어디 있겠는가"라며 "부처님 만난 것이 가장 큰 공덕이다"고 말한다. 그래서 인지 100여명에 이르는 봉사단원 가운데는 박 단장의 자녀가 함께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어 더욱 화제다. 박 단장의 자녀인 안은숙 씨는 제주불교대학 25기(현재 44기 재학 중)로 봉사활동에 참여해왔다. 육아와 직장일로 잠시 쉬었다가 이번에 활동을 재개하는 안은숙 씨는 어머니인 박 단장에게는 큰 힘이 되고 있다.

연말의 행복 '자비실천 김장김치 담그기'

봉사단을 이끄는 두 개의 수레바퀴는 바로 연말 '김장김치 담그기'와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일일찻집을 개최해 그 수익금으로 교계 복지시설을 찾아가는 '경로잔치'다.

B2면에 계속

INSIDE

B3
현견 스님의 중국 선문화 기행
대승삼매선법(염불선)이
초창기 선종에 미친 영향

B5
문화
리뷰/이호신 화가 화문집
〈근원의 땅, 원주 그림순례〉

B6
학술 · 문화재
상반기 주목할 박사 논문들
'대행선사의 관법에 관한 연구' 등

태고보현봉사단은?

나눔과 봉사를 통한 자리이타행을 실천하기 위해 2000년 7월 8일 창단된 봉사단은 태고종 제주교구 종무원 산하 제주불교대학 졸업생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 이어 2002년 11월 비영리 민간단체로 등록해 도내 사찰과 교계 복지시설 등에 대한 봉사에 머무르지 않고 제주 도내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직접 찾아 자비행을 실천하고 있다.

매년 연말이면 자비나눔 김장김치 담그기를 통해 도내 11곳의 복지시설의 김장을 전하는 한편 격년제로 일일찻집을 통해 마련된 수익금으로 '효 실천을 위한 찾아가는 경로잔치'를 개최한다. 100여 명의 단원들이 6개 조로 나눠 봉사하는 봉사단은 매주 월요일 제주도노인복지관 배식 봉사, 매주 목요일 제주태고원 목욕봉사, 매월 첫째 주 금요일 미타요양원서 환경 정화 등의 노력봉사를 펼치며 마음의 번뇌까지 닦아내고 있다.



2017년 12월 봉사단이 제주 태고원에서 김장담기 행사를 펼치고 있다.



미타요양원서 어르신 중식 공양 봉사하는 단원들.

"봉사는 번뇌 물리치는 수행"



박영순 단장

'태고보현봉사단' B1면에서 계속

"신행 통해 가정 평안·행복"
박 단장 모녀 함께 단원
매년 김장 2천 포기 보시
3월, 일일찻집 효 실천 등
"우리는 천수천안의 보살" 서원
108배 등 평소 수행 진력

지난 2002년부터 매년 12월 중순이면, 도내 11곳의 사회복지시설에서는 봉사단이 담근 김장김치를 받고자 찾아온 주민들로 붐빈다. 정다운 인사말을 건네며 봉사단이 전하는 김장김치에 복지시설 관계자들의 마음도 흐뭇해진다.

태고복지재단 산하 제주태고원 앞마당에서 열리는 행사에는 김장김치 2천여 포기를 담가, 소외된 이웃들에게 전달한다. 그 현장은 복지시설 관계자 이외에 이를 격려하기 위해 방문한 도내 대덕 스님들과 신행단체, 불자들로 잔칫집 같은 분위기를 연출한다. 방문하는 손님들마다 단원들이 금방 버무린 김치를 나누며 훈훈한 시간을 보낸다.

이 같은 축제분위기는 동이 트기 전부터 부지런히 움직인 봉사단 단원들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 16년이란 세월이 증명하듯 김장김치 담그기를 통해 이웃돕기에 나서고 있는 단원들은 이제 김치공장 한 개 쯤은 지을 수 있을 만큼 김치만큼은 베테랑이다.

홍수열 前 단장은 "단원들은 스스로 자신이 어떤 역할을 얼마만큼,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제 더 이상 말하지 않아도 안다"면서 "단원들의 정성이 바로 그 맛으로 이어지는 것이다"고 했다.

물끄러미 옆에서 지켜보던 박영순 단장은 "자비실천의 장인 김장김치 담그기는 태고봉사단원들이 만들어가는 축제입니다. 이 축제는 지역사회와 함께하고 있어 이웃의 밝고 맑은 웃음이 피어날 때 봉사단원들은 신이 납니다. 김장김치 담그기 축제에는 많은 개인과 봉사단체들이 참가해 도움을 주시신데, 고맙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을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김장김치로 더 많은 이웃들에게 맛있는 겨울 밥상이 되길 바랄 뿐입니다"고 말했다.

〈부모은중경〉 실천하는 '경로잔치'

자식 위해 평생을 바친 어르신들. 여든을 넘긴 나이지만 정신만은 또렷하다. 하지만 생각만큼 움직이지 않는 몸 때문에 전복죽을 얹은 숟가락이 앞치마에 주르륵 흐른다. 이를 본 태고봉사단원이 급히 어르신을 말끔히 닦아 드리고, 뜨거운 죽을 식혀드린다.

20여 년 동안 몸에 배인 자비심이며 이타심이다. 어르신을 향한 정성에 어느새 단원과 어르신은 모녀와 같은 애틋함이 싹튼다. 어르신은 죽한 그릇을 뚝딱 비워내고 "잘 먹여주난 잘 먹었져(잘 먹여주니 잘 먹었다). 고맙다"고 했다. 뜻하지 않는 말에 단원은 "어르신, 오래 오래 사십서예(사세요)"라고 답한다.

태고봉사단은 3월 일일찻집을 개최, 그 기금을 모아 '효실천을 위한 찾아가는 경로잔치'를 개최한다. 도내 태고복지재단 산하 제주태고원과 미타요양원을 찾아, 시설 어르신들에게 공양을 올린다. 태고봉사단원들은 그동안 경로잔치를 교계 복지시설은 물론 지역 경로당 등 어르신들을 한 장소에 초청, 흥겨운 공연으로 어깨춤도 같이 추고, 맛난 점심공양과 푸짐한 선물로 어르신들을 공양해왔다.

홍수열 전 단장은 "하지만 각 읍·면·동의 어르신들을 한자리에 모신다는 게 참으로 힘겨웠다"면서 "동사무소 사회복지사들의 협조가 절대적이었는데 사회복지사들이 주말에 경로잔치 장소에 어르신들을 모신다는 것도 난감해 했던 것도 사실이었다"고 그동안의 소회를 밝혔다.

그래서 태고봉사단원들이 직접 교계 복지시설 어르신들을 찾아뵙기로 한 것이다. 홍수열 전 단장은 "어르신들도 즐겁고, 우리도 즐거운 봉사활동이 바로 찾아가는 경로잔치였다"면서 "정기봉사활동을 펼치는 제주태고원과 미타요양원에서의 경로잔치는 〈부모은중경〉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수행의 장이다"고 말했다.

조건 없는 베품을 실천하는 보살들

이처럼 태고봉사단의 단원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조건 없이 베품을 실천하는 관세음보살들이다. 그 단적인 예로 태고복지재단 산하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관(관장·휴완)에서 주최하는 '제주특별자치도 경로당보치아대회'에서 점심을 공양 올린다. 제주특별자치도 전역에서 모여든 1천여 명의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밥한 끼를 대접하기 위해 단원들은 행사장 시멘트 바닥에서 하룻밤 잠을 자야하는 것도 개의치 않는다.

제주전통음식으로 배지근한 맛이 일품인 '육개장'을 준비하는 단원들은 3일 전부터 재료를 준비하고 육개장을 내놓아야하기 때문에 행사장인 한라체육관 입구에 천막을 치고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서 하룻밤을 지새워야 한다.

태고봉사단 단원들의 희생과 봉사가 있었기에 도내 각 지역에서 찾아온 경로당 어르신들이 온기 없는 도시락 대신 정성이 가득 담긴 공양을 드실 수 있는 것이다. 그렇기에 제주도노인복지관장 휴완 스님은 단원들 칭찬에 침이 마르지 않는다. 그 고마움을 전하고 싶었을까. 제주도노인복지관의 추천으로 지난해 10월 서울에서 열린 제11회 전국노인자원봉사대축제에서 홍수열 전 단장이 보건복지부 유공자 표창을 수상했다. 홍 전 단장은 "개인 표창이지만 단원들의 노력 덕분에 수상하게 되어 기쁘다"면서 "앞으로도 도내 어르신들이 '팔팔구구' 하는 그날까지 우리는 천수천안의 관세음보살이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수행으로 한 해를 갈무리하는 단원들

김장김치 행사를 갈무리하고 12월 말이면 태고봉사단원들은 지도법사 스님이 주석하는 사찰을 찾아 한 해를 점검하는 수련회를 갖는다. 지도법사 스님은 "봉사단체라고 해서 봉사만 잘한다고 최고가 아니다. 불자라면 봉사에 수행정진이 더해질 때 발전이 있고, 삶에 모진 풍파가 닥치더라도 이겨낼 수 있다"고 단원들에 말한다. 단원들이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온 말이지만 단원들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가슴에 새긴다.

단원들은 108배, 신묘장구대다라니 독송, 관음정근 등을 통해 단원들은 늘 마음에 번뇌가 쌓이지 않는 불자가 될 것을 다짐한다. 그리고 관세음보살을 부르며 천개의 눈과 천개의 손으로 소외된 이웃들을 돌보는 천수천안관세음보살로 화현하겠다고 스스로 서원한다. 이처럼 단원들은 연말의 수련회를 통해 자신의 몸과 마음을 정화하고, 좋은 에너지를 만들어내면서 밝은 기운으로 새해를 맞는다.

일찍이 태고봉사단원들은 불보살님의 혜명을 받들어 자비정신으로 이 제주섬을 불국정토로 실현하고자 했다. 아직도 복지의 사각지대에서 힘겨운 삶을 살고 있는 이들에게 몸과 마음을 기꺼이 바쳐, 희망의 빛이 되어주는 불자들이 되길 기대해 본다.

신흥사 운암승려 노후수행관 입주 안내



사회복지법인 운암원에서는
승려 노후복지를 위한 비구니 전용 노후수행관을 개원합니다.
아래의 혜택으로 안내하여 드리오니 문의 바랍니다.

생활 의식주 (사부대중으로서 공동제공)

- 선원, 화엄학림 운영 (서예실, 화실, 도서실, 다실 등)
- 매월 (음, 7일) 원로큰스님 초청법회
- 전기, 상수도, 냉난방 세탁 (무료제공)
- TV 43인치, 드럼세탁기, 냉장고, 에어컨, 전기쿡탑 (제공)
- 생활 필수품 (무료제공)
- 스님 출입시 부산역, 공항, 고속터미널 (승용, 승합 제공)
- 월 1회 온천 및 성지순례 (제공)
- 유선 전화기 기본요금 (무료제공)
- 월 40 ~ 50만원 및 타선원 방부시 대중공양 일백만원 지원
- 수행관 입주자 일반의료비, 중증의료비, 암 치료 등 (무료지원)
- 수행관 내 노후자 편의를 위한 승강기 3대
- 상시 승복(법복) 무료 제공
- 객실 / 실내 도반과 함께 입주 가능
- 승납(법납) 및 세속나이 관계없이 1차 입주는 가능함
- 수행관 주변 : 백병원(종합) 승용 3분거리 / 지하철 도보 10분 / 시내버스 종점 도보 3분거리 / 공원, 대학, 고등학교, 산책로
- 남덕유산 무위사 심신수련원 매년 거주(한철) 가능 (대한불교조계종 제7교구본사 등록예정)
- 사후 사찰내 식장, 무위사 다비장 부도탑 49재, 사중제사 (단, 유언장에 따라 정리함)
- 입주자 : 전국 비구니스님 (60세 외 관계없이 가능)

대한불교조계종 신흥사
주지 정일 성범 합장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가야공원로 77-20
사찰전화 : 051-891-3776
문의전화 : 051-895-3400. 010-6783-1208

중국 선종 역사와 함께한 염불선



현견 스님의
중국 선문화 기행

④ 대승삼매선법(염불선)이 초창기 선종에 미친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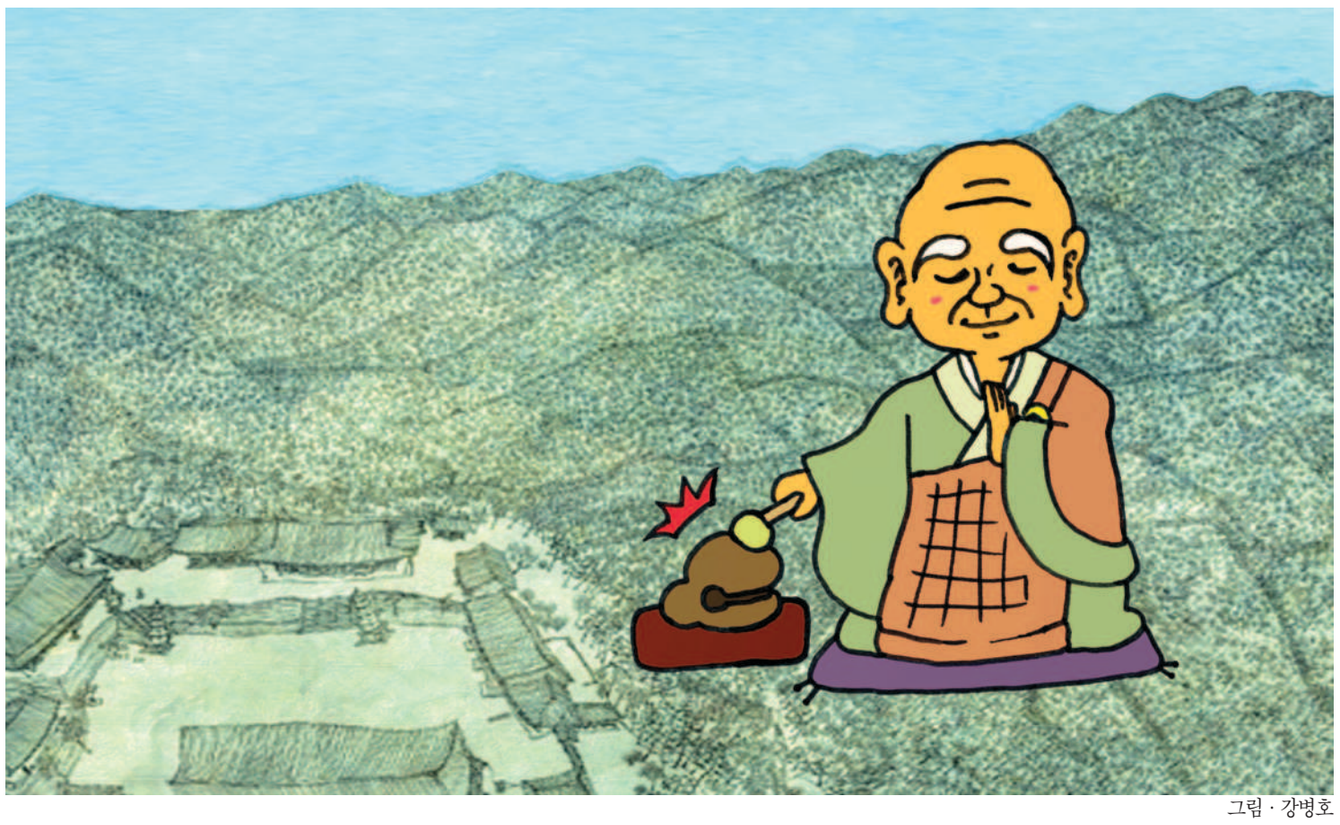


그림 · 강병호

염불선법은 초창기 중국불교에서 매우 중요한 수행 방편 중에 하나였다. 특히 염불삼매는 대소승의 수행시기를 거치면서 중국에서 뿌리를 내리게 되었다. 또 각각의 시대를 지나면서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 했다. 이 염불삼매 수행법은 중국 초창기의 선종은 물론 이거니와 후대 선종에도 많은 영향을 주면서, 선종의 역사와 함께 지금도 면면히 이어져 오고 있다.

대승삼매는 염불로 인해서 定(삼매)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공통된 주장이다.(여기서 달마선법 내지 중국의 선종에서 주장하는 것과는 수행과정에서 약간의 차이점이 존재하는 것 같다) 당나라 때 도작(道綽)이 지은 〈안락집(安樂集)〉에 보면 "만약에 보리심 가운데 염불삼매를 행하면 일체 악신, 일체 모든 장애가 이 사람에게 나타나지 않으며, 가는 곳마다 모두 장애를 없애고 막을 수 있다. … 이 염불삼매는 일체 삼매 중에 왕이 되기 때문이다."고 했다. 〈문수반야경(文殊般若經)〉에서도 "일행삼매에 들어가고자 한다면, 반드시 조용한 곳에서, 모든 산란한 뜻을 버리고, 모양을 취하지 말고, 일심을 놓지 않고 부처님을 염하되, 오로지 명자만 칭하면, 과거 현재 미래 제불들께서 나타나신다."고 하고 있다. 〈대지도론〉 에서도 "염불삼매는 대복덕이 있다. 때문에 능히 중생을 제도할 수 있고, 모든 보살이 이것으로 중생을 제도하고자 한다. 모든 나머지 삼매는 이와 같은 염불삼매의 복덕이 없다. 또 모든 죄업을 신속하게 소멸하게 한다."고 하고 있다. 즉 염불삼매 공덕에 대한 내용으로, 염불삼매도 역시 일반적인 수행과 같이 많은 공덕을 지니고 있다는 의미이다.

달마가 전한 선법은 원래는 '벽관안심(壁觀安心)' 법이다. 때문에 염불삼매와는 크게 다르다. 다만 4조 도신대에 이르러서 〈능가경〉은 물론이거니와 〈문수사리반야경〉을 더 첨가해서 의지했다. 〈문수사리반야경〉은 실상염불을 주장하는데 "이와 같이 일행삼매에 들어가는 자는 항상 제불법계의 차별상을 모두 안다."고 설하고 있다. 한편 도신은 〈능가경〉과 〈문수사리반야경〉에서 수립해 제정한 염불방편을 의지하기도 했다. 즉 실상염불(實相念佛)과 유심염불(唯心念佛)의 합일이며, 동시에 염불과 성불의 합일이기도 하다. 도신의 선법의 강령은 '심정즉불(心淨卽佛), 불즉시심(佛卽是心)' 으로서 후대 선종의 '즉심즉불(卽心卽佛)' 의 시효라고 할 수도 있다. 그는 〈인도안심요방편법문(人道安心要方便法門)〉에서 "나의 이 법요는 〈능가경(楞伽經)〉의 모든 불심이 제일이라는 것을 의지 했으며, 또 〈문수사리반야경〉의 일행삼매(一行三昧)는 곧 염불하는 마음이 곧 불(佛)이고, 망념이 곧 법부이다."고 하는 것을 의지 했다고 했다. 〈문수사리반야경〉에서 일행삼매(一行三昧)는 염불 삼매의 일종이라고 했다. 실제로 일행삼매는 바로 '법계일상(法界一相)', '계연법계(繫緣法界)' 이다. 만약에 '일행삼매' 를 성취하고자 한다면 '법계의 무차별상' 으로써 지속적으로 생각(念)을 놓지 않고 성취하는 삼매이다. 즉 도신은 '일행삼매' 를 달마선으로 도입하였기 때문에 '동산법문' 의 특색이 되었다고 한다.

염불삼매 역시 큰 공덕있어
실상염불과 유심염불의 합일
혜가~혜능 모두 염불도 방편으로

사실 도신 문하는 대부분 이 특색을 계승하였다. 예를 들면 정중선(淨衆禪)의 무상 스님이 선법을 전개할 때 "먼저 인성염불(引聲念佛)을 가리켜서, 기를 다하고, 염을 끊고 소리를 멈춘다." 고 했다. 즉 염불을 활용한 선법이라는 것이다. 종밀은 〈원각경대소초(圓覺經大疏)〉에서 당시 중국 선종의 각 지파에 대해서 평론하기를 "북종은 번뇌를 털고 청정을 보고, 방편으로 경전을 통용한다(拂塵看淨, 方便通經)고 했고, 정중종(淨衆宗)은 삼구 용심으로 계정혜를 삼았다(三句用心爲戒定慧)고 했고, 보당종(保唐宗)은 교를 행하되 집착하지 않고 식을 멸했다(教行不拘而滅識) 고 했고, 홍주종(洪州宗)은 촉하는 것마다 도이기 때문에 마음에 맡긴다(觸類是道而任心)고 했고, 우두종(牛頭宗)은 본래 일이 없고 정을 잊는다(本無事而忘情)고 했고, 하택종(荷澤宗)은 적지는 체를 가리키고, 무념으로 종을 삼는다(寂知指體, 無念爲宗)고 하였고, 선습종(宣什宗)은 향을 전하는 것을 의지해서 부처님이 존재한다(藉傳香而存佛)고 하였는데, 선습종을 곧 '남산염불산선종(南山念佛山禪宗)이다."고 칭하기도 한다. 여담이지만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석두종의 평가가 빠져있다.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다. 사실 〈단경〉에서도 "만약에 일체처 행주좌와에, 오직 직심(直心)으로 동하지 않으면 도량이 정말로 정토를 이룬다. 이 이름이 일행삼매이다."고 하고 있다. 물론 이 〈단경〉이 원대에 지어진 종보본으로 이미 많은 첨삭을 당했기 때문에 처음의 의미와는 다를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의도하는 바는 바로 일행삼매의 중요성에 대한 일깨움일 것이다. 또 전하는 바에 의하면 오조홍인의 제자들 중에는 정토(淨土)을 수행한 경향이 적지 않다. 〈정토왕생록(淨土往生錄)〉에 보면 "법지 스님은 황매의 홍인 대사를 의지해서 심을 얻었다. … 정토를 가지고, 놓지 않고(계속해서) 염하기를, 9년 동안 모든 행동을 멈추고, 반드시 관상(觀想)만 하였다." 고 하고 있다. 즉 법지 스님이라는 분은 만년에 오로지 정토의 관상(觀想)을 행하였으며 타력 염불에 치우친 경향이 있었다고 전해지고 있다.

혜가로부터 6조까지는 두 말할 것도 없이 달마계통의 선법을 이었으며, 동시에 염불(念佛) 및 정심(淨心)을 방편으로 사용하기도 했으며, 또 한편으로는 불염불(不念佛) 불간정(不看淨) 등을 주장하기도 하는 다양한 방편을 제시하였다. 즉 타의든 자이든 염불수행은 선종에 영향을 미쳤고, 선종의 역사와 함께 그 발자취를 이어왔다고 하겠다. 또 그 공통적인 목표는 모두 성불이며 해탈 열반에 중점을 두었다는 것이다.

선종이 당대에 이르러서 서서히 도약을 하면서 당대 중엽에 이르러서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였지만, 당대 말엽 오대십국을 거치면서 점점 쇄락하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선종이 역사의 무대에서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고, 또 다른 변모된 모습으로 역사의 전면이 나타났다. 오대송초의 영명연수가 〈종경록〉에서 선과 정토가 일치한다는 '선정일치(禪淨一致)' 의 주장을 펼치면서, 이 '선정일치' 사상은 송대 이후 선종의 역사 발전에 새로운 방향을 설정 해 주었다. 물론 여기서 영명연수가 주장했던 정토는 역시 타방정토(他方淨土)를 구하는 것이 아닌, 바로 '자성미타(自性彌陀)' 혹은 '유심정토(唯心淨土)' 를 말한다. 이후 영명연수의 '선정일치' 사상은 '선정겸수(禪淨雙修)' 를 통한 수행 방편을 지향했으며, 송대 이후 선종에서 중요한 하나의 과제로서 대부분의 선사들이 '선정겸수' 를 주장했다. 여기서 몇 사람만 추려서 소개를 해보면 다음과 같다.

송대 운문종의 명교계숭(明教契崇 · 1007~1072), 천의의회(天衣義懷 · 989~1060), 혜림종본(慧林宗本 · 1020~1099), 장로응부(長蘆應夫 · 생몰년대 미상)과 조동종의 진헐청료(眞歇淸了 · 1089~1151) 및 임제종의 사심오신(死心悟新 · 1044~1115) 등이 선정겸수를 주장하였다. 원대로 오면서 선정겸수 및 선정쌍수를 제시한 사람이 더욱더 많아지기 시작한다. 임제종의 중본명본(中峰明本)을 비롯한 명말 사대 고승들도 또한 선정겸수를 주장 했으며, 청대의 철오선사도(徹悟禪師)도 선정겸수를 주장했다. 특히 근대 허운선사(虛雲禪師 · 1840~1959)도 선정겸수를 주장했는데, 그는 직접적으로 연수선사의 사간료(四料簡)를 해석하기를 "염불하는 사람의 마음이 청정하면 국토가 청정해지고 곧 자성미타가 드러난다. 이 정토와 선은 둘이 아니지만(淨土禪不二), 오직 지금 사람들은 도리어 염불은 정(淨)이 되고, 참선은 선(禪)이 된다고 구분한다."고 하며, 또 "선(禪)은 정(淨)중의 선이며, 정(淨)은 선(禪)중의 정(淨)이다. 선과 정(淨)은 본래 상부상조를 행한다."고 힐책을 하면서, "참선 염불 등 법문은 본래 모두 석가가 친히 설하신 것으로, 도(道)는 본래 둘이 아니지만, 다만 숙생 인연과 근기가 다르기 때문에 응병여락(應病與藥 · 병을 대해서 약을 처방한다)의 방편을 삼았다. 방편으로 많은 법문을 시설해서 중생을 교화한다."고 선정일치를 분명하게 표명하였다. 이외도 천태종 몇몇 스님들도 선종쌍수(禪淨雙修)를 제창하였는데, 예를 들면 지예(智禮), 준식(遵式), 지원(智圓), 종효(宗曉), 원효(元曉), 원조(元照) 등이 있다. 물론 이들이 주장 했던 선정쌍수는 초기 중국불교에서 주장한 '염불삼매' 수행법과는 아주 같지는 않지만, 선정(禪定)삼매를 향한 근본수행은 그 맥을 같이한다고 할 수 있다.

전통적으로 불교에서는 염불을 매우 낮은 근기가 행하는 수행법으로 간주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가 있다. 이유는 염불 특히 칭념염불(稱念佛名)은 타력을 의지해서 깨달음을 추구하기 때문이라고 하기도 한다. 따라서 염불을 심천(深淺)의 각도에서 볼 때, 타력을 의지하는 염불은 천(淺 · 얕)하다는 입장이다. 사실 염불이 표면상에서는 타력을 강조하지만, 사실 엄밀히 살펴보면 곧 타력 자력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고 하겠다. 다시 말해서 타력은 곧 자력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좀 더 심도 있는 분석을 해보면 본인이 열심히 염불을 하지 않으면 타력의 힘(아미타불 혹은 제불보살)이 절대 나타날 수도 느낄 수도 없으며, 최소한 리염(離念) 혹은 무념(無念)의 상태에 이르렀을 때 비로소 타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다면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타력은 곧 자력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염불도 곧 자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선종에서 주장하는 자력을 의지한 수행인 자수자증(自修自證) 혹은 자수자오(自修自悟), 자성자도(自性自度 · 스스로 자기를 제도한다)와 큰 차이점이 존재하는 것 같지 않다.

〈동국대 강사〉

탱화 청동불상 전문 [1,000불 3,000불 10,000불]
상설전시관 100여평 개원




신중탱화

四代傳統
계룡산파 계보도
금호당 약효 → 보응당 문성 →
회응당 상균 → 원만당 석윤

해동불교미술원
010-6338-5167 / 010-3743-5167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1동 183번지 해동빌딩

붓다북 불교종합쇼핑몰 BuddhaBook



미아리고개
• 성신여대
아리랑고개
• 4호선 성신여대입구 3번출구
동일하이빌 지하1층 붓다북
• 성북구청

www.buddhabook.co.kr
서울 성북구 보문로 38길 11 동일하이빌 지하1층 Tel. 02-953-7181



우리말 팔천송반야경 박이오역/운주사 펴냄/1만 7천원

이 책은 반야사상을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 기존 한역경전 중심의 강독서 벗어나 새로운 방식의 번역을 시도했다. 즉 한역본보다는 산스크리트 원본 및 영역본을 우선적이고 집중적으로 검토해 내용을 숙지한 다음 시중의 관련 번역서를 참고했다.

아울러 문장에 있어서도 경전의 원뜻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일상서 흔히 쓰는 현대어로 번역하고 풀어내어, 더욱 많은 이들이 반야경의 내용과 사상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렇듯 현대적이고 일상적인 언어를 통해, 독자는 세존 당시의 반야경 설법 현장에 직접 참여해 세존의 직제자들과 함께 자리하면서 반야경에 담긴 심오한 의미를 바로 곁에서 듣듯 좀 더 쉽고 생생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자비'는 인간 괴로움에 대한 강력한 해독제



자비의 과학

데니스 터치 · 벤자민 쉔도르프 · 로라 실버슈타인 공저
손정락 · 최명심 옮김/불광 펴냄/2만 5천원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불교 사상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심리치료법이 전 세계로 확산중이다. 신간 〈자비의 과학〉은 불교의 자비를 응용한 새 심리치료법을 임상 사례와 함께 소개한다. 서구의 심리학자들은 오래전부터 명상의 심신 안정 효과에 주목했고, 이를 심리치료에 적용하려는 활발한 시도가 있었다. 이 중에서 미국 매사추세츠 의과대학 존 카밧진 박사가 불교의 명상법 중 하나인 위빠사나(vipassana) 수행을 기반으로 '마음챙김 기반 스트레스 감소(MBSR)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이후 미국 워싱턴 대학 심리학과 교수 마샤 리네한 역시 불교 수행을 바탕으로 '변증법적 행동치료(DBT)'를 고안했다.

이 두 치료법의 특징을 설명하면, '마음챙김 기반 스트레스 감소 프로그램'은 우울증에, '변증법적 행동치료'는 성격장애가 있는 환자들에게 효과가 있는 치료이다. 이들 치료법 모두 임상을 통해 효과를 입증했으며, 많은 환자들이 증세가 호전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리고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새로운 치료법으로 탄생한 것이 바로 '액트(ACT)'로 불리는 '수용전념치료(Acceptance and Commitment Therapy)'이다. 수용전념치료는 위 두 가지 치료법을 모두 적용시킨 포괄적 심리치료법이다. 2000년경 미국서 시작해 세계로 확산되고 있으며, '마음 문제'를 있는 그대로 '수용(Acceptance)'하고 타협해 심적 변화를 모색하는 것이 특징이다.

하지만 이 세 가지 불교 명상 기반의 심리치료법에는 수행의 개념만 부각된 측면이 강하다. 새로운 치료법이 개발될수록 환자의 증세를 호전시키는 데 효과적이라는 사실은 이미 임상을 통해 밝혀졌다. 그러나 심리학자들은 수행의 개념만으로는 완치까지 가기에 부족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학자들은 치료에 더욱 진전을 보이려면 치료자와 환자가 치유적 관계 내에서 서로 '마음의 상처'를 공감하는 정서적 교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연구를 통해 알게 되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서양 심리학계는 '자비(compassion)'를 주목하기 시작했고, 영국의 폴 길버트 박사에 의해 2010년 '자비초점치료(Compassion-Focused Therapy; CFT)'가 제창되었다. 명상 기반 치료법인 '수용전념치료(ACT)'와 자비를 바탕으로 탄생한 '자비초점치료(CFT)'가 융합해 새로운 심리치료의 장이 열린 것이다.

이 책 〈자비의 과학〉은 '수용전념치료(ACT)'에 과학적인 방법으로 자비를 연구해 고안된 '자비초점치료(CFT)'를 더한 새로운 개념의 치료법을 제시한다. 내용의 중심이 되는 수용전념치료의 의미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수용에 해당하는 'Acceptance'는 뜻 그대로 받아들임을 의미한다. 전념의 'Commitment'는 위탁, 공약, 책임, 실행 등 다양한 사전적 의미가 있으나 여기서는 '목표를 공유해 실행해 가는 것'이라는 개념이 적절하다. 끝으로 'Therapy'는 치료를 말한다. 심리학계에서는 보다 쉽게 A=accept, C=choose, T=take action (수용하다 - 선택하다 - 실행하다)로 표현 한다.

'수용전념치료'와 '자비초점치료' 융합
심리학과 '자비'로 탄생한 新 심리치료
임상 사례 가득해 상담 현장서 활용 가능

이를 바탕으로 수용전념치료를 설명하면, 먼저 A의 accept(수용하다)는 환자가 자신의 고통과 불안으로부터 도망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가리킨다. 하지만 이를 치료하려 하거나 증세를 부정하려 하지 않고 드러내는 데 특징이 있다. 다음으로 C의 choose(선택하다)는 환자 자신의 욕구나 기분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에게 가치 있는 것을 선택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T의 take action(실행하다)은 환자 자신이 선택한 것을 실행하는 실천이 뒤따른다.

이처럼 수용전념치료는 환자가 선택한 것을 실천하도록 하는 치료법이라는 점에서 매우 적극적인 심리요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수용전념치료는 행동주의 심리학 범주에 포함된다. 이에 비해 '자비초점치료(CFT)'는 발달심리학, 정서신경과학, 불교 실천 철학 및 진화 이론서 출현했다. 이 둘은 서로 궤를 달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용적으로 많이 중첩됐고, 서로 보완작용을 한다.

자비초점치료는 수용전념치료 실무자와 환자에게 자비심을 함양시키고 심리적으로 유연해지도록 만든다. 수용전념치료에 자비의 개념이 중요한 이유는 환자가 자신의 증세를 수용하거나, 치료자가 환자의 이야기를 경청할 때 받는 부담감을 많이 감소시키기 때문이다.

수용전념치료는 환자가 자신의 고통을 드러내지 않고, 스스로를 용서하지 않게 되면 치료를 하는 데 큰 어려움이 따른다. 그렇기 때문에 자비로운 마음이 필요하며, 자비심에 따라 환자의 수용(acceptance) 태도가 확연히 달라진다. 이는 곧 자비와 수용이 깊게 관련되어 있음을 나타내는 뜻이기도 하다. 자비초점치료는 자비심을 키우기 위한 훈련도 포함된 치료법이다. 여기에는 마음을 진정시키는 호흡법과 마음챙김 훈련, 평온을 위한 다양한 이미지 트레이닝이 담겨 있다. 이를 통해 치료자는 환자의 마음을 진정시키고, 환자는 자신을 수용할 수 있도록 마음가짐이 바뀌게 된다. 학자들은 이 과정을 임상에 적용해 큰 효과를 직접 확인하게 되었고, 자비의 치유적 잠재력에 눈 뜨기 시작했다.

〈자비의 과학〉은 한마디로 수용전념치료와 자비초점치료를 탁월하게 통합해 설명한 책이다. 사용하기 쉽고 임상 현장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돼 있어, 수용전념치료 실무자뿐 아니라, 자비 치유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 특히 종교적이고 모호한 자비라는 개념을 과학적인 접근법을 통해 충분한 이론을 제시한다. 따라서 자비를 과학적 방법론으로 명쾌하게 개념화시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자비심 기르기 훈련법과 지금까지의 임상 사례, 치료 계획서 등이 충실히 담겨 있어 실무자들에게 큰 도움을 준다. 이 중에서 사례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워크시트는 활용 면에서 단연 가치가 높다. 책 곳곳에 담겨 있는 자비의 치유력과 수용전념치료의 실무 이론은 이 책을 읽는 이로 하여금 새로운 마음 치료의 가능성을 보여주기에 충분하다. 자비를 키우는 훈련을 통합할 수 있도록 쉽고 실제적인 기법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심리치료사 스스로 자비심을 키우고, 이를 바탕으로 내담자와 환자에게 실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도 제공한다. 즉 마음의 고통을 줄이는 획기적인 최신 심리치료법이 이 한 권에 담겨진 것만으로도 이 책은 충분히 마음 공부에 매력적이다.

대혜 스님 65편 편지모음… 간화선 교과서



대혜서장

김태완 역주
침묵의 향기 펴냄
2만 4천원

〈대혜서장〉은 간화선의 창시자인 대혜종고 스님이 주로 사대부들과 참선에 관해 주고받은 65편의 편지글을 모은 책으로서 간화선의 교과서이자 탁월한 참선의 지침서다. 대혜 스님은 이 편지글들을 통해 간화선의 본래 모습이 어떤 것인지, 참선(參禪)이란 어떤 것인지를 보여 주며, 불법을 보는 안목, 방편의 언어와 진실에 관한 안목 역시 보여 준다. 또한 공부인들이 빠지기 쉬운 잘못된 선병(禪病)들과 그릇된 공부 자세를 낱낱이 지적하여 알려 줌으로써 도중에 길을 벗어나 헛되이 세월을 낭비하지 않도록 인도한다.

이 책은 무심선원 김태완 원장이 당송대 백화문 사전을 비롯해 여러 가지 관련 사전을 두루 참고했고, 책에 인용된 수많은 문장들의 원전도 빠짐없이 찾아보고 확인하는 등 최대한 정확하고 엄밀한 번역이 되도록 만전을 기했다. 대혜 스님의 가르침을 바르게 이해하고 선 공부, 간화선 공부에 도움이 되도록 수많은 도움말을 주석으로 덧붙였다.

김태완 원장은 대혜 선사의 어록인 〈대혜보각선사어록〉 전 30권을 완역하였고, 대혜 스님의 가르침을 중심으로 선과 간화선에 대해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설명한 〈간화선 창시자의 선〉을 지은 저자로서 대혜 스님의 가르침을 깊이 이해하는 전문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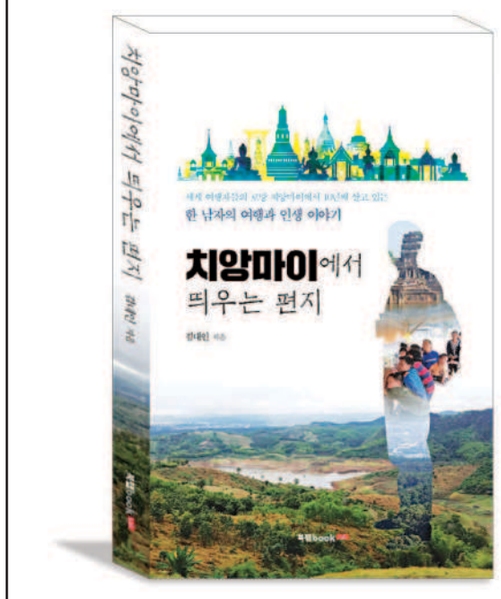
대혜 스님은 이 책에서 간화선을 하는 올바른 방법에 관해 자세하고 친절히 설명할 뿐만 아니라, 확철대오한 선사로서 불가사의한 진리를 문득 돌아보도록 지도하는 등 불법을 보는 안목을 길러 곧바로 본래면목을 깨닫도록 인도한다. 또한 공부인들이 빠지기 쉬운 잘못된 선병(禪病)들과 그릇된 공부 자세를 낱낱이 지적하여 알려 줌으로써 도중에 길을 벗어나 헛되이 세월을 낭비하지 않도록 돕는다.

〈대혜서장〉이 간화선의 교과서일 뿐 아니라 선(禪) 공부의 필독서인 이유 중 하나는 개개인의 공부 상황에 맞추어 구체적인 안내를 하기 때문이다. 불이법에 철두철미한 선지식(善知識)을 만나지 못한 상태로 공부를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빠지기 쉬운 함정이 수없이 많다. 설령 선지식의 바른 말씀을 듣는다고 해도 공부인이 자기 식으로 그릇되게 이해해 버릴 가능성 역시 매우 높다. 〈대혜서장〉은 그런 경우들에 관해 잘못을 바로잡아 주는 사례들이 풍부하게 실려 있으므로 선(禪) 공부, 마음공부의 필수적인 참고서라 할 만하다.

간화선은 대혜 스님이 조사선을 응용하여 수행의 방편으로 만든 것이다. 간화선이라는 방편은 당시 선지식과 함께 머물면서 공부하기 힘든 처지에 있는 공부인들, 주로 재가자들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혼자 공부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조사선과 간화선은 둘 다 분별심이 무너져서 자기도 모르게 불이법에 통하도록 이끄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둘 사이의 차이점이라면, 조사선은 스승이 마음을 곧장 가리키면 제자가 이에 반응하여 견성성불을 하도록 이끄는 공부인 반면, 간화선은 공부하는 사람이 스승 대신 스스로 직접 자기에게 화두를 통해 마음을 가리키도록 하는 방법이라는 점이다. 다시 말해, 대혜 스님이 말하는 간화선은 스승 대신 자신이 직접 화두를 보여 주어 자기를 일깨우고, 자신에게 직접 말해 주어 자기를 일깨우도록 하는 방법인 것이다.

대혜 스님은 하나의 방편으로서 필요에 따라 간화선을 지도했을 뿐, 간화선만을 가르친 것은 물론 아니다. 스님과 함께 머무는 승려들에게는 주로 전통적인 방식을 통해 공부를 지도했으며, 책에 실린 편지글에서도 경우에 따라서는 직지인심, 즉 곧장 마음을 가리켜 준다. 예컨대, "님께서는 스스로 근기가 둔하다고 하시니 한번 이와 같이 돌이켜 보십시오. 둔함을 아는 자도 둔합니까? 만약 이와 같이 돌이켜 보지 아니하고 단지 근기가 둔함에 머물러 다시 번뇌를 일으킨다면, 헛된 환상 위에 다시 환상을 더하는 것이며 헛꽃 위에 또 헛꽃을 더하는 짓입니다."

김주일 기자



치앙마이에서 띄우는 편지

여행은 내가 아들에게 준 가장 큰 인생의 선물이다.

세계 여행자들의 로망 치앙마이에서
노년을 보내고 있는 한 남자가
손자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진짜 여행 이야기

여행은 소중한 사람과의 추억을 만들어주고, 추억의 소중함을 기억하게 한다. 해외여행이 흔하지 않던 시절, 저자가 아들이 더 넓은 세상에서 더 큰 꿈을 꾸기를 바라며 함께 세계로 나가 여행했던 추억을 책으로 엮었다. 배낭에 반찬 통 몇 개를 넣고 '맨 땅에 헤딩'하듯 무작정 떠난 세계여행. 낯선 땅낯선 사람들과 만나 울고 웃고 또 삶의 방향을 찾아가는 계기가 되어준 여행지에서의 체험을 이제는 일흔의 할아버지가 된 저자가 수십 자루의 볼펜을 바꾸어 가며, 아무런 기록 없이 기억에 의존해 생생하게 복원했다. 인생의 황혼기를 아름다운 치앙마이에서 보내며 아름답고 맑은 영혼을 가진 이들에게 많은 배움을 얻고 삶의 활력을 얻은 여행에 관해 쓴 에세이로, 독자들은 이 책을 통해 현지의 리얼한 일상과 다양한 문화를 간접적으로나마 체험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저자 김대인 | 북랩 | 230쪽 | 값 14,500원

저자 : **김대인**

저자 김대인은 1950년생으로 1989년 일본 자유 여행으로 첫 해외 여행을 다녀 왔으며, 1992년 초등학교 1학년 아들과 함께 배낭을 메고 세계 곳곳을 여행하기 시작하여 그 후로 자동차를 타고 육로로 동남아 여러 나라와 오지마을을 찾아다니는 자유 여행가이다. 2000년부터 태국 치앙마이에서 노후생활을 준비하여 현재 치앙마이에 거주 중이다. 많은 사람들에게 치앙마이의 매력과 오지 여행의 진가를 알려주고 싶은 두 손자의 할아버지이다.

불교건축의 HOT 뉴스!
이제는 스틸공법 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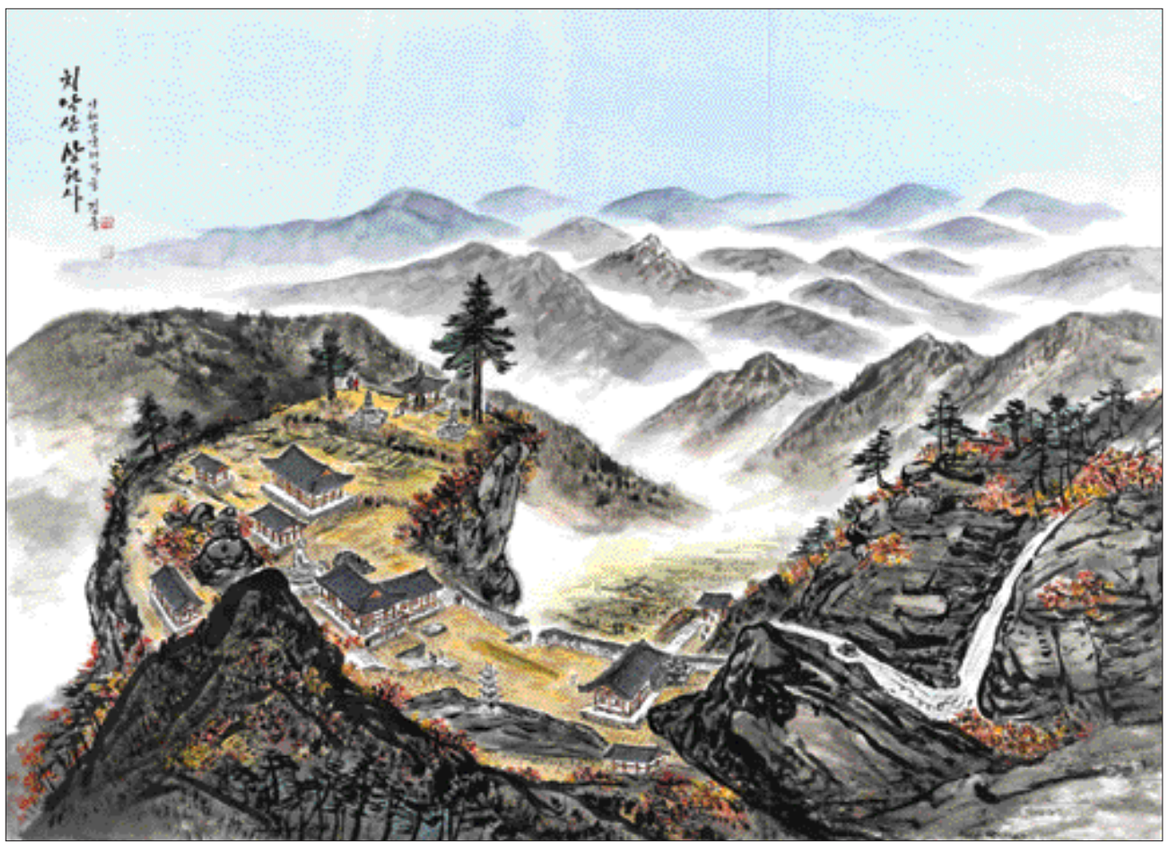


HOT

스틸공법 선두주자로 인기몰이 하고 있는 **사찰건축 전문업체**.
친환경적이며 단열효과가 탁월하고 **구조변경이 용이**합니다.
목조건축물보다 **시공비 1/5정도 대폭절감**, 단청까지 3~4개월.
습기에 강하고 내구성이 우수합니다.

☎ 문의 : 대진산업 010-2628-99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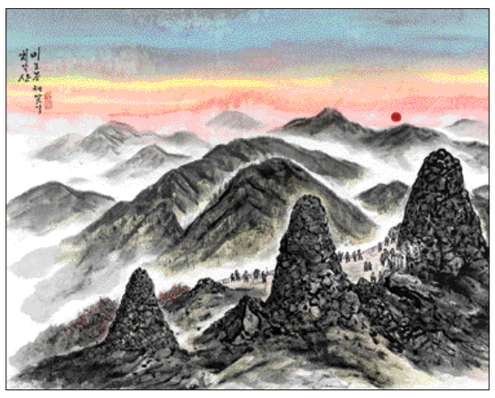
리뷰 이호신 화가 화문집 발간 〈근원의 땅, 원주 그림순례〉



치악산 상원사 (148×210cm)



원주 거돈사지의 설야 (137×178cm)



치악산 비로봉 해맞이 (148×208cm)

산수화에 인문학을 담다

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사라진 세월의 흔적을 더듬으며 잡초 무성한 절터를 거닐다가 화실로 돌아왔다. 한지를 펴고 거돈사터를 화폭에 옮겨본다. 발굴 당시의 희미한 항공사진을 어렵게 구해 살펴가며 가람의 밑그림을 그린다. 답사는 한여름에 했으나 그림의 배경은 스산한 겨울밤이다. 밤하늘에 반달이 떠있고, 폐사지에는 눈이 내린다. 산세와 폐사지와 유적을 수묵으로만 그려나간다. 어제의 역사 속에 오늘의 눈이 내린 장면을 표현하고 무상한 세월을 담고 싶었기에…"

흥미로운 화문집이 나왔다. 이호신 화백의 〈근원의 땅, 원주 그림순례〉다. 한국 진경산수화의 전통을 창신하기 위해 다양한 기법과 다채로운 색채를 응용하여 '생활산수화' 라는 독자적인 장르와 화풍을 추구해 온 이호신 화백은 30년 이상 이 땅의 산하대지와 문화유산을 두루 살피며 가슴에 절절히 담아 그림으로 형상해온 길 위의 화가다. 이 화백은 화가와 문장가, 역사가와 인문학자의 소양 그리고 우리 것에 대한 지극한 사랑으로 이 땅을 바라보고 생각하고 그림을 그린다. 그래서 그의 그림 속엔 그림만 있지 않다. 그 그림이 그려질 수밖에 없는 이유와 의미, 가치 등 그 그림으로 인해 생각하고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영역들이 녹아있다. 잃어버린 역사와 사라진 삶의 이야기를 채집하여 오늘의 숨결과 현재의 시선으로 복원하고 있는 것이다. 자연과 사물에 시간의 흔적을 채록하고, 그 안에 깃든 생의 자취를 시각화한다. 아울러 사라지고 망실된 우리의 역사와 삶의 이야기를 복원하여 기록한다. 역사에서 추출된 공식적인 것들뿐만 아니라 미처 눈여겨보지 못했거나 누락된 것들, 소소하여 밀려난 것들까지 힘껏 껴안으며 그림과 글로 되살려 놓는다. 그래서 그의 그림은 '이야기 그림' 이면서 '그림 이야기' 가 된다.



원주에 깃든 역사 · 자연 · 문화 · 인물 126점

오늘의 숨결과 현재의 시선으로 복원

화가 · 문장가 · 역사가 · 인문학자의 눈으로 본 원주

이 화백이 이번에 펴낸 〈근원의 땅, 원주 그림순례〉는 이 화백이 수년에 걸쳐 치악산 국립공원과 원주시를 탐사하여 그 공간이 산출한 의미 있는 대상들을 그림과 글로 담아낸 화문집이다. 원주의 자연환경과 역사, 문화유산, 상징 인물 그리고 근현대사의 자취까지 총망라한 기행화첩으로, 원주라는 땅의 어제와 오늘이 한데 어우러진 감각적이고 운치 있는, 이호신의 생활산수화를 만날 수 있다. 여섯 개의 주제로 구성되어 있는 책에는 모두 126점의 그림이 수록되어 있다.

△제1부 '치악산국립공원을 걷다' 에서는 원주의 상징과 같은 치악산국립공원의 아름다운 자연과 그 속에 자리한 빛나는 문화유산을 소개한다. 구룡사와 비로봉이 있는 구룡지구, 입석사와 흥양리 마애불좌상, 보문사 등을 만날 수 있는 황룡지구, 계곡이 맑고 숲이 우거진 금대지구, '활엽수 박물관' 이라 불리는 성황림과 속세의 근심을 씻어주는 상원사를 품은 성남지구 등이다.

△제2부 '원주, 사람의 향기' 에서는 우리에게 익히 알려진 소설가 박경리, 무위당 장일순 선생의 감동적인 생애를 인상 깊게 들려준다. 그리고 구름처럼 물처럼 살다간 동양철학자 김충열, 이 땅에 고구마를 처음 들여온 조엄 등 원주 땅에서 살다간 걸출한 위인들도 만날 수 있다.

△제3부 '역사의 유산을 찾아서' 에서는 고인돌과 석조불두를 통해 돌 하나에 깃든 역사의 무게를 가늠하고, 법천사지와 흥법사지, 거돈사지 등 원주의 폐사지를 찾아가 천년의 웅대한 시간과 조우한다.

△제4부 '삶과 문화의 숨결' 에서는 역사가 살아 숨 쉬는 박물관을 찾아가고, 급변하는 시대에 꿋꿋하게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는 진정한 장인들을 만난다. 화가는 고판화 박물관과 오랜 미래신화미술관, 뮤지엄 산 등 원주의 특색 있는 문화공간을 둘러보고, 한지테마파크와 시민 축제의 흥겨운 현장도 소개한다.

△제5부 '자연과 마을의 풍경' 에서는 학곡리 한다리골과 복사꽃이 아름다운 두둑마을, 생명의 배움터 참꽃작은학교, 소나무가 춤추는 집 무송원, 자연이 피고 지는 치유의 정원 원주 허브팜 등을 찾아간다.

△제6부 '근원과 오늘, 미래의 땅' 에서는 중앙시장과 자유시장, 미로예술시장 등 원주 시민들의 오늘의 삶이 고스란히 살아 있는 현장을 생동감 있게 그려낸다.

이호신 화백은 지금까지 17차례 개인전을 열었으며, 국립현대미술관, 영국 대영박물관,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 주 핀란드 한국대사관, 주 탄자니아 한국대사관 등에 작품이 소장되어 있다. 지은 책으로는 〈화가의 시골편지〉 〈지리산진경〉 〈가람진경〉 〈산청에서 띄우는 그림편지〉 〈우리 마을 그림순례〉 〈그리운 이웃은 마을에 산다〉 〈풍경소리에 귀를 씻고〉 〈숲을 그리는 마음〉 〈길에서 쓴 그림일기〉 등이 있다.

청소년불교사진 공모전 3월 15일 마감

청소년들에게 불심을 심어주기 위한 사진공모전이 열린다. 한국불교사진협회(회장 · 최우성)은 불기 2562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미래 한국불교의 주인공인 청소년들에게 영상을 통한 불심을 심어주기 위해 조계종총무원 봉축위원회와 함께 '제12회 청소년불교사진공모전' 을 개최한다. 전국의 중 · 고등학교 학생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마감일은 3월 15일이다. 작품 내용은 △일상생활 속에서의 불교생활 모습 △사찰에서의 신행활동 및 법회 모습 △나눔을 함께 실천하는 아름다운 봉사활동 모습 △파라미타 수련생활 모습 △불교문화재의 예술적 표현 등이며 규격은 가로 2500픽셀 이상의 jpg이미지로 1인 5점 이내로 응모할 수 있다. 접수처는 한국불교사진협회 홈페이지(www.buddhaphoto.org)이며, 심사결과는 역시 홈페이지를 통해 3월 중에 발표한다. 시상식은 5월 중 열리는 회원전 개막식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시상내역은 △조계종 총무원장상인 대상 수상자(1명)에게 상장과 장학금 50만원, △금상(1명, 한국불교사진협회장상 및 장학금 30만원), 은상(2명, 한국불교사진협회장상 및 장학금 각 20만원), 동상(3명, 한국불교사진협회장상 및 장학금 각 10만원), 장려상(5명, 한국불교사진협회장상 및 장학금 각 5만원), 입선(30점 이내, 상장) 등이다. 박재완 기자

오감으로 즐기는 무술년 정월대보름

국립민속박물관 '2018년 정월대보름 흥겨운 잔치 한마당'



액막이 연 날리기 체험.

국립민속박물관(관장 · 천진기)은 2018년 정월대보름(3월 2일)을 맞이하여 2월 28일(수)과 3월 2일(금) '2018년 정월대보름 흥겨운 잔치 한마당' 세시 행사를 개최한다.

대보름은 〈삼국유사〉에서부터 그 유래를 볼 수 있는 우리 고유의 명절이다. 선조들은 대보름의 달빛을 어둠과 질병, 재액을 밀어내는 밝음의 상징으로 생각했다. 좋은 기운을 함께 나누기 위해 기억하기 시작한 이 날의 풍속들은 우리 세시풍속의 1/4이 넘을 정도로 풍부하다. 설 풍속을 합치면 전체의 절반이 넘는다. 부럼깨물기 · 더위팔기 · 귀밝이술마시기 · 시절음식인 복쌈이나 묵은 나물먹기와 달떡먹기 등 개인적 차원의 풍습과 줄다리기 · 다리밟기 · 고싸움 · 돌싸움 · 쥐불놀이 · 탈놀이 · 별신굿 등 집단적 차원의 풍습이 전해온다.

이번 행사에서는 대보름날의 풍습을 입과 눈, 손과 몸 그리고 마음으로 각각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행사들이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보름달을 닮은 배지와 한지를 이용하여 원형 과반도 만들어 보고 액막이연도 만들어 날려보는 체험의 장도 마련된다.

아울러 정월대보름에는 박물관을 찾는 관람객들을 대상으로 특별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하루에 3번 정해진 시간에 부럼과 약밥, 복쌈을 선착순 100명에게 무료로 나누어 준다. 또한 예약한 10명 이상의 단체가 방문하거나 할아버지, 할머니와 손주가 함께 새끼줄 꼬기 체험에 참여할 경우에는 부럼, 약밥, 복쌈 등으로 구성된 정월대보름 행복꾸러미를 무료로 제공한다. 박물관에서 펼쳐지는 정월대보름 행사 가운데 3종 이상을 체험하고 인증할 경우, 돌림판을 돌려 국립민속박물관에서 제공하는 소정의 선물을 받을 수 있다. 정월대보름인 3월 2일(금) 11시부터는 박물관을 찾는 관람객 200명에게 선착순으로 정월대보름 부럼을 무료로 나누어 줄 예정이다. 박재완 기자

사단법인 해동불교약사종

법인등록번호 284121-0003832

전법도생과 자비공생을 함께 하실 제방의 인연을 모십니다

宗 상구보리(上求菩提)는 직지인심(直指人心) 견성성불(見性成佛)하고

旨 하화중생(下化衆生)은 전법도생(傳法度生) 자비공생(慈悲共生)한다.

선교겸수(禪敎兼修) 수행하면서
약사경을 소의경전으로 수지 독송하고
투철한 약사신앙을 실천하는 불교
그 맥을 정립하여

절(寺)에 오고 가는 뭇 사람들이
마음이 편안하고
기도하는 사람에겐 고통이 사라지고 심중소구 원만하며
스님을 친견하면 희망을 담아가는 곳.

유구(悠久)한 전법도생 가람으로 만들면서
우리 서로 화합하여 종단으로 맺어지면
안락하고 여유롭고 서로 돕는 자비공생의 사회

이것이 불국정토 아니겠는가!

1 약사신앙을 연구하며 전법도생하고 구도자로서 수행하며 자비공생하는 호국불교, 천년의 맥을 이어갈 약사종 종도를 기다립니다.

2 한번쯤 출가를 생각 하셨던 분. 또는 부처님을 모시고 있으면서 원만하지 못하고 막연하신 분. 알맞은 길, 큰 길로 인도합니다.

3 종파(宗派) 신분(身分)을 초월하여 본 종단의 종지와 사업에 관심있게 일조할 강호제현 인사를 특별자문위원으로 모십니다.

◆ 1차 구비서류

1 주민등록 등본 1통 / 2 이력서 1통 / 3 사진 2매

◆ 종단 사업

1 삼보호지 약사신앙 등 불교홍포사업
2 불교교학 연수 등 교육사업
3 사원 및 포교원설치 관리사업
4 교재편찬 기관지 및 출판사업
5 사회복지 및 장애인 복지사업
6 승려 등 수행자의 복지사업
7 장례문화연구 및 납골당 운영사업

(사)해동불교약사종 총무원장 원담 일광 합장

총무원 :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잠곡로 16-1
전화 031)584-2270 / 팩스 031)584-2269 / 총무원장 010-8981-7908

대행선사 관법 총체적 연구 담다

청강 스님 박사 학위 논문 '대행 관법 연구'

대행선사 관련 7번째 학위논문
선사 사상 수행론 관점서 분석
'일상서 가능한 실천수행법' 특징
관법 활동 · 현대적 의의도 살펴

한마음선원 창건주 묘공당 대행 선사(1927~2012)의 '한마음 주인공 관법'을 수행론적 관점에서 총체적으로 분석한 박사학위 논문이 나왔다.

청강 스님은 '대행의 관법(觀法)에 관한 연구(이하 대행 관법 연구)'로 동국대서 2018년도 상반기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그간 대행 선사 관련 학위 논문은 석사 4편, 박사 2편이었으며, 청강 스님의 논문으로 총 7편이 됐다.

청강 스님의 '대행 관법 연구'는 대행 선사의 행적부터 관법의 정의와 원리, 수행론 분석, 활용까지 총체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다. 특히 대행 선사의 관법 사상을 기존 불교사상과의 관련성을 분석했다는 점은 주목할 만 하다.

청강 스님은 "대행 선사는 '나의 불성이나 석가모니 부처님의 불성이나 역대 조사들의 불성이나 불성은 똑같다'고 설했다"면서 "이처럼 대행 선사는 우리들 자신이 본래 부처라는 것과 제불조사들과 다르지 않음을 강조했다. 이러한 선사의 사상은 대승불교의 본래성불사상과 일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청강 스님은 대행 선사가 제시한 관법에 대한 정의를 '본래성불 사상에 입각하여 주인공과 내가 둘이 아님을 철저히 믿고 놓아, 모든 것을 지켜보는 수행을 하는 한편 증명관을 통하여 자성발견 후 보림 과정 속에서 자리이타의 보살행을 통해 둘 아닌 도리를 실천하면서 최후에 구경경지에 이르러 한생각으로 중생들이 요구에 응해주면서 보살행을 실천하는 것'라고 제시한다.

그러면서 "관법의 철학적 기초이자 선리(禪理)로는 '한마음 · 주인공 · 오공'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면서 "관법의 선행(禪行)을 통하여 한마음 등의 선리를 체득하는 것이 선사가 제시하는 선사상"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대행 선사의 관법 원리에 대해 청강 스님은 "〈대승기신론〉에서 '일체진여의 평등함', '여래장의 무량한 성공덕', 그리고 '세간 · 출세간의 자비인과'가 누구에게나 있음을 강조하듯이 선사 역시 각자에게 삼성(三聖, 부처 · 문수 · 보현)의 작용이 갖춰져 있다고 설한다"면서 "선사는 이러한 원리를 한마음주인공, 한생각의 지혜, 그리고 나툼의 활용으로 구분해 설명했다"고 말했다.

대행 선사가 제시한 관법수행은 무엇일까. 청강 스님은 '믿음 · 놓음 · 지켜봄(觀)'를 3요소를 바탕해 구체적인 수행법을 제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스님은 "선사는 완전한 구경각을 이루기 위해서는 견성과 둘 아닌 도리, 그리고 나툼의 도리를 원돈(圓頓) · 점차(漸次)적 방법을 동시에 제시하면서 근기에 맞게 가르쳤다"며 "천태와 보조의 경우 중생들의 근기를 고려해 원돈수행과 점차수행을 겸해 사용했던 것처럼 대행 선사의 경우도 이와 같다"고 강조했다.

대행 선사 관법의 현대적 의의를 분석한 점도 눈길을 끈다. 이에 대해 청강 스님은 "선사의 관법은 기존의 불교 관법의 전통을 현대 한국불교에 생활화 · 현대화 · 과학화 · 세계화에 맞게 새롭게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특히 현대에 맞게 이공학(理工學)적 원리로 관법을 설명해 이해할 수 있게 했다. 인문 · 이공학의 융합을 요구하는 현 시대에 상호 학문을 연구하는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청강 스님은 대행 선사의 관법 특징으로 "'일상생활에서 가능한 실천수행법', '기복에서 벗어난 자력수행법'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주목할 만한 2018년 상반기 박사 논문 ①

동국대 등 대학 졸업식이 잇달아 개최됐다. 이를 통해 불교 관련 박사들이 배출된 것은 당연한 일이다. 동국대에서만 13명이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올해 상반기 박사 학위 논문 중 주목할 만한 논문들을 선별해 소개한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간화선 대중화 방안 '生修不二禪' 제언

이상호 박사 학위 논문 '생수선 정립 방안 연구'

생활과 수행이 둘 아님을
疑情 이원화 · 통합으로 증명
佛祖부터 현대 선지식까지
생수불이 사례 분석도 '눈길'

현대 간화선 대중화 방안으로 '생수불이선(生修不二禪, 이하 생수선)'이라는 새로운 개념이 제시됐다.

서강대 종교학과에서 올해 상반기 박사 학위를 취득한 이상호 씨는 박사 학위 논문 '의정의 이원화와 통합을 활용한 생수선 정립 방안 연구'를 통해 생활과 수행이 둘이 아니라는 '생수불이선'을 제시하며 "생수불이 사상을 통해 현대 한국불교계에 필요한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씨는 "생활과 수행 사이의 간격은 사실상 승속을 막론하고 누구나 부딪치는 문제"라며 "생활과 수행이 별개로 분리된 채 있다면 그 분리된 간격을 초월하기 위해 생활과 수행간의 긴강 관계가 남는다. 이를 초월하기 위해 생수선 정립 방안을 제시했다"고 연구 취지를 밝혔다.

논문에서 이 씨는 생수선 정립 방안을 수행법 형성 역사를 비롯해 수행심리적 관점, 선불교에서의 생수불이 사례 등을 통해 입증해 간다.

그는 선종 수행사 안에서 의정(疑情)의 이원화와 통합, 생활의 수행화, 매개 활용의 수행 방편 등 세 가지 요소들에 의해 수행법의 변증법적 전개 메커니즘이 형성됨을 제시하며, "이 메커니즘이 간화선 생성원리"라고 주장했다.

이 씨는 "불교의 전통적 의정은 주체적 의정이었으나 간화선이 등장해 화두가 만들어지고 의도적 의정이 설정됐다. 이는 불교수행법의 획기적 전환"이라며 "현재 수행법의 사례를 살펴보면 두 의정의 통합적 입장이 나타난다. 두 의정의 통합은 결국 생수불이임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 씨는 생수불이의 실제 전통적 사례로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탁발을 대표적으로 꼽았다. 남이 주는 음식으로만 생활하는 탁발에 대해 이 씨는 "석존의 존재 이유가 중생제도며, 그 실현은 몸소 낮추는데 있다는 보여주는 사례"라며 "이는 불법의 근본진리를 바탕으로 하는 생활양식이자 동시에 수행방법인 생수불이를 드러낸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대적 사례로는 숭산 · 대행 · 종달 · 백봉 등의 현대 선지식의 수행법들을 꼽았다. 특히 대행 선사와 관련해 이 씨는 "대행 선사는 '주인공(主人公) 관법'이라는 독창적인 수행법을 제창하면서 뛰면서 생각하고, 생각면서 뛰는 생수불이를 주장했다"면서 "화두를 따로 설정하지 않고 각자 생활 속에서 부딪히는 문제 그 자체를 바로 화두로 삼는 대행선은 전형적인 생수불이 사상"이라고 분석했다.

생수선의 방법론에 대해 이 씨는 △생활과 수행의 이원일체화 △동일한 출 · 재가 수행법을 꼽았다. 그러면서 "화두참구에 있어서는 기존 1700개 화두 외에도 생활 자체가 수행이므로 일상생활의 문제들도 모두 수행 매개가 될 수 있다"면서 "깨달음을 얻은 후에도 화두에 대한 활용적 측면에서 계속 수행할 수 있으며, 생활적인 면에서도 끊임없는 도전에 응하기 위한 수행적 태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전법 미래비전 모색위한 제7회 전법학술상 공모

불광연구원, 4월 30일까지

불광연구원(이사장 지홍)은 전법교화에 대한 학술적 담론을 개발하기 위한 전법학술상을 공모한다.

올해로 7회째를 맞이하는 전법학술상 논문 공모는 △전법에 대한 불교사상 분석 △전법의 역사적 사례 · 인물 탐구 △전법 모범사례 발굴 △현대 전법 방법론 제시 △미래지향적 전법론 · 방법론 제시 등을 주제로 모집된다.

지원 자격은 박사과정 수료 이상의 국내외 학자와 승가대 학인, 군법사, 포교사. 불교기관 종사자다. 응모 논문에 대한 연구계획서는 오는 4월 30일까지 연구원 홈페이지에 구비된 소정양식으로 제출하면 되며, 완성논문은 9월 30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시상은 바라밀상 1명 상금 500만원, 전법상 2명 각 상금 300만원이 수여된다. 수상 논문은 2018년 12월에 있을 시상식에서 발표회를 갖고, 불광연구원에서 발간하는 학술지〈전법학연구〉에 게재된다. (02)941-3537 신성민 기자

마애불의 아름다움 인문학 강좌로 만난다

한국미술사硏 강좌 개설

마애불의 아름다움을 만날 수 있는 강좌가 열린다.

한국미술사연구소(소장 문명대)는 3월 26일부터 6월 11일까지 매주 월요일 오후 2시 가회동 연구소에서 '마애불의 아름다움'을 주제로 강좌를 개최한다.

마애불은 바위절벽에 부조나 선각으로 새긴 불상을 말한다. 실크로드와 중국을 거쳐 한국에 전래됐다. 이번 강좌는 인도를 출발해 실크로드와 중국, 우리나라에 조성된 마애불에 대해 상세히 배울 수 있다.

강의는 문명대 소장의 '마애불의 성격과 인도 마애불의 시작'을 시작으로 유근자 동국대 교수가 '실크로드 상의 마애불'(4월 2일)에 대해 강의한다. 주수완 前 고려대 교수가 '중국 북조 석굴의 마애불'(4월 9일)에 대해, 양은경 부산대 교수가 '중국 수당 때 마애불'(4월 16일)을 강의한다.

이후부터는 한국의 마애불의 시작과 시대별 마애불의 특징과 아름다움을 전문가들이 나서 강좌를 진행하다. 또한 6월 4일에는 마애불 답사도 진행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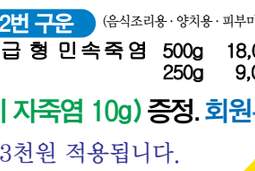
연구소는 "이번 강좌를 통해 마애불의 성격, 기원, 우리나라의 수용과 성행 등 마애불의 전모를 쉽게 배울 수 있을 것"이라며 "불자와 시민들의 많은 관심 바란다"고 밝혔다. (02)3673-3426

신성민 기자

사찰신도관리프로그램
"번거로운 설치없이 이용가입 후 바로 사용 가능"
동종업계 최저 가격
최초 가입시 1개월 무료 사용
월사용료 : 기본 19,800원
설치비 없음, 세팅비 전액무료
"이용 사찰의 프로그램 만족도 우수"

연등표 출력 인등표 출력 위패 출력
문자발송 기부금 영수증 사주 팔자
부가서비스
■ 원격지원 – 해당 사찰의 컴퓨터를 원격으로 제어하여 실시간 프로그램 설명 및 오류 수정
■ 적립포인트 제도 시행 – 접속률, 이용후기작성, 사용료 3% 등 최대 22,000P 제공
■ 축원문출력, 삼재관리, 회계관리, 우편라벨 출력, 신도생일 및 신도영가 기일 자동 표시 / 물품관리, 전국 날씨정보, 메모장, 일정관리, 등록된 모든 자료 파일 다운로드 가능
NAVER 지엠소프트
대표전화 070-7633-2525 / 010-8588-2525
상담문의 : 평일 09:30 ~ 17:30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휴무
홈페이지 http://www.gmst.co.kr

빙의치유(귀신들림) 상담환영!!
몸안에 들어온 영가 (천도)
전국 최고의 실력으로 보답합니다!!
각종 빙의의 구체적 증상
• 사람이 갑자기 어느 싯점부터 이상 행동하는 경우. (폭력적으로 변한 경우, 술을 갑자기 많이 먹는 경우, 술 먹으면 눈빛이 바뀌는 경우, 밥을 끊임없이 많이 먹는 경우 등)
• 잠잘적마다 많은 꿈에 시달리는 경우, 잠잘적마다 가위눌리는 경우.
• 불면증 심하거나 자면서 비명지르고 헛소리, 중얼거림이 심한경우.
• 어느 싯점부터 사람이 의욕이 없고 우울해지고, 몸이 마르고, 몸이 천근 만근 무거우나 병원에선 특별한 이상이 없는 경우.
• 환청, 환각 증세가 심한 경우. • 희귀병 투병중인 경우.
• 불안, 공포, 무서움증이 심한 경우.
• 알 수 없는 머리 두통, 가슴 통증, 배아픔 등이 있는 경우.
• 중,고등학생이 갑자기 이상행동, 폭력적행동, 학습능력저하, 자살 충동 일으키는 경우.
• 장례식장, 상가집, 국내, 외 여행 다녀온 후 몸과 마음에 이상 증세 있는 경우.
• 동물령, 식물령도 천도 가능함.
[꼭 천도해줘야 할 영가]
• 자살(음독, 목매어, 투신)했거나 원한이 많은 상태로 죽은 경우.
• 갑작스런사고, 병고, 심장마비로 죽은 경우.
상담해법 문제해결 중심으로 상담 : 빙의치유 전문자격 갖춤
■ 차후 지속 관리해 드림
■ 원격 치유 가능 (외국에 있는 분도 치유 가능)
상담 문의처 제주불교금강선원 (빙의치유영가천도전문상담원)
☎ 064)746-0789
오시는길 : 제주시 삼무로 47, 3층 (연동) 삼무공원버스 정류장 하차하여 바로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민속죽염 30년전통
조상의 얼과 혼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2)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3)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4)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놀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

9번 구운
가루 자죽염 125g 40,000원
가루 자죽염 230g 73,000원
알갱이 자죽염 125g 43,000원
알갱이 자죽염 230g 78,500원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20g 7,500원
(단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2번 구운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8,000원
250g 9,000원
※ 자죽염 구매시 사은품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10g) 증정. 회원우대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주문 및 상담 : 010-2823-0483
입금 : 농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



사형수 포교 50년
삼중 스님의 **남기고 싶은 인연**
④ 사형수 육근성

죄는 용서 안 되지만 고단한 삶에 위로를…

"늦은 가을밤입니다. 감방의 가을은 냉기와 함께 찾아옵니다. 지장기도를 끝내고, 사과를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사과 맛은 변함이 없습니다. 다른 것이 있다면 지금 먹는 사과는 죽기 위해서 먹는 것일 뿐입니다. 갇혀 있는 몸, 갇혀 있는 곳에서 드리는 기도, 그러나 결말은 사형입니다." –사형수 육근성의 〈참회록〉 중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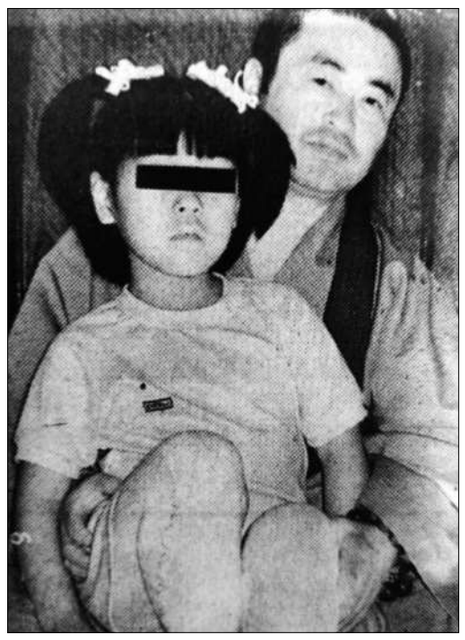
내가 사형수 육근성을 처음 만난 것은 1990년 경이다. 육근성은 인물이 출중한 밤업소 가수였다. 그는 한 여인과 동거하며 딸 하나를 두었는데, 집안의 생계를 모두 책임져야 했던 육근성은 단칸방에서 부모님까지 모시고 살아야 할 만큼 형편이 좋지 못했다. 육근성의 아내는 미래가 보이지 않는 현실을 비관해 오다가 딸을 낳고는 집을 나가버렸다.

어렵게 살아온 육근성은 사랑하는 아내마저 자신을 떠나가자 큰 충격과 함께 삶의 의지를 잃고 방황하게 된다. 여러 차례 어린 딸과의 동반자살을 결심하고 바닷가를 찾기도 했지만, 울고 있는 어린 딸의 얼굴을 바라보면 어린 아이가 무슨 죄인가 싶어 되돌아오곤 했다고 한다.

그렇게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을 때, 육근성은 설상가상으로 급성 맹장염에 걸린다. 하지만 수술비가 없었다. 육근성이 아픈 몸을 이끌고 전전긍긍하고 있을 때, 그의 어머니가 급전으로 2백만 원의 수술비를 간신히 마련했다. 육근성은 어머니 덕분에 건강을 회복할 수 있었지만 그 바람에 어머니는 빚을 지게 됐다. 당시 200만원은 육근성과 그의 어머니에겐 큰 돈이었으며, 급전이었기에 육근성의 마음은 무거웠다. 평소 어머니께 잘해 드린 것도 없는데 큰 빚까지 지게한 자신이 너무나 원망스러웠고, 어머니께 죄송스러웠다. 육근성은 다른 것은 몰라도 자신 때문에 어머니가 진 빚만은 어떡하든 해결해드리고 싶었다.

그러던 중 육근성은 교도소를 들락거리던 친구로부터 솔깃한 제안을 듣게 된다. 그것은 돈을 대가로 한 '살인'이었다. 아내가 떠나가고 어머니께는 큰 짐만 안겨드린 채 희망 없이 살아가던 육근성은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없었다. 돈이 없어 아내가 떠나갔고, 돈이 없어 어머니를 빚쟁이로 만든 육근성이었다. 그는 눈에 보이는 것이 없었다. 그저 많은 돈만 벌 수 있다면, 돈을 벌어 어머니의 빚을 갚고 어머니와 딸을 행복하게 해줄 수만 있다면 영혼이라도 팔고 싶은 심정이었다. 하지만 그는 돈도 받지 못하고 살인만 저지른 채 사형수가 되었다. 처음부터 잘못된 길이었다.

나는 그를 서울구치소에 처음 만났다. 나를 만나자 그는 "스님, 저는 종교를 믿고 싶지 않습니다. 제 딸이 저에겐 신앙이자 종교입니다. 엄마가 도망가서 조부모 손에 크고 있는데, 이 아이를 어떡하면 좋을까요? 저는 우리 딸을 도와주시는 분이 생기면 그 분이 하라는 대로 모두 하겠습니다"며 딸에 대한 애타는 심경을 털어놨다.



삼중 스님은 사형수 육 씨의 딸(사진 왼쪽)을 양녀로 삼고 고3때까지 친자식처럼 키웠다.

불법으로 교화, 형집행 날까지 참회기도
육근성 "제 딸이 저에겐 종교이자 신앙"
삼중 스님, 그의 초등생 딸 양녀로 삼아

그 당시 서울 자비사 주지로 있던 나는 그 말을 듣자마자 초등학교 1학년이던 육근성의 딸을 양녀로 삼았다. 호적에만 안 올렸을 뿐, 나는 그 아이를 친딸처럼 보살폈다. 그의 딸 역시 나를 '스님 아빠'라고 부르면서 잘 따랐다. 그 아이도 나의 마음이 보였는지, 불교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도 그 아이는 불교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육근성 역시 "스님의 큰 은혜 죽어서라도 갚고 싶다"며 불교에 귀의했다.

"용서받고 싶지 않습니다. 아무도 저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용서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좁은 감방 안의 공간일망정 빈틈없이 채워놓아야 합니다. 아직도 그 공간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이 감방 안으로 돌아오지 못할 때 어쩌면 비로소 이 공간은 채워질지 모릅니다. 아니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용서받을 수 있다면 그 후에나 가능할런지요."

육근성은 안타깝게도 그의 딸이 초등학교 3학년 때인 2년 뒤 사형이 집행되어 세상을 떠났다. 육근성은 세상과 작별하는 그날 까지 자신의 죄를 참회하며 살았다. 어떤 이유로도 그의 죄는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지만, 한 인간의 고단한 삶을 함께 들여다봐주고 위로하는 일은 공업의 우리 모두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후 나는 그와의 약속대로 그의 딸이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학비를 대고 돌봐줬다. 그의 딸은 가끔씩 할머니와 내가 머물고 있는 자비사를 찾아왔다. 하지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는 자신의 존재를 알고 있는 내가 부담스러웠는지 더 이상 나를 찾지 않았다. 아마도 그 아이는 지금 쯤 어엿한 숙녀로 성장했을 것이다. 아버지의 사형 집행 후 그의 어린 딸이 나에게 보낸 편지들을 읽어보면 지금도 가슴이 저미어온다.

"저의 아빠는 어디에 있을까요? 하늘에 별이 되어 반짝반짝 빛나며 저를 보고 있을까요? 저는 아빠가 원망스러웠어요. 저는 소원이 있었어요. 아빠와 함께 살며 그때 그 행복을 아빠와 함께 다시 만들어 보는 것이었어요. 시험 잘봐서 아빠 기쁘게 해드리려고 열심히 공부 했어요. 하지만 아빠가 그렇게 되실 줄은 꿈에도 생각 못 했어요. 제가 커서 스님 아빠께 보답하겠습니다. 몸 건강하시고 안녕히 계세요.

추신: 저는 저의 반에서 1등을 했고, 3학년 전체에서는 5등을 하였습니다."

정리=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이란 보살의 '밥 짓는 소리'
④ 월탄 스님

월탄 스님은 우리 집 가정 법회 첫 법사 스님이시다.
그런 인연으로 22년 전, 암수술을 하고 집에서 요양 중일 때, 스님께서 전화를 주신 적이 있다. 날씨 이야기로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지만 건강을 염려하시며 등을 토닥여 주시는, 그 때의 통화 내용에서 느꼈던 따뜻한 마음을 스님께서는 변치 않고 지금까지 보여주고 계시다.

도반들과 가끔은 스님께서 주석하고 계시는 단양 대흥사를 찾아 참배하는데 어느 날은 공양간에서 먼저 대접을 받고 올라오라고 하셨다. 우리는 공양 시간이 지난 걸 알고 있었기에 별 생각 없이 들렀는데 공양주 보살님은 밥이 없는데 어떻게 하느냐고 난감해하며 누룽지는 어떠시냐고 물었다. 우리는 이구동성으로 "좋지요. 유행(遊行)길이라 속이 더 편합니다"로 인사를 대신하였다. 공양 후, 스님을 참방하니, "그래, 대접은 잘 받았느냐?"라고 물으시길래, "네, 대접을 아주 크게 잘 받았습니다. 밥이었으면 주발이었을 텐데 누룽지이다 보니 양푼째 받았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다. "하하하, 그래, 야! 임마, 그게 대접이야!"라고 하시며, 그동안 황정산 대흥사에 미륵부처님을 모시고 금성선원에서 정진하시는 과정과 소소한 일상까지 들려주셨다. 이어서, 우리는 스님의 뒤를 따라 미륵부처님께 예를 갖추니 스님께서는 미륵부처님 전에서 손수 목탁을 치시며 21세기 불교 중흥과 세계평화, 남북통일을 기원하시며 가정 가정마다 미륵부처님 도량이 되기를 축원하시고 〈불설미륵삼부경〉을 한 사람 한 사람 손에 쥐어 주셨다.



반야용선

출원번호 30-2017-00239984

극락세계로 가는 지극한 마음을 반야용선에 담아
부처님의 가피를 염원합니다.

불교의식에서 꼭 필요한 장엄의식구로서 종교적 경건함과 예술적 아름다움이 어우러진 화려하고도 우아한 장식으로 인로왕 보살님의 안내와 지장보살님이 함께 동승하여 극락왕생을 염원하는 것입니다. 정교한 조각, 우아한 단청, 화려한 휘장으로 제작된 최고의 작품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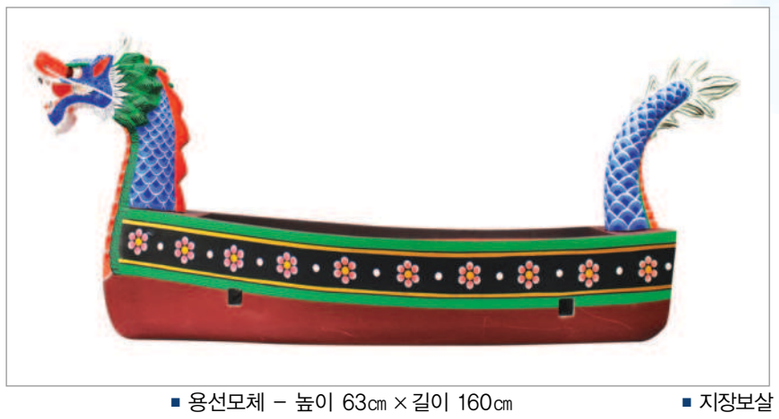
반야용선 전체 – 높이 130㎝ × 길이 160㎝

• 주문 : 현불샵 02-2004-8214 / 010-7339-8688
(제작기간 : 입금 후 15일 / 전국 어디든 직접 배송하여 드립니다.)

불교 장엄의식의 품격을 보장합니다

평생 사용 하실 수 있으며, 연(輦)만 분리하여 별도 의식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 인로왕번 – 높이 129㎝


■ 용선모체 – 높이 63㎝ × 길이 160㎝


■ 지장보살 – 높이 60㎝ × 넓이 18㎝


■ 반야용선 앞면


■ 반야용선 후면


■ 연(輦) – 높이 62㎝ × 넓이 68㎝ (받침대 높이 43㎝)


■ 반야용선 받침대 – 높이 48㎝

■ 무 게 : 반야용선 전체무게 20kg
■ 금 액 : 450만원
■ 재 질 : 반야용선 – FRP / 연(輦) – 목재
■ 제조사 : 안스아트

한국불교 대표방송 BTN
www.btn.co.kr

새해, 새날

무술년 戊戌年(불기 2562년)

불성은 빛이다. 밝고 밝은 빛이다.
아름답고 아름다워라. 찬란하고 찬란하구나.

'마음의 향기' 中에서

BTN 채널안내 skylife 181번 olleh HD 233번 tv HD 305번 TV HD 185번 | 지역케이블은 02-3270-3300로 문의해주세요 | 인터넷 및 모바일로 다시보기가 가능합니다.

20년경험 성지순례자의 도반
마하연 여행사
문의 02-365-7747
전화 www.mahayeon.com
서울시 종로구 조계사앞 대불광빌딩2층
YESGOOD.CO.LTD

성지순례는 역시 마하연 입니다!

미얀마

찬란한 불교문화를 간직한
천불천탑의 나라 미얀마 성지순례

부처님의 탄생지부터 열반지까지
인도 8대 성지순례 11일
인도네팔 "품격 성지순례" 출발 확정!

인도성지순례의 정석,
마하연과 하면 역시 다릅니다.

신비스러운 불교왕국 부탄
파로-팀푸-푸나카-파로

라오스 6일
비엔티엔-루앙프라방-방비엔
라오스/베트남 8일
하롱베이-비엔티엔-루앙프라방-방비엔
베트남/캄보디아 6일
하롱베이-씨엠립

티베트 8일 성지순례
하늘길"칭짱열차"체험
인천-서안-라싸-얌드록초-장체-시가체
라싸-칭짱열차-서안-인 천

마하연 특별기획
백두산 성지순례
[4박5일] 북파+서파
민족의 영산 백두산 성지순례

4대불산 중국 대만
오대산 아미산 보타산 구화산
북경-운강석굴-오대산-석가장 5일
구채구-아미산-황룡 6일
구화산-낙가산-보타산 5일
백두산(북파+서파)-고구려유적지
압록강유람선 6일
대만
불광사 공승 대법회(4박5일)

인도네시아 태국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족자카르타 5박6일
성지순례와 휴양을 동시에
족자카르타-발리
태국 3박5일
방콕-아유타야-파타야-방콕
스리랑카 6일
콜롬보-아누라다푸라-미힌탈레-담불라
시기리야-폴론나루와-담불라-캔디-콜롬보

자연의 향으로 를 켜세요
삼환양초가 함께합니다
www.shcandle.com

소이(SOY) 왁스 양초
미국산 LOTUD

로터스 양초 특징 :
① 그을음이 거의 없습니다.
② 대두(콩)에서 추출한 순수식물성입니다.

연꽃 향초

법당에서 초공양을 쉽게 올릴 수 있도록 연꽃 모양의 크리스탈 받침대와 밀납양초로 손쉽게 양초를 교체할 수 있는 신제품을 개발하였습니다. 밀납양초는 특수 PC컵을 이용하여 화재위험을 완벽하게 방지 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법당 및 야외 어디서나 안전하게 초 공양을 올릴 수 있습니다.

크리스탈 연꽃 받침대 밀납양초 교체형

※ 국내에 유통되는 모든 불교양초를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www.shcandle.com

new


연꽃향 국내산
연꽃향의 은은한 연꽃향이 번뇌로 복잡한 마음과 정신을 바로잡아 깨끗하고 맑은 기운으로 전해지길 바라봅니다. 연꽃향은 맑고 깨끗한 아침 연못의 고요한 연꽃향과 고급 목분이 만들어내는 완벽한 조합으로 지쳐있는 심신을 다스립니다.
[장, 단] 10,000원 (제조 : 국내산)
[대바라] 15,000원 (제조 : 국내산)

new


강화(사자발) 약쑥향 국내산
강화도에서 심고 가꾸어 엄선한 사자발 약쑥으로 만든 완벽한 조합이 지쳐있는 심신을 다스립니다. 조연향당이 전하는 은은한 강화 사자발 약쑥향이 번뇌로 복잡한 마음과 정신을 바로잡아 깨끗하고 맑은 기운으로 넘칠 것입니다.
[장, 단] 10,000원 (제조 : 국내산)
[대바라] 15,000원 (제조 : 국내산)

new


향나무향 국내산
향나무향은 수백년 풍상을 견뎌낸 향나무를 구하여 본사에서 직접 분쇄하여 염료를 일체 사용하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향입니다. 조연향당은 향나무향의 지속적인 연구로 향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장, 단] 10,000원 (제조 : 국내산)
[대바라] 15,000원 (제조 : 국내산)

조연향당 조연향당은 국내향 제조 연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창산업 SHC 삼환종합양초 농협 221133-51-020122 (입금자 : 장경분) 상담문의 031)766-0242 / 팩스 031)766-0233 소비자 무료전화 : 080-0766-8888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봉골길 131-14